사업보고 2021-0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V)

박원순·최윤경·김희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사업보고 2021-01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V)

저 자 박원순, 최윤경, 김희수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 원 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희 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사업보고 2021-01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V)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03-9 9359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우리 연구소는 2017년부터 지난 5년 간 「행복한 육아문화 정책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부모됨, 결혼관, 자녀 양육관, 육아 행복감 등을 조사하였다. 5년 간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본 결과, 육아문화와 관련한 국민들의 가치관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국민들의 육아와 관련한 생각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문화의 정착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생 대응 노력이 각별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변인들이 거론되고 그에 따른 대책이 모색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문제의 원인은 보다 근본적인 곳에서 찾아야 함을 절감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향후 아동 및 육아정책 방향의 수립, 수정하고 현장 대응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난 5년 간의 「행복한 육아문화 정책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결과가 활용되어, 보다 국민정서를 반영한 현장 밀착도 높은 정책을 생산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연구진의 독립적인 연구의 산물로 우리 정부나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Ⅰ. 서 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1~4차년도 KICCE 여론조사 14
3. 연구내용 15
4. 연구 방법 16

Ⅱ. 2021 정기 여론조사 결과의 상세 분석 23

1. 부모됨에 대한 여론 26
2.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63
3. 육아행복감에 대한 여론 87
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95
5. 심층면담 결과 138
6. 소결 142

Ⅲ. 2017~2021 KICCE 여론조사의 추이분석 169

1. 수시 여론조사의 목적 171
2. 수시 여론조사의 결과 171
3. 소결 175

Ⅳ. 수시 여론조사 209

1. 수시 여론조사의 목적 211
2. 수시 여론조사의 결과 211
3. 소결 215

Ⅴ. 결론 및 제언 177
1. 육아문화 전반의 변화 ····· 179
2. COVID-19가 육아문화에 미친 영향 ····· 180
3. 인식과 정책요구도의 차이 ····· 181

참고문헌 183

Abstract 185

부록 187
부록 1. 정기 여론조사 설문지 ····· 187
부록 2. 수시 여론조사 설문지 ····· 208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 214

표 목차

〈표 Ⅰ-4-1〉 1~4차년도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 내용과 비교한 5차년도 문항의 구성 ····· 17
〈표 Ⅰ-4-2〉 2021년 수시 여론조사 내용 ····· 21
〈표 Ⅰ-4-3〉 포커스 집단 면담 참여자 배경 정보 ····· 22
〈표 Ⅱ-1〉 2021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 대상자 특성 ····· 25
〈표 Ⅱ-1-1〉 부모됨 관련 동의 정도(4점 만점) ····· 27
〈표 Ⅱ-1-2〉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 ····· 29
〈표 Ⅱ-1-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인식 ····· 30
〈표 Ⅱ-1-4〉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한 인식 ····· 31
〈표 Ⅱ-1-5〉 가정 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동의정도(4점 만점) ····· 33
〈표 Ⅱ-1-6〉 이상적 자녀양육과 가사의 분담 ····· 34
〈표 Ⅱ-1-7〉 (영유아 부모) 실제 자녀양육과 가사의 분담 ····· 35
〈표 Ⅱ-1-8〉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 36
〈표 Ⅱ-1-9〉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집안 일(식사 준비, 빨래 등) ····· 37
〈표 Ⅱ-1-10〉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자녀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 38
〈표 Ⅱ-1-11〉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 38
〈표 Ⅱ-1-12〉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자녀의 기관 등·하원 도와주기 ····· 39
〈표 Ⅱ-1-13〉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 40
〈표 Ⅱ-1-14〉 조부모의 정기적 손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 41
〈표 Ⅱ-1-15〉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42
〈표 Ⅱ-1-16〉 영아기 자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43
〈표 Ⅱ-1-17〉 유아기 자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44
〈표 Ⅱ-1-18〉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45
〈표 Ⅱ-1-19〉 자녀의 중고등학생 시기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46
〈표 Ⅱ-1-20〉 (자녀가 있는 경우) 좋은 부모 정도: 자기 평가 ····· 47

〈표 Ⅱ-1-21〉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의도: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자녀를 갖기까지 사간을 더 둘 것이다. ····· 48
〈표 Ⅱ-1-22〉 (자녀가 없는 경우) 미래에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 자기 평가 ··· 49
〈표 Ⅱ-1-23〉 좋은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1순위) ····· 50
〈표 Ⅱ-1-24〉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 ····· 51
〈표 Ⅱ-1-25〉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인식 ····· 52
〈표 Ⅱ-1-26〉 (영유아 부모) 상황별 스마트폰 사용 정도(5점 척도) ····· 53
〈표 Ⅱ-1-27〉 영유아 부모의 활동 시간 및 만족도 ····· 54
〈표 Ⅱ-1-28〉 영유아 (취업중)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근무시간 ····· 54
〈표 Ⅱ-1-29〉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집에 머무는 시간 ····· 55
〈표 Ⅱ-1-30〉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 56
〈표 Ⅱ-1-31〉 (영유아 부모) 양육효능감 ····· 58
〈표 Ⅱ-1-32〉 (영유아 부모) 양육스트레스 ····· 60
〈표 Ⅱ-1-33〉 (영유아 부모) 사회적 관계망 ····· 61
〈표 Ⅱ-1-34〉 (영유아 부모) 정기적인 모임 ····· 62
〈표 Ⅱ-1-35〉 (영유아 부모) 육아인프라 및 주변 환경 ····· 63
〈표 Ⅱ-2-1〉 결혼의 필요성 ····· 64
〈표 Ⅱ-2-2〉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4점 만점) ····· 65
〈표 Ⅱ-2-3〉 자녀의 필요성 ····· 66
〈표 Ⅱ-2-4〉 이상적인 자녀의 수 ····· 68
〈표 Ⅱ-2-5〉 본인 자녀의 필요성 ····· 69
〈표 Ⅱ-2-6〉 자녀가 있어야 하는 주된 이유 ····· 70
〈표 Ⅱ-2-7〉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 ····· 72
〈표 Ⅱ-2-8〉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4점 만점) ····· 74
〈표 Ⅱ-2-9〉 자녀 양육의 어려움(1순위) ····· 75
〈표 Ⅱ-2-10〉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 ····· 77
〈표 Ⅱ-2-11〉 자녀의 미래에 대한 선호도-경제적 안정 vs 열정에 따른 삶 ··· 78
〈표 Ⅱ-2-12〉 부모역할 선호도-친구 같은 부모 vs 권위 있는 부모 ····· 79
〈표 Ⅱ-2-13〉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한 희망 ····· 80
〈표 Ⅱ-2-14〉 (기혼, 자녀 있음) 추가 출산 계획 ····· 81
〈표 Ⅱ-2-15〉 (기혼, 자녀 있음, 추가출산 계획 있는 경우) 자녀수 계획 ····· 82
〈표 Ⅱ-2-16〉 (기혼, 자녀 있음) 자녀 낳을 계획 없으나 생각 중인 경우 해당 이유 ····· 83

〈표 Ⅱ-2-17〉 (기혼) 결혼 당시 자녀 계획 ····· 84
〈표 Ⅱ-2-18〉 이상적인 자녀 수 ····· 85
〈표 Ⅱ-2-19〉 출생아 수 감소 문제에 대한 생각 ····· 86
〈표 Ⅱ-3-1〉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 ····· 87
〈표 Ⅱ-3-2〉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4점 만점) ····· 89
〈표 Ⅱ-3-3〉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월 평균) ····· 90
〈표 Ⅱ-3-4〉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 91
〈표 Ⅱ-3-5〉 자녀 양육이 가장 힘든 시기에 대한 인식 ····· 93
〈표 Ⅱ-3-6〉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 ····· 94
〈표 Ⅱ-4-1〉 국가 차원 육아정책 설계 시 우선 순위 ····· 95
〈표 Ⅱ-4-2〉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 시 우선 순위 ····· 96
〈표 Ⅱ-4-3〉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인식 ····· 98
〈표 Ⅱ-4-4〉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대한 인식 ····· 99
〈표 Ⅱ-4-5〉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 ····· 100
〈표 Ⅱ-4-6〉 아동학대 관련 정부가 비중을 두어야 할 사항 ····· 102
〈표 Ⅱ-4-7〉 영유아 사교육 이유에 대한 인식(1순위) ····· 103
〈표 Ⅱ-4-8〉 사교육 과열 현상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 ····· 104
〈표 Ⅱ-4-9〉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 105
〈표 Ⅱ-4-10〉 세금 추가 부담의사가 없는 이유 ····· 107
〈표 Ⅱ-4-11〉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1순위) ····· 108
〈표 Ⅱ-4-12〉 정부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 109
〈표 Ⅱ-4-13〉 정부의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1순위) ····· 110
〈표 Ⅱ-4-14〉 직장(회사, 기업 등)의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도 ····· 112
〈표 Ⅱ-4-15〉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 113
〈표 Ⅱ-4-16〉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 114
〈표 Ⅱ-4-17〉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 115
〈표 Ⅱ-4-18〉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 117
〈표 Ⅱ-4-19〉 유치원에서 강조해야 할 점(1순위) ····· 118
〈표 Ⅱ-4-20〉 어린이집에서 강조해야 할 점(1순위) ····· 119
〈표 Ⅱ-4-21〉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120
〈표 Ⅱ-4-22〉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121
〈표 Ⅱ-4-23〉 유치원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 122
〈표 Ⅱ-4-24〉 어린이집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 123

〈표 Ⅱ-4-25〉 유치원 교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2가지 선택) ····· 124
〈표 Ⅱ-4-26〉 어린이집 교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2가지 선택) ····· 125
〈표 Ⅱ-4-27〉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 ····· 126
〈표 Ⅱ-4-28〉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성 ····· 127
〈표 Ⅱ-4-29〉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불안 요인(1순위) ····· 128
〈표 Ⅱ-4-30〉 감염병 유행 시 영유아 교육 보육 우선 지원 정책(1순위) ····· 130
〈표 Ⅱ-4-31〉 COVID-19로 인한 자녀 양육비 지원 적절성 ····· 131
〈표 Ⅱ-4-32〉 COVID-19로 인한 자녀 양육비 지원 관련 ····· 132
〈표 Ⅱ-4-33〉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유치원, 어린이집) ····· 133
〈표 Ⅱ-4-34〉 실내 시설: 실내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의 운영 ····· 135
〈표 Ⅱ-4-35〉 옥외 시설: 공원, 광장 등 등의 운영 ····· 136
〈표 Ⅱ-4-36〉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 137
〈표 Ⅲ-1〉 2017~2018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 대상자 특성 ····· 149
〈표 Ⅲ-1-1〉 부모됨 인식의 변화(4점 만점) ····· 151
〈표 Ⅲ-1-2〉 부모됨 인식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152
〈표 Ⅲ-1-3〉 부모관의 변화 ····· 153
〈표 Ⅲ-1-4〉 부모의 역할: 부모는 자녀의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1점)
vs.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2점) · 155
〈표 Ⅲ-1-5〉 자녀의 역할: 부모에게 보답해야(1점)
vs.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의무(2점) ····· 155
〈표 Ⅲ-1-6〉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과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한 인식 ····· 156
〈표 Ⅲ-1-7〉 부모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 156
〈표 Ⅲ-1-8〉 (자녀가 있는 경우) 좋은 부모 정도: 자기 평가(5점 만점) ····· 157
〈표 Ⅲ-1-9〉 (자녀가 없는 경우) 좋은 부모가 될 정도: 자기 평가(5점 만점) ·· 158
〈표 Ⅲ-1-10〉 결혼에 대한 생각의 변화 ····· 158
〈표 Ⅲ-2-1〉 영유아 아버지의 양육과 가사 분담 실제의 변화 ····· 159
〈표 Ⅲ-2-2〉 영유아 부모 양육효능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161
〈표 Ⅲ-2-3〉 영유아 부모 양육효능감의 변화 ····· 162
〈표 Ⅲ-3-4〉 영유아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164
〈표 Ⅲ-2-5〉 영유아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 165
〈표 Ⅳ-2-1〉 2021 수시 여론조사 표본의 특성 ····· 171
〈표 Ⅳ-2-2〉 2021 영유아 자녀의 하루 동안 가정 내 학습관련 활동 시간(분) 평균 172

〈표 Ⅳ-2-3〉 2021 영유아 자녀의 취침 시각, 기상 시각, 그리고 수면 시간 · 173
〈표 Ⅳ-2-4〉 지난 한 주간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 횟수 ····· 174
〈표 Ⅳ-2-5〉 자녀 연령별 지난 한 주간 자녀와 한 활동의 횟수 ····· 174
〈표 Ⅳ-2-6〉 자녀의 취침 및 기상 시각과 수면시간 ····· 175

그림 목차

[그림 Ⅲ-1-1] 부모됨 인식의 요인부하량 스크리도표 ····· 152
[그림 Ⅲ-1-2] 부모관의 변화 ····· 154
[그림 Ⅲ-1-3] 부모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 157
[그림 Ⅲ-1-4] 결혼에 대한 생각의 변화 ····· 159
[그림 Ⅲ-2-1] 영유아 아버지의 육아와 가사 분담 실제의 변화 ····· 160
[그림 Ⅲ-2-2] 부모됨 인식의 요인부하량 스크리도표 ····· 161
[그림 Ⅲ-2-3] 영유아 부모 양육효능감의 변화 ····· 163
[그림 Ⅲ-2-4] 영유아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요인부하량 스크리도표 ····· 164
[그림 Ⅲ-2-5] 영유아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 166
[그림 Ⅳ-2-1] 2021 영유아 자녀의 하루 동안 가정 내
학습관련 활동 시간(분) 평균 ····· 173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타국의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인구 변화를 겪고 있으며, COVID-19로 육아환경 및 관련 여론에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음.

□ 이와 같이 변화된 2021년의 여론 및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변화된 추이를 파악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육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1~4차년도 KICCE 여론조사

□ 2017년 1차년도 조사결과 젊은 층의 부모됨의 기대가 낮으며 경제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부간 양육 분담에 있어서 불평등한 점이 드러났음.

□ 2018년 2차년도 조사결과 자녀의 추가 출산이 어려운 이유가 연령과 양육비 부담임이 밝혀졌으며, 보편적 비용지원 외의 추가적인 비용지원 정책은 낮은 인지도를 보였음.

□ 2019년 3차년도 조사는 1차년도의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정책적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음.

□ 2020년 4차년도 조사는 정기여론조사에서 3차년도와 유사한 문항을 구성하는 한편 수시조사를 통하여 COVID-19의 가정 내 학습 환경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미국과의 비교를 실시하였음.

다. 연구내용

□ 2021년 일·가정 균형에 대한 정책,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의 통합,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이에 따른 문제, 돌봄 시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등과 육아에 대한 젠더 감수성 개선, 정책의 아동 중심성, 저출산 대응 수단이 아닌

육아정책 자체, 육아정책에 대한 사회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돕는 육아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정책의견을 파악함.

□ 2017년~2021년 육아관련 여론 변화의 추이를 응답자의 성별, 결혼여부, 자녀 유무, 직업, 소득, 주거형태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비교함.

□ 감염병 상황에서 영유아의 가정 내 학습 환경의 실태와 전년과 비교한 변화 정도를 파악함.

라. 연구방법

□ 3,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육아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 요구를 파악하고 이슈 및 현안 관련 인식을 분석함.

□ COVID-19가 영유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의 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수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함.

□ 육아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과 정책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FGI를 실시함.

2. 2021 정기 여론조사 결과의 상세 분석

□ 2021년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에는 총 3,020명 참여함. 30대가 5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40대 40.9%, 50대 이상 4.4%, 20대 이하 2.0% 순으로 응답함. 결혼 유무를 살펴보면, 미혼이 1.4%, 기혼(배우자 있음)이 97.9%, 기혼(배우자 없음)이 0.7%임.

가. 부모됨에 대한 여론

□ 사회 전반적으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인 준비, ‘자녀의 주양육자는 부모여야 한다’는 생각과 부모 역할, 양육 방법, 부모-자녀 관계 교육 등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자녀의 대학 졸업 시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도 지원한다는 의견이 높았음.

□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부간 자녀양육과 가사의 분담 비율이 거의 반반에 가

까웠으나 실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역할 분담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낮은 경제소득이 한 요인인 것으로 예견되었음.

나.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낮은 동의율을 보였음.

□ 자녀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필수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낮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강했음.

-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절반 가까이 되었으며 자유로운 삶에 대한 필요성에도 많은 응답이 뒤따랐음.

□ 자녀 미래에 대한 선호도 역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선호하는 응답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음.

다. 육아 행복감에 대한 여론

□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아이를 키우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에 대한 동의도가 가장 높았으나 육아 어려움에 대한 인식도 상당하였음.

□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는 평균 월 270만원으로 분석됨.

□ 영유아 자녀 양육의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조부모가 육아에 참여할 때 행복을 함께 누리는 면도 크지만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 체력적 한계로 인한 부정적 인식도 높아졌음.

라.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 양육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었는데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국가차원의 육아 정책에 대한 입장에서 남자,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지원’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 정부의 재정적인 육아 지원 설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0~5세 무상보육·유아교육 이행’이 절반 이상이었으나 50대 이상, 비영유아 부모는 ‘국가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응답자의 배경변인

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자녀 돌봄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

- 시간지원 정책의 경우 주변 여건상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서비스 지원 확대를 바라는 경향이 있음.
- 사교육의 이유 중에 돌봄을 위한 것이라 답한 경우도 약 20%에 달함.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하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영유아 부모일수록 동의율이 높음.

□ 노키즈존은 오히려 영유아 부모도 찬성하여 육아친화 문화에 대하여 규제 중심의 negative 정책보다 육아친화 문화를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positive 정책을 선호함.

3. 2017~2021 KICCE 여론조사의 추이분석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에는 매년 3,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5년간 총 15,111명이 참여하였음.

가. 부모됨에 대한 여론의 변화

□ 부모가 되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영유아는 가급적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양육을 담당해야 한다 등의 부모됨과 관련한 문항에 대한 긍정 의견이 갈수록 줄어듦.

□ 다만 30대 부모와 40대 부모의 세대 간 차이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나.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의 변화

□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갈수록 낮아짐.

- 결혼 가치관에 대한 성별 차이가 갈수록 커져 남성은 긍정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긍정비율이 훨씬 낮음.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역시 '자녀가 있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이전보다 그 수치가 낮아짐.

다. 육아 행복감에 대한 여론의 변화

□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은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위에 꼽혔지만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에 대한 동의가 지난 5년간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냈으나 5년간의 추이는 하락세임.

□ 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다)이 긍정적 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음.

라.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의 변화

□ 육아정책에 대한 지난 5년간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의견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소득에 따른 의견의 차이는 반대로 커지고 있음.

□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5년간 부정적인 의견이 줄어듦.

4. 수시 여론조사

가. 수시 여론조사의 목적

□ 2020년 COVID-19 발발로 인하여 가정 내 양육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음.

□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서 제공되던 서비스지원이 COVID-19로 인하여 많이 제한되어 가정에서의 교육 및 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가정 내 학습환경의 변화를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그 추이를 파악하고자 함.

나. 수시 여론조사의 결과

□ 영유아의 가정 내 활동 시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음.

- 책을 읽는 시간, 미술활동, 스마트 기기 및 영상 기기 사용시간 등이 늘어났음.

- 다만 비중이 높은 실내놀이, 바깥놀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영유아의 가정 내 활동 중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스마트 기기로 시청하는 것 포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영유아 가정 내 활동의 주된 내용임을 확인하였음.

5. 결론 및 제언

가. 여론조사 결과의 시사점

□ 국민 여론은 지속적으로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가고 있음.

□ 일·가정 양립 및 부부간 양육 분담, 지역사회 및 국가의 양육 책임 강화와 같은 영역에서 영유아 부모뿐 아니라 전반적인 육아관련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늘어가면서 육아가 개인과 가정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옮아가고 있음.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인식이 더 강화되고 있음.

나. COVID-19의 육아문화에 미친 영향

□ 재택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이 늘어났음.

- 가정 내 양육의 시간이 COVID-19 이전과 비교하여 급격히 늘어났음.

□ 사회관계의 전반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위한 친지,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오히려 강화되었음.

□ 양육을 위한 친지, 친구, 이웃과의 갈등이 늘어났으며 전반적인 양육 스트레스도 COVID-19 이후 증가하였음.

다. 인식과 정책요구도의 차이

□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정은 양육의 어려움을 육체적인 부분보다 심리적인 부분

이 더 크다고 호소하고, 정부의 정책보다 직장의 지원을 더 많이 바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더 바람.

□ 저소득 가정의 경우 양육의 물리적 어려움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직장보다는 정부 정책의 강화를 더 바라며, 자녀 출산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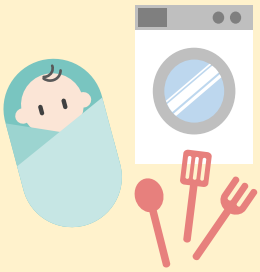
□ 성별 양육 분담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있으며 이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도 줄어들었음. 다만 여전히 인식의 차이가 유의하게 컸고 지속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함.

조사대상

- 2017년~2021년
- 매년 3,000명 이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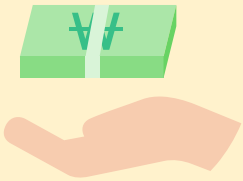
총15,000명 이상 참여

조사결과



부부간 양육과 가사의
분담 증가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에
긍정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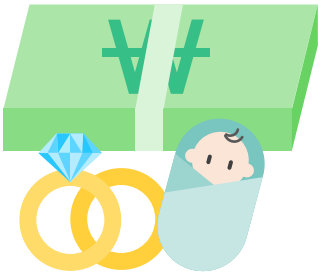


정부의 양육비 지원을 향한
긍정적 태도 향상

영유아 및 부모의
가정내 머무는 시간 증가

좋아진 점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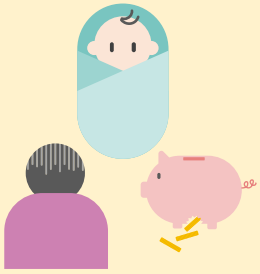
- 소득격차가 결혼관 및 양육관의 차이로 이어짐
- 사회 통합의 저해요소로 작용 가능성 우려
- 국가/사회가 양육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화로운 시민사회를 이룰 필요 있음

어려워진 점

양육과 가사 분담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크게 편중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빠른 속도로 증가

결혼관에 대한 큰 성별차
(여성이 더욱 부정적)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신체적 부담 증가

I

서 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1~4차년도 KICCE 여론조사

03 연구내용

04 연구 방법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에 들어서 집약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한국의 인구변화는 오랜 기간 관찰되어온 서구의 인구변화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사뭇 다르다(Doo-Sub, 2018).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급격한 발달과 함께 사망률이 낮아지며 출생률 역시 함께 낮아지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Hill & Irving, 2020). 그러므로 해외의 어떤 정책 사례도 참고는 될지언정 우리의 미래를 예견하고 그 발자국을 따를 전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정책, 그 중에서도 영유아 및 그들의 부모와 관련된 육아 및 보육 관련 정책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런 변화 속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영유아와 영유아 부모, 그리고 예비 부모뿐 아니라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의견이 집약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영유아 관련 정책이다. “민주적 사회라면 정책 수립의 과정엔 설령 간접적이거나 수동적인 형태일지라도 대중의 의견이 주요한 동력이 되어야 한다”(Kraft & Furlong, 2021: 59). 그러므로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은 아무리 더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육아정책의 수립을 돕기 위해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정책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는 영유아 부모의 실태와 인식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는 2017년부터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연구를 기획 및 수행했으며 어느덧 마지막 해인 5년 차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대공황의 시기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인한 빈곤을 겪으며 개인적인 고난으로 여겨지던 것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결국 뉴딜이라는 정책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이런 사회 정책들은 개인과 가정의 안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Jimenez et al., 2015).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은 바로 COVID-19이다. 이와 같은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우며, 사회 변화에 의해 체계적으로 소외되는 집단이 생겨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처럼 2020년부터 COVID-19로 삶 전반이 뒤바뀐 급변의 정국 속에서 올 한해 직간접 정책 수요자의 여론이 잘 수렴되고, 이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 해의 정기 여론조사, 그리고 수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지난 5년간의 연구를 정리하며 변화하는 여론을 육아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1~4차년도 KICCE 여론조사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는 2017년부터 모두 온라인 조사로 실시해 왔다. 정기 여론조사의 대상은 전국 15세 이상 75세 미만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항은 고정문항과 변동문항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연령, 소득 등 개인 특성에 따른 의식 및 태도의 추세변화를 파악하였다.

먼저 2017년도에 이루어진 1차년도에는 육아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조사 문항을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젊은 층은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며, 동시에 부모됨에 있어 경제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자녀양육 및 가사에 있어 공평한 분담을 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사 대상자 가정에서는 부부간 불평등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훈·이재희·이혜민, 2017). 또한 국민들은 정부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서비스 질 향상, 육아휴직제도나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으며, 0~5세 전계층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적 배분 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동훈 외, 2017).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에 따라 단기간에 쉽게 변하지 않는 가치관은 제외하고 육아 관련 어려움과 고충, 그리고 최근 정책 관련 의견

을 묻는 문항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 출산계획이 대부분 없었고, 주된 이유는 연령과 양육비 부담으로 나타났고, 자녀 돌봄 지원정책의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편적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다소 낮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 및 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지원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되어야 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강화를 제안하였다(최은영·최효미·이혜민, 2018).

3차년도(2019년)는 이전 1차년도의 조사를 이어 받아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 및 여론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이를 통해 육아 및 육아정책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과 여론을 조사하였다. 정책적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각 정책에 대한 수요자인 국민의 인식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김동훈·김문정, 2019).

4차년도(2020년)는 여론의 변화된 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1~3차년도의 주요 설문을 계승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COVID-19 발발에 따른 문항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특히 수시조사는 미국과 협력하여 감염병 상황에서의 가정 내 교육 환경을 묻는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영유아의 가정 내 교육 환경을 조사하고 감염병 상황의 진행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고, 한·미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5차년도 연구 마무리를 위하여 지난 3년간 각기 다른 코딩 책략으로 코딩된 자료를 하나로 통합하고 4차년도 결과와 결합하여 간략히 추세를 파악하였다(박원순·김은영·박은영, 2020).

3.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펼친 것을 기반으로 육아정책 전반의 성과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평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전문가와 정책수요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아온 우리 사회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정책,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의 통합,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이에 따른 문제, 돌봄 시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개

선 등과 육아에 대한 젠더 감수성 개선, 정책의 아동 중심성, 저출산 대응 수단이 아닌 육아정책 자체, 육아정책에 대한 사회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돕는 육아정책을 다양한 수요자들을 유목화 하여 성별, 결혼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직업, 소득, 주거 형태,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조사 결과를 총괄하여 육아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의 추이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여론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됨, 결혼 및 자녀 양육관, 육아 행복감, 육아정책의 인식 방향에 관한 견해가 연령, 결혼 여부 및 자녀의 유무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둘째, 작년부터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감염병 상황(COVID-19)이 육아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COVID-19로 인한 영유아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가정 내 양육 등 육아 형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특히 가정 내 학습 및 보육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넷째, 5차에 걸친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육아정책을 둘러싼 국민 여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대한민국 정부의 육아정책의 성과 분석 및 향후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육아정책 연구소의 연구 방향의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한다.

4. 연구 방법

가.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대국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이루어진다. 먼저 정기조사는 2021년 9월에 실시하였으며, 육아관련 정책 및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육아정책이나 육아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 요구를 수합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2021년 정기조사는 신규 문항의 추가는 자제하고, 지난 4년간 이루어진 정기조사]

의 문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5년간 이루어진 여론의 변화를 최대한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전문 조사기관에 사전에 등록된 온라인 패널을 통해 PC 또는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메일, 휴대폰 문자, 유선 통화 등을 통해 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육아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 만 15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지역규모, 영유아 자녀 유무를 고려하여 3,020명을 표집하였다. 성별로는 남녀 비율을 거의 반반씩 표집 하고, 연령별로도 가능한 고르게 표집 하고자 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광역시/중소도시로 구분하여 유사한 비율로 표집 하였다. 결혼 유무별로는 기혼자를 중심으로 하되, 미혼 및 이혼 등의 사유로 기타 기혼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하였다. 자녀 여부 역시 고려하여 자녀가 없는 응답자도 일부 포함하였다. 자녀의 연령에 있어서도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와 더불어 연령이 더 많은 자녀를 둔 부모도 일정 비율로 조사하였다.

육아 관련 정책 여론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육아문제가 직접적으로는 영유아의 부모, 좀 더 넓게는 조부모, 예비부모 등으로 국한될 수도 있으나,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육아문화 등은 모든 국민이 함께 형성하고 그 영향을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Ⅰ-4-1〉는 5개년에 걸친 설문조사 문항 구성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며, 2021년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의 문항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Ⅰ-4-1〉 1~4차년도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 내용과 비교한 5차년도 문항의 구성

영역	문항내용	상세내용	1차 (2017)	2차 (2018)	3차 (2019)	4차 (2020)	5차 (2021)
기초 자료	성별	응답자 성별	○	○	○	○	○
	거주지	지역 규모별 구분	○	○	○	○	○
	연령	응답자 출생년도	○	○	○	○	○
	혼인 여부	혼인 여부	○	○	○	○	○
	자녀 일반사항	자녀 여부	○	○	○	○	○
		자녀 수 및 연령	○	○	○	○	○
		영·유아 자녀일 경우, 재원하는 종일제 기관 종류	○	○	○	○	○

영역	문항내용	상세내용	1차 (2017)	2차 (2018)	3차 (2019)	4차 (2020)	5차 (2021)
부모됨	부모됨 인식 및 역할	부모됨에 대한 의견	○	-	○	○	○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일반인식	○	-	○	○	○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시기	○	-	○	○	○
		자녀 1인당 양육비용 부담 시기	-	-	●	○	○
		부모 취업과 자녀양육	○	-	○	○	○
	부모 역할의 실제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정도 및 적절수준 의견	○	-	○	○	○
		가사 및 양육 실제 분담 정도	○	-	○	○	○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된 담당	-	-	●	○	○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	-	●	○	○
		자녀양육시기별 부모의 바람직한 경제활동 상태	○	-	○	○	○
		좋은 부모 인식 여부	○	-	○	○	○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녀를 낳는 시기	○	-	-	-	○
		좋은 부모 가능성 전망	○	-	○	○	○
		좋은 부모 필요요건	○	-	○	○	○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	-	-	●	○	○
		일·가정 양립 어려움	-	-	●	○	○
		영유아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	-	-	●	○	○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과 인식	-	-	●	○	○
	육아 현황	양육 효능감	-	●	-	-	○
		양육 스트레스	-	●	-	-	○
		사회적 관계망	-	●	-	-	○
		육아 인프라	-	●	-	-	○
결혼 및 자녀 양육관	결혼 가치관	결혼 필요성	○	-	○	○	○
	결혼과 출산	결혼과 출산의 관계	○	-	○	○	○
	적정 자녀 수 및 성 선호도	일반적인 이상 적정 자녀 수	○	-	○	○	○
		자녀 성 선호도	○	-	○	○	○
	자녀에 대한 필요성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의견	○	-	○	○	○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	○	-	○	○	○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	-	○	○	○
	양육 태도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	○	○	○
	자녀 양육 어려움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	○	-	○	○	○
	자녀 교육관	자녀교육의 성공에 대한 관점	○	-	○	○	○
		자녀양육 선호도	○	-	○	○	○
		자녀의 적정 교육수준	-	-	●	○	○

영역	문항내용	상세내용	1차 (2017)	2차 (2018)	3차 (2019)	4차 (2020)	5차 (2021)
저출산	개인 출산 관련	추가 출산 계획 및 미계획 시 이유	-	●	-	-	○
	저출산 정책	저출산 관련 국가 심각성 인지 여부	-	●	-	-	○
육아 행복감	육아 행복감 및 가치	자녀양육 즐거움	○	-	○	○	○
		양육 및 육아의 가치 및 자신감	○	-	○	○	○
	양육의 경제적 가치	영유아 육아의 경제적 가치 환산 금액(월 평균)	○	-	○	○	○
	양육의 책임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	-	○	○	○
		자녀양육이 어려운 시기	-	-	●	○	○
	사회적 관심	노키즈존 인식	-	-	●	○	○
육아 정책 인식 및 방향	육아 정책 우선 순위	정부의 육아정책 설계 우선순위	○	○	○	○	○
		정부의 육아 재정지원 설계 우선순위	○	○	○	○	○
	유아 교육·보육 정책 관련 인식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인식	-	-	-	●	○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대한 인식	-	-	-	●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	-	-	-	●	○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의견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	○	-	-	○
		유치원·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	○	○	-	-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	○	-	-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	○	-	-	○
	비용 지원 정책	보육료·유아학비 등 육아비용 지원정책 인지 여부	○	○	-	-	-
	아동학대 관련 의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방안	○	-	○	○	○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의견	영유아 사교육 근본 원인	○	-	○	○	○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	-	○	○	○
	세금 추가 부담 의사	육아정책 관련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	○	○	○	○	○
		추가세금 부담에 대한 반대 이유	○	○	○	○	○
	육아 지원 정책 희망	현재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	○	-	-	○
		정부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의견	-	●	○	○	○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바라는 정책	-	●	○	○	○
		직장에서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의견	-	●	-	-	○
	일·가정 양립 의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	○	-	-	-
	무상 보육·교육 정책 만족도	무상보육·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	○	○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반대 시 이유	○	○	○	○	○
		양육수당지원 반대 시 이유	○	○	○	○	○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예상 정책효과	○	○	-	-	-

영역	문항내용	상세내용	1차 (2017)	2차 (2018)	3차 (2019)	4차 (2020)	5차 (2021)
	추가 출산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추가 출산 영향 여부	○	-	○	○	○
	신규 정책 관련	다자녀 가구 관련 정책 의견	-	●	-	-	-
		영유아 대상 영어교육 금지 관련 의견	-	●	-	-	-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의견	아동수당 도입과 출산율과의 관계	○	○	-	-	-
		아동수당 도입 적정 금액 및 적정 연령	○	-	-	-	-
		아동수당 적정 대상 의견	-	○	-	-	-
	보육료 지불 방식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불하는 형태에 대한 인식	○	○	-	-	-
	안전한 사회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한 안전한 사회 인식 정도	○	○	○	○	○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 불안 요인	○	○	○	○	○
	사회 변화에 따른 대응	감염병 유행 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 정책	-	-	-	●	○
	전반적 만족도	육아지원정책의 전반적 만족도	○	-	○	○	○

주 : ●은 신규 추가된 변인임.
자료 : 1)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Ⅰ). 육아정책연구소. pp. 187-189.
2) 최은영·최효미·이혜민(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육아정책연구소. pp. 16-17.
3) 김동훈·김문정(2019).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Ⅲ). 육아정책연구소. pp. 24-26.
4) 박원순·김은영·박은영(202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Ⅳ). 육아정책연구소. pp. 14-17.

나. 영유아 부모 대상 수시 여론조사

수시조사는 연구 대상에 있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조사와 달리 영유아 부모를 특정해 조사하였다. 수시조사는 1~3차년도 조사까지는 본래 사전에 계획하지 못한 정책 현안에 대하여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왔으나, 2020년 제4차 조사에서는 COVID-19 감염병 관련 가정 내 학습 환경 및 육아 실태, 특히 가정에서의 육아와 기관에서 가정 내 육아를 어떻게 원격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간을 두고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COVID-19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함으로써 미국의 협력 기관인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NIEER)와 공통문항을 설문하고 양국의 가정 내 육아 실태를 비교하였다. 사상 유례 없는 COVID-19 감염병 상황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며, 특히 첫차 수시조사는 올해 백신 접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가정 내 학습 환경, 육아 실태, 원격 교육 지원 현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되지 않았기에 2020년에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를 추적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6월 말에 실시한 수시 여론조사의 내용은 다음의 〈표 Ⅰ-4-2〉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의 수시 여론조사 설문지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Ⅰ-4-2〉 2021년 수시 여론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기초사항	• 성별, 거주지, 출생연도, 자녀 수, 자녀 소속, 출생원과 출생일이 가장 빠른 취학 전 자녀의 출생연도 및 출생월
조사 대상 자녀 최근 생활	• 응답자의 보호자나 양육자 여부 • 자녀에게 책을 읽어 준 횟수 • 최근 1주일 동안 이야기 들려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글자나 숫자 가르치기, 미술 및 공작 활동 횟수 • 최근 1주일 동안 그림책 읽기나 듣기, TV 시청, DVD나 비디오 시청, 동영상 시청, 비디오 게임, 음악 연주나 감상, 미술 및 공작 활동, 장난감 등을 사용한 놀이, 바깥놀이 횟수 • 어제 하루 동안 인쇄된 책 읽기, 전자책 읽기, 장난감 놀이, 그리기나 만들기, 바깥놀이, 음악 연주나 감상, TV 시청, 동영상 시청, 게임, 교육용 프로그램이나 앱 사용, 화상통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활동, 언급된 활동을 하지 않음 여부 • 어제 하루를 기준으로 함께 한 사람 • 어제 하루 동안 인쇄된 책 읽기, 전자책 읽기, 장난감 놀이, 그리기나 만들기, 바깥놀이, 음악 연주나 감상, TV 시청, 동영상 시청, 게임, 교육용 프로그램이나 앱 사용, 화상통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활동 시간(분) • 최근 1주일 동안 평균 취침 시각, 기상 시각, 하루 평균 수면 시간 • 조사대상 자녀의 소속 기관 • COVID-19 이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 경험 여부: 필요 시 교사와 연락할 방법 안내, 문서 안내, 활동지 제공,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이나 활동 제공, 교사와 소통, 녹화된 동영상 강좌 제공, 음식물 제공, 기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원격 강의나 활동 제공 여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출석을 대체하기 위한 숙제 여부, 숙제 빈도, 숙제 소요 시간, 숙제 제출 방법

자료 : 박원순 외(202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Ⅳ). 육아정책연구소. p. 19 〈표 Ⅰ-4-5〉.

다. 세대별 포커스 집단 면담(FGI)

정기여론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대별로 4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세대별로 남녀 각 2명씩 집단별로 총 4명이 참여하였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온라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참여자가 주로 직장인이 많아 퇴근 이후 시간인 오후 8시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모든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이후 녹음하였다. 녹음한 자료는 면담 시 연구자의 메모와 대조하여 무료 온라인 음성인식 프로그램(클로바노트)으로 자동 전사한 자료를 1차로 검토하고,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음성 녹음을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사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사용한 질문 목록은 〈부록 3〉에 수록하였다.

〈표 Ⅰ-4-3〉 포커스 집단 면담 참여자 배경 정보

세대	면담일시	나이	성별	혼인여부	자녀
20대	2021. 11. 20. 20:00-22:00	21세	여	미혼	
		29세	여	미혼	
		23세	남	미혼	
		26세	남	미혼	
30대	2021. 11. 21. 20:00-22:00	34세	여	기혼	6세(여), 2세(남)
		37세	여	기혼	5세(여), 3세(남)
		35세	남	미혼	
		38세	남	기혼	6세(여)
40대	2021. 11. 17. 20:00-22:00	40세	여	기혼	5세(남)
		49세	여	기혼	23세(남), 15세(남)
		40세	남	기혼	7세, 4세
		47세	남	기혼	17세, 13세
50대 이상	2021. 11. 27. 20:00-22:00	52세	여	기혼	29세(남)
		61세	여	기혼	33세(남)
		51세	남	기혼	18세(여), 10세(여)
		50세	남	기혼	21세(여), 20세(여)

Ⅱ

2021 정기 여론조사 결과의 상세 분석

01 부모됨에 대한 여론

02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03 육아행복감에 대한 여론

0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05 심층면담 결과

06 소결

Ⅱ. 2021 정기 여론조사 결과의 상세 분석

2021년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에는 총 3,020명이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 Ⅱ-1〉과 같다. 남성은 1,444명(47.8%), 여성은 1,576명(52.2%)이고, 30대가 5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40대 40.9%, 50대 이상 4.4%, 20대 이하 2.0% 순으로 응답하였다.

거주 지역 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전체 응답자의 25.8%이고, 광역시 및 특별시 거주자는 25.8%,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40.4%, 군(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8.0%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 12.5%, 전문대 졸업 18.1%, 대학교 졸 58.2%, 대학원 졸업 이상 11.3%로 대학교 졸업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결혼 유무를 살펴보면, 미혼이 1.4%, 기혼(배우자 있음)이 97.9%, 기혼(배우자 없음)이 0.7%이다. 맞벌이인 경우는 61.7%, 외벌이의 경우는 35.6%이다. 월 가구 소득은 399만원 이하 27.6%, 400~599만원 34.7%, 600만원 37.7%로 분석되었다.

〈표 Ⅱ-1〉 2021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 대상자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사례수	구분		비율	사례수
성별	남자	47.8	(1,444)	맞벌이 유무	맞벌이	61.7	(1,863)
	여자	52.2	(1,576)		외벌이	35.6	(1,075)
연령별	20대 이하	2.0	(59)		부부 둘다 비경제활동	0.4	(12)
	30대	52.7	(1,592)		미혼/배우자없음 경제활동	1.9	(56)
	40대	40.9	(1,236)		미혼/배우자없음 비경제활동	0.3	(8)
	50대 이상	4.4	(133)	학력별	고졸 이하	12.5	(378)
거주지별	서울특별시	25.8	(779)		전문대 졸	18.1	(546)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25.8	(779)		대졸	58.2	(1,757)
	중소도시	40.4	(1,221)		대학원 졸 이상	11.3	(339)
	군(읍면지역)	8.0	(241)	종사상 지위	고용주/자영업	7.5	(226)
결혼 유무	미혼	1.4	(42)		상용근로자	64.2	(1,940)
	배우자 있음	97.9	(2,956)		임시/일용/무급	7.1	(215)
	배우자 없음	0.7	(22)		무직/모름	21.2	(639)

구분		비율	사례수	구분		비율	사례수
자녀 유무	1명	38.3	(1,158)	직업별	관리자	7.0	(210)
	2명 이상	39.1	(1,18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3	(370)
	자녀 없음	22.5	(680)		사무 종사자	40.8	(1,232)
영유아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44.3	(1,337)		서비스/판매 종사자	11.2	(339)
	비영유아 부모	33.2	(1,002)		농림어업/기능/장치 종사자	4.5	(137)
	자녀 없음	22.5	(681)		단순 노무 종사자	3.1	(95)
월평균 가구 소득별	399만원 이하	27.6	(834)		군인	0.9	(28)
	400~599만원	34.7	(1,047)		무직 기타	20.2	(609)
	600만원 이상	37.7	(1,139)				
전 체		100.0	(3,020)	전 체		100.0	(3,020)

1. 부모됨에 대한 여론

가. 부모됨의 인식 및 가치

부모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에게 부모됨과 관련된 7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7개의 문항 중 동의 수준이 높은 문항은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이며, 4점 기준에 각 3.39점이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 미혼보다 기혼이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고, 20대 이하는 다른 연령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문항 역시 남성보다 여성, 미혼보다 기혼에서 동의 정도가 높았고, 20~30대 젊은 연령층의 동의 정도가 40~5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4점 척도에 3.23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50대 이상의 노년층, 기혼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3.15점(4점 만점)으로, 미혼보다 기혼,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고, 현재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의 경우는 비영유아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 비해 동의 정도가 낮았다.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에 대한 동의 정도는 2.61점(4점 만점)으로 7개 문항 중 가장 낮다. 응답자 특성별로 동의 수준이 높은 경우는 여성, 자녀가 있는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이다.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에 대한 응답의 동의 정도는 2.96점(4점 만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희생을 감수하며 최선을 다해 자녀를 돌보는 것이 도리라는 데에 동의하는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에 대한 문항은 3.19점(4점 만점)으로, 특히 여성과 20~30대,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높은 동의 정도가 나타났다.

〈표 Ⅱ-1-1〉 부모됨 관련 동의 정도(4점 만점)

단위: 점(명)

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수)
전체	3.23	3.39	3.39	3.15	2.61	2.96	3.19	(3,020)
성별								
남자	3.26	3.27	3.30	3.15	2.56	3.09	3.13	(1,444)
여자	3.20	3.49	3.48	3.15	2.66	2.84	3.24	(1,576)
t	2.50*	-9.98***	-7.84***	0.02	-3.52***	9.25***	-4.28***	
연령								
20대 이하	3.20	3.24	3.37	2.93	2.63	2.75	3.29	(59)
30대	3.20	3.42	3.44	3.10	2.59	2.90	3.22	(1,592)

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수)
40대	3.26	3.35	3.34	3.20	2.63	3.02	3.14	(1,236)
50대 이상	3.35	3.37	3.31	3.41	2.63	3.19	3.15	(133)
F	3.20*	4.00**	7.85***	13.36***	0.55	12.07***	3.29*	
혼인 여부								
미혼	2.83	3.05	3.19	2.74	2.52	2.81	2.95	(42)
배우자 있음	3.24	3.39	3.40	3.15	2.61	2.96	3.19	(2,956)
배우자 없음	3.32	3.36	3.41	3.32	2.73	2.55	3.27	(22)
F	7.42**	6.42**	2.34	8.49***	0.54	4.23*	2.24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3.33	3.39	3.39	3.04	2.65	3.01	3.24	(1,337)
비영유아 부모	3.32	3.36	3.35	3.30	2.62	3.07	3.18	(1,002)
자녀 없음	2.90	3.42	3.48	3.15	2.52	2.68	3.08	(681)
F	108.56***	2.35	9.50***	40.41***	6.80**	62.44***	10.77***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21	3.39	3.34	3.18	2.54	2.95	3.19	(834)
400~599만원	3.24	3.38	3.40	3.16	2.62	2.97	3.17	(1,047)
600만원 이상	3.24	3.40	3.42	3.12	2.65	2.96	3.19	(1,139)
F	.64	.30	4.40*	1.81	6.00**	.12	.40	

주 : 1)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두 개의 문장 중 보다 동의하는 한쪽에 응답하도록 한 결과, 먼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0.4%가 '부모는 자녀의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편이었다.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녀를 키우고 지원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에 77.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과 자녀 유무,

혼인 여부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는 나중에 부모에게 보답해야 한다’에 보다 동의하는 남성의 응답 비율이 26.1%로 여성보다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32.0%로 자녀가 있는 응답자보다 높았다. 또한 미혼의 응답자 중에는 47.6%가 ‘자녀는 나중에 부모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여 ‘자녀는 부담 가질 필요 없다’는 의견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기혼자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응답 경향과 비교했을 때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표 Ⅱ-1-2〉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수
	부모는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	
전체	70.4	29.6	23.0	77.0	(3,020)
성별					
남자	68.7	31.3	26.1	73.9	(1,444)
여자	72.0	28.0	20.2	79.8	(1,576)
$x^2(df)$	3.988(1)*		14.958(1)***		
연령					
20대 이하	72.9	27.1	23.7	76.3	(59)
30대	68.7	31.3	23.0	77.0	(1,592)
40대	72.1	27.9	22.1	77.9	(1,236)
50대 이상	75.2	24.8	31.6	68.4	(133)
$x^2(df)$	5.653(3)		6.123(3)		
혼인 여부					
미혼	61.9	38.1	47.6	52.4	(42)
배우자 있음	70.7	29.3	22.7	77.3	(2,956)
배우자 없음	54.5	45.5	22.7	77.3	(22)
$x^2(df)$	4.213(2)		14.555(2)**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69.1	30.9	19.3	80.7	(1,337)
비영유아 부모	70.5	29.5	21.9	78.1	(1,002)
자녀 없음	73.0	27.0	32.0	68.0	(681)
$x^2(df)$	3.247(2)		42.303(2)***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69.9	30.1	23.7	76.3	(834)
400~599만원	72.2	27.8	23.4	76.6	(1,047)
600만원 이상	69.2	30.8	22.1	77.9	(1,139)
$x^2(df)$	2.547(2)		.845(2)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대학 졸업까지’가 42.8%로 가장 높고, ‘취업까지’ 21.7%, ‘고등학교 졸업까지’ 19.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더 오랜 기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고, 50대 이상은 취업 이후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인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원한다는 응답은 자녀가 없는 경우, 월평균 가구 소득이 399만원 이하인 응답자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1-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계(수)
전체	19.9	42.8	21.7	8.3	4.6	2.6	100.0 (3,020)
성별							
남자	17.9	40.4	22.1	10.4	5.5	3.6	100.0 (1,444)
여자	21.8	45.1	21.3	6.4	3.8	1.7	100.0 (1,576)
$x^2(df)$			39.021(5)***				
연령							
20대 이하	18.6	39.0	22.0	10.2	6.8	3.4	100.0 (59)
30대	22.4	39.8	20.7	8.5	5.5	3.1	100.0 (1,592)
40대	18.2	47.6	21.4	7.5	3.3	1.9	100.0 (1,236)
50대 이상	6.8	37.6	34.6	12.0	6.0	3.0	100.0 (133)
$x^2(df)$			55.669(15)***				
혼인 여부							
미혼	19.0	31.0	23.8	9.5	14.3	2.4	100.0 (42)
배우자 있음	19.9	43.0	21.6	8.3	4.5	2.6	100.0 (2,956)
배우자 없음	22.7	45.5	22.7	4.5	4.5	0.0	100.0 (22)
$x^2(df)$			11.240(10)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1.2	39.0	22.0	8.7	5.4	3.7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13.9	48.3	24.1	8.7	3.5	1.6	100.0 (1,002)
자녀 없음	26.3	42.4	17.5	7.0	4.8	1.9	100.0 (681)
$x^2(df)$			71.233(10)***				

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계(수)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4.6	41.6	18.2	7.7	5.4	2.5	100.0 (834)
400~599만원	19.7	42.1	23.9	7.6	3.4	3.2	100.0 (1,047)
600만원 이상	16.8	44.4	22.1	9.4	5.2	2.1	100.0 (1,139)
$x^2(df)$			33.255(10)***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육비용(교육 포함)이 드는 시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65.7%가 '고등학생 시기'라고 응답하였고, '초등 고학년' 10.1%, '중학생' 9.6%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에 '영유아 시기'에 드는 양육비용이 많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고,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고등학생 때 드는 양육비용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Ⅱ-1-4〉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영아 (0~2세)	유아 (3~5세)	초등 저 (1~3학년)	초등 고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계 (수)
전체	2.5	6.1	6.0	10.1	9.6	65.7	100.0 (3,020)
성별							
남자	2.8	7.0	6.7	9.1	7.9	66.5	100.0 (1,444)
여자	2.3	5.3	5.3	11.0	11.2	64.9	100.0 (1,576)
$x^2(df)$			18.732(5)**				
연령							
20대 이하	6.8	16.9	5.1	10.2	6.8	54.2	100.0 (59)
30대	3.5	6.8	7.3	11.4	10.3	60.7	100.0 (1,592)
40대	1.2	4.4	4.4	8.9	9.2	71.8	100.0 (1,236)
50대 이상	.8	8.3	4.5	6.8	6.8	72.9	100.0 (133)
$x^2(df)$			74.497(15)***				
혼인 여부							
미혼	4.8	14.3	9.5	4.8	11.9	54.8	100.0 (42)
배우자 있음	2.4	6.0	5.9	10.1	9.5	66.0	100.0 (2,956)
배우자 없음	9.1	4.5	13.6	18.2	18.2	36.4	100.0 (22)
$x^2(df)$			20.813(10)*				

구분	영아 (0~2세)	유아 (3~5세)	초등 저 (1~3학년)	초등 고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계 (수)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8	6.4	7.6	11.3	10.0	61.9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1.2	3.5	4.0	8.3	9.4	73.7	100.0 (1,002)
자녀 없음	3.8	9.3	5.7	10.6	9.3	61.4	100.0 (681)
$x^2(df)$			67.132(10)***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3	7.7	6.1	12.9	10.2	58.8	100.0 (834)
400~599만원	2.2	5.3	5.7	9.7	10.8	66.2	100.0 (1,047)
600만원 이상	1.5	5.6	6.1	8.4	8.2	70.2	100.0 (1,139)
$x^2(df)$			44.817(10)***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가정 내 부모의 성역할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생각과 일치 정도를 4점 척도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로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에 동의 정도는 2.52점(4점 만점)이다. 이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이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에 동의 정도는 2.78점(4점 만점)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2.56점(4점 만점)이고, 역시 응답자 특성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 높은 연령에서,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전통적인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5〉 가정 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동의정도(4점 만점)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수)
전체	2.52	2.78	2.56	(3,020)
성별				
남자	2.60	2.77	2.72	(1,444)
여자	2.44	2.78	2.42	(1,576)
t	5.95***	-.436	10.18***	
연령				
20대 이하	2.42	2.73	2.41	(59)
30대	2.44	2.75	2.48	(1,592)
40대	2.59	2.80	2.65	(1,236)
50대 이상	2.75	2.89	2.74	(133)
F	13.544***	2.330*	13.435***	
혼인 여부				
미혼	2.60	2.48	2.57	(42)
배우자 있음	2.51	2.78	2.56	(2,956)
배우자 없음	2.77	2.95	2.64	(22)
F	1.443	4.318*	.095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53	2.78	2.55	(1,337)
비영유아 부모	2.65	2.83	2.72	(1,002)
자녀 없음	2.30	2.70	2.36	(681)
F	42.585***	6.382**	42.879***	
월 가구 소득				
399만원이하	2.60	2.82	2.58	(834)
400~599만원	2.52	2.79	2.60	(1,047)
600만원이상	2.46	2.74	2.52	(1,139)
F	8.343***	2.790	2.629	

주 : 1)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나. 부모역할의 실제

〈표 Ⅱ-1-6〉은 부모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어떤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자녀 양육 분담'과 '가사 분담'에서 같은 수치의 결과가 나왔는데, 아버지 4.28 : 어머니 5.72(10 기준)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과 가사를 어머니가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반면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가사를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에 따른 응답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은 아버지로서 양육보다 가사에 비중을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은 아버지가 가사보다 양육에 비중을 두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아버지의 양육 분담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1-6〉 이상적 자녀양육과 가사의 분담

단위: :, (명)

구분	자녀양육 분담		가사 분담		(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전체	4.28	5.72	4.28	5.72	(3,020)
성별					
남자	4.23	5.77	4.33	5.67	(1,444)
여자	4.32	5.68	4.23	5.77	(1,576)
t	−2.50*	2.49*	2.55*	−2.55*	
연령					
20대 이하	4.41	5.59	4.24	5.76	(59)
30대	4.37	5.63	4.42	5.58	(1,592)
40대	4.17	5.83	4.10	5.90	(1,236)
50대 이상	4.08	5.92	4.16	5.84	(133)
F	11.322***	11.322***	20.432***	20.432***	
혼인 여부					
미혼	4.60	5.40	4.29	5.71	(42)
배우자 있음	4.27	5.73	4.27	5.73	(2,956)
배우자 없음	4.36	5.64	4.32	5.68	(22)
F	2.181	2.181	.018	.018	

구분	자녀양육 분담		가사 분담		(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4.21	5.79	4.24	5.76	(1,337)
비영유아 부모	4.16	5.84	4.08	5.92	(1,002)
자녀 없음	4.58	5.42	4.63	5.37	(681)
F	40.511***	40.511***	51.441***	51.441***	
월 가구 소득					
399만원이하	4.24	5.76	4.15	5.85	(834)
400~599만원	4.25	5.75	4.25	5.75	(1,047)
600만원이상	4.33	5.67	4.39	5.61	(1,139)
F	2.786	2.786	10.999***	10.999***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한편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실제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10을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은 3.40과 6.60, 가사 분담은 3.55와 6.45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부모의 양육 및 가사 분담 정도와 비교하면 실제로는 어머니가 양육과 가사에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양육 및 가사 참여도는 여성이 인식하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 및 가사 참여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1-7〉 (영유아 부모) 실제 자녀양육과 가사의 분담

단위: :, (명)

구분	자녀양육 분담		가사 분담		(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전체	3.40	6.60	3.55	6.45	(1,330)
성별					
남자	3.76	6.24	4.13	5.87	(667)
여자	3.03	6.97	2.97	7.03	(663)
t	9.76***	-9.76***	13.16***	-13.16***	
연령					
20대 이하	3.48	6.52	3.71	6.29	(31)

구분	자녀양육 분담		가사 분담		(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30대	3.42	6.58	3.60	6.40	(925)
40대	3.30	6.70	3.41	6.59	(371)
50대 이상	4.67	5.33	5.00	5.00	(3)
F	1.507	1.507	1.948	1.948	
월 가구 소득					
399만원이하	3.17	6.83	3.28	6.72	(427)
400~599만원	3.40	6.60	3.49	6.51	(435)
600만원이상	3.60	6.40	3.85	6.15	(468)
F	10.666***	10.666***	13.420***	13.420***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자녀 양육을 아버지, 어머니, 기타 인물 중 누가 주로 담당하는지 구체적인 활동별로 질문한 결과, 모든 활동에서 어머니가 담당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중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와 '자녀의 기관 등·하원 돕기'는 각각 39.5%, 21.9%로 아버지가 담당한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활동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자녀 물품을 알아보고 구매하기'는 어머니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82.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Ⅱ-1-8〉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단위: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수)
집안일(식사준비, 빨래 등)	16.5	77.5	5.9	100.0 (1,330)
자녀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17.7	75.7	6.6	100.0 (1,330)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39.5	52.2	8.3	100.0 (1,330)
자녀의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등·하원 도와주기	21.9	65.6	12.6	100.0 (1,330)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13.2	82.9	3.9	100.0 (1,330)

구체적인 활동별로 살펴보면, 먼저 식사 준비, 빨래 등의 집안일을 주로 하는 사람은 어머니 77.5%, 아버지 16.5%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집안일을 담당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특히 월 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의 경우, 둘 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아버지가 집안일을 담당한다는 응답 비율이 2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1-9〉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집안 일(식사 준비, 빨래 등)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수)
전체	16.5	77.5	5.9	100.0 (1,330)
연령				
20대 이하	22.6	71.0	6.5	100.0 (31)
30대	16.6	77.0	6.4	100.0 (925)
40대	15.9	79.2	4.9	100.0 (371)
50대 이상	0.0	100.0	0.0	100.0 (3)
$x^2(df)$		3.054(6)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2.4	79.6	8.0	100.0 (427)
400~599만원	14.0	80.2	5.7	100.0 (435)
600만원 이상	22.6	73.1	4.3	100.0 (468)
$x^2(df)$		23.629(4)***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2	72.0	6.9	100.0 (799)
외벌이	9.2	86.3	4.4	100.0 (520)
둘다 비경제활동	28.6	57.1	14.3	100.0 (7)
$x^2(df)$		40.522(4)***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영유아 자녀를 밥 먹이고, 옷 입히는 일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응답은 어머니가 75.7%, 아버지 17.7%이었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의 경우 아버지가 담당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외벌이는 어머니가 담당한다는 응답 비율이 81.9%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1-10〉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자녀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단위: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수)
전체	17.7	75.7	6.6	100.0 (1,330)
연령				
20대 이하	6.5	87.1	6.5	100.0 (31)
30대	18.2	74.9	6.9	100.0 (925)
40대	17.5	76.5	5.9	100.0 (371)
50대 이상	0.0	100.0	0.0	100.0 (3)
$x^2(df)$		4.337(6)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3.3	78.0	8.7	100.0 (427)
400~599만원	17.9	75.9	6.2	100.0 (435)
600만원 이상	21.4	73.5	5.1	100.0 (468)
$x^2(df)$		13.13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9	71.7	6.4	100.0 (799)
외벌이	11.3	81.9	6.7	100.0 (520)
둘다 비경제활동	0.0	71.4	28.6	100.0 (7)
$x^2(df)$		30.644(4)***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영유아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는 어머니가 52.2%, 아버지가 39.5%이었다. 월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아버지가 담당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버지 44.1%, 어머니 48.7%로 부모의 참여 정도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Ⅱ-1-11〉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단위: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수)
전체	39.5	52.2	8.3	100.0 (1,330)
연령				
20대 이하	45.2	48.4	6.5	100.0 (31)
30대	39.9	50.9	9.2	100.0 (925)
40대	37.7	55.8	6.5	100.0 (371)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수)
50대 이상	66.7	33.3	0.0	100.0 (3)
$x^2(df)$		5.379(6)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4.7	53.6	11.7	100.0 (427)
400~599만원	38.6	54.5	6.9	100.0 (435)
600만원 이상	44.7	48.7	6.6	100.0 (468)
$x^2(df)$		16.009(4)**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1	48.7	7.3	100.0 (799)
외벌이	32.3	57.5	10.2	100.0 (520)
둘다 비경제활동	28.6	71.4	0.0	100.0 (7)
$x^2(df)$		20.254(4)***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영유아 자녀의 기관 등·하원을 돕는 일은 어머니 65.6%, 아버지 21.9%이고, 기타 인물이 12.6%로 다른 활동에 비해 기타 인물의 도움을 받는 비중이 크다. 특히 20대 이하 연령에서 기타 인물이 담당한다는 응답이 22.6%로 높게 나타났고, 월 평균 가구 소득이 399만원 이하, 외벌이의 경우 어머니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1-12〉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자녀의 기관 등·하원 도와주기

단위: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수)
전체	21.9	65.6	12.6	100.0 (1,330)
연령				
20대 이하	32.3	45.2	22.6	100.0 (31)
30대	20.5	65.1	14.4	100.0 (925)
40대	24.0	68.7	7.3	100.0 (371)
50대 이상	66.7	33.3	0.0	100.0 (3)
$x^2(df)$		22.370(6)**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6.9	70.5	12.6	100.0 (427)
400~599만원	22.3	62.8	14.9	100.0 (435)
600만원 이상	26.1	63.7	10.3	100.0 (468)
$x^2(df)$		15.007(4)**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29.8	56.8	13.4	100.0 (799)
외벌이	9.6	79.0	11.3	100.0 (520)
둘다 비경제활동	28.6	57.1	14.3	100.0 (7)
$x^2(df)$		83.614(4)***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영유아 자녀의 물품을 알아보고 구매하는 일은 어머니가 82.9%, 아버지가 13.2%로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인물이 담당한다는 응답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1-13〉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단위: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수)
전체	13.2	82.9	3.9	100.0 (1,330)
연령				
20대 이하	16.1	77.4	6.5	100.0 (31)
30대	11.5	84.5	4.0	100.0 (925)
40대	16.7	79.8	3.5	100.0 (371)
50대 이상	100.0	0.0	0.0	100.0 (3)
$x^2(df)$		26.996(6)***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5	84.5	4.9	100.0 (427)
400~599만원	13.6	82.5	3.9	100.0 (435)
600만원 이상	15.4	81.6	3.0	100.0 (468)
$x^2(df)$		6.373(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5.4	81.5	3.1	100.0 (799)
외벌이	10.0	85.0	5.0	100.0 (520)
둘다 비경제활동	0.0	85.7	14.3	100.0 (7)
$x^2(df)$		13.092(4)*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조부모가 정기적으로 영유아 손자녀를 돌봐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높고, ‘조부모를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가 26.3%, ‘손자녀를 위해 필요하다’ 16.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조부모를 위해 돌봄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1-14〉 조부모의 정기적 손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필요하다			조부모를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잘 모르겠다	계 (수)
	손자녀를 위해	자녀를 위해	조부모를 위해			
전체	16.8	32.9	7.7	26.3	16.4	100.0 (3,020)
성별						
남자	17.9	34.0	9.7	23.1	15.3	100.0 (1,444)
여자	15.7	31.9	5.8	29.3	17.4	100.0 (1,576)
$x^2(df)$			30.937(4)***			
연령						
20대 이하	15.3	30.5	1.7	18.6	33.9	100.0 (59)
30대	16.5	34.4	8.0	24.0	17.1	100.0 (1,592)
40대	17.2	30.7	7.7	29.0	15.5	100.0 (1,236)
50대 이상	16.5	35.3	6.8	32.3	9.0	100.0 (133)
$x^2(df)$			32.822(12)**			
혼인 여부						
미혼	14.3	33.3	14.3	19.0	19.0	100.0 (42)
배우자 있음	16.8	32.8	7.6	26.4	16.4	100.0 (2,956)
배우자 없음	9.1	40.9	9.1	31.8	9.1	100.0 (22)
$x^2(df)$			5.854(8)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9.7	33.3	9.1	23.5	14.4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16.1	32.3	6.5	29.4	15.7	100.0 (1,002)
자녀 없음	12.0	32.9	6.6	27.2	21.3	100.0 (681)
$x^2(df)$			44.166(8)***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6.2	28.9	8.3	26.1	20.5	100.0 (834)
400~599만원	16.3	31.3	7.9	28.1	16.3	100.0 (1,047)
600만원 이상	17.6	37.2	7.0	24.8	13.4	100.0 (1,139)
$x^2(df)$			30.138(8)***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표 Ⅱ-1-15〉는 자녀의 양육시기별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영아기에는 '부모 한 명이 집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2.4%로 매우 높고, 유아기 역시 56.4%로 절반 이상이었다. 반면 자녀의 초등학생 시기에는 '어머니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9.2%,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 역시 32.1%로 나타나 자녀가 영유아일 때보다 어머니의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고,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6.6%를 차지한다. 즉,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 중 한 명이 양육을 담당하거나 어머니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상태를 바람직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고,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는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Ⅱ-1-15〉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명)

구분	부모 둘 중 한 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 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수)
영아자녀(만0~2세)	82.4	10.1	0.9	6.6	100.0 (3,020)
유아자녀(만3~6세)	56.4	26.2	3.1	14.3	100.0 (3,020)
초등학생 시기	24.6	39.2	4.2	32.1	100.0 (3,020)
중고등학생 시기	10.6	19.2	3.6	66.6	100.0 (3,020)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경향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먼저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 전체 응답은 '부모 중 한 명이 경제활동 대신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82.2%로 높다. 그러나 남성,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 자녀가 없는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1-16〉 영아기 자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명)

구분	부모 둘 중 한 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 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수)
전체	82.4	10.1	0.9	6.6	100.0 (3,020)
성별					
남자	80.7	10.2	1.2	7.9	100.0 (1,444)
여자	84.0	10.1	0.5	5.4	100.0 (1,576)
$x^2(df)$		12.955(3)**			
연령					
20대 이하	81.4	15.3	1.7	1.7	100.0 (59)
30대	80.9	10.7	0.8	7.7	100.0 (1,592)
40대	84.1	9.4	1.0	5.5	100.0 (1,236)
50대 이상	85.0	8.3	0.8	6.0	100.0 (133)
$x^2(df)$		12.231(9)			
혼인 여부					
미혼	64.3	28.6	4.8	2.4	100.0 (42)
배우자 있음	82.8	9.8	0.8	6.6	100.0 (2,956)
배우자 없음	63.6	22.7	4.5	9.1	100.0 (22)
$x^2(df)$		33.054(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82.2	10.8	0.8	6.2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86.9	8.5	0.7	3.9	100.0 (1,002)
자녀 없음	76.2	11.3	1.2	11.3	100.0 (681)
$x^2(df)$		45.282(6)***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87.3	8.6	0.5	3.6	100.0 (834)
400~599만원	84.7	9.4	0.5	5.4	100.0 (1,047)
600만원 이상	76.7	11.9	1.5	9.8	100.0 (1,139)
$x^2(df)$		53.758(6)***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 명은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6.4%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어머니의 시간제 근무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26.2%로 높아졌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 비영유아 부모인 경우,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 중 한 사람은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고,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자, 영유아 부모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시간제 근무'에 대한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1-17〉 유아기 자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명)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수)
전체	56.4	26.2	3.1	14.3	100.0 (3,020)
성별					
남자	59.6	21.2	3.9	15.3	100.0 (1,444)
여자	53.6	30.8	2.3	13.4	100.0 (1,576)
$x^2(df)$		39.937(3)***			
연령					
20대 이하	45.8	35.6	6.8	11.9	100.0 (59)
30대	52.0	28.7	3.1	16.1	100.0 (1,592)
40대	61.4	23.2	2.9	12.5	100.0 (1,236)
50대 이상	67.7	19.5	2.3	10.5	100.0 (133)
$x^2(df)$		38.673(9)***			
혼인 여부					
미혼	59.5	11.9	19.0	9.5	100.0 (42)
배우자 있음	56.4	26.4	2.9	14.3	100.0 (2,956)
배우자 없음	50.0	31.8	0.0	18.2	100.0 (22)
$x^2(df)$		40.559(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50.3	31.1	3.5	15.0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68.5	19.5	2.6	9.5	100.0 (1,002)
자녀 없음	50.7	26.4	2.9	20.0	100.0 (681)
$x^2(df)$		101.956(6)***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62.9	26.9	2.4	7.8	100.0 (834)
400~599만원	56.2	28.2	2.2	13.5	100.0 (1,047)
600만원 이상	51.9	23.9	4.4	19.8	100.0 (1,139)
$x^2(df)$		74.400(6)***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시간제 근무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9.2%로 가장 높고, '부모 모두 경제활동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1% 순이었다.

어머니의 시간제 근무에 대해서는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대 이하, 자녀가 없는 응답자, 월 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전체 응답 경향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50대 이상, 미혼, 비영유아 부모, 소득 399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 한 명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1-18〉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명)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수)
전체	24.6	39.2	4.2	32.1	100.0 (3,020)
성별					
남자	28.9	33.9	5.4	31.9	100.0 (1,444)
여자	20.6	44.1	3.0	32.2	100.0 (1,576)
$x^2(df)$		51.099(3)***			
연령					
20대 이하	11.9	33.9	6.8	47.5	100.0 (59)
30대	22.3	38.3	5.1	34.3	100.0 (1,592)
40대	27.5	40.2	3.2	29.1	100.0 (1,236)
50대 이상	30.1	42.9	1.5	25.6	100.0 (133)
$x^2(df)$		36.130(9)***			
혼인 여부					
미혼	26.2	38.1	16.7	19.0	100.0 (42)
배우자 있음	24.7	39.2	4.0	32.2	100.0 (2,956)
배우자 없음	9.1	45.5	9.1	36.4	100.0 (22)
$x^2(df)$		22.115(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4.1	39.7	4.5	31.7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29.9	40.8	2.7	26.5	100.0 (1,002)
자녀 없음	17.6	35.8	5.7	40.8	100.0 (681)
$x^2(df)$		63.378(6)***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7.7	43.9	3.8	24.6	100.0 (834)
400~599만원	25.0	39.8	4.6	30.6	100.0 (1,047)
600만원 이상	21.9	35.2	4.0	38.9	100.0 (1,139)
$x^2(df)$		48.801(6)***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시기에는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6.6%로 월등히 높았는데, 여성,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가 없는 경우,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미혼인 응답자는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40.5% 정도만 동의하고, 둘 중 한 명은 양육을 담당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1-19〉 자녀의 중고등학생 시기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명)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수)
전체	10.6	19.2	3.6	66.6	100.0 (3,020)
성별					
남자	13.7	20.4	5.1	60.7	100.0 (1,444)
여자	7.8	18.0	2.2	72.0	100.0 (1,576)
x^2(*df*)		59.976(3)***			
연령					
20대 이하	6.8	8.5	3.4	81.4	100.0 (59)
30대	9.6	16.9	3.6	69.8	100.0 (1,592)
40대	12.1	22.0	3.6	62.4	100.0 (1,236)
50대 이상	11.3	24.8	3.0	60.9	100.0 (133)
x^2(*df*)		28.551(9)**			
혼인 여부					
미혼	23.8	21.4	14.3	40.5	100.0 (42)
배우자 있음	10.5	19.1	3.4	67.0	100.0 (2,956)
배우자 없음	9.1	18.2	4.5	68.2	100.0 (22)
x^2(*df*)		25.236(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9.9	19.6	4.2	66.3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12.6	22.4	2.6	62.5	100.0 (1,002)
자녀 없음	9.3	13.7	3.8	73.3	100.0 (681)
x^2(*df*)		33.070(6)***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2.7	21.5	3.6	62.2	100.0 (834)
400~599만원	9.5	19.5	3.4	67.6	100.0 (1,047)
600만원 이상	10.2	17.2	3.7	68.9	100.0 (1,139)
x^2(*df*)		13.164(6)*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다. 좋은 부모 가능성 인식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부모로서 자신을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런 편(그런 편+매우 그렇다)’ 38.3%, ‘그렇지 않은 편(그렇지 않은 편+매우 그렇지 않다)’ 11.8%, ‘보통’ 49.9%이었고, 5점 기준에 평균 3.29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스스로 좋은 부모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을 부모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Ⅱ-1-20〉 (자녀가 있는 경우) 좋은 부모 정도: 자기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임	보통	그런 편임	매우 그렇다	계 (수)	평균
전체	1.0	10.8	49.9	34.3	4.0	100.0 (2,324)	3.29
성별							
남자	0.7	9.0	48.0	37.1	5.2	100.0 (1,143)	3.37
여자	1.4	12.4	51.7	31.6	2.9	100.0 (1,181)	3.22
$x^2(df)$ / t			23.093(4)***				4.774***
연령							
20대 이하	0.0	5.7	62.9	28.6	2.9	100.0 (35)	3.29
30대	1.3	11.6	48.2	33.5	5.3	100.0 (1,082)	3.30
40대	0.7	10.2	51.4	34.6	3.0	100.0 (1,083)	3.29
50대 이상	1.6	9.7	47.6	39.5	1.6	100.0 (124)	3.30
$x^2(df)$ / F			17.133(12)				.021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3	11.4	48.7	33.8	4.8	100.0 (1,329)	3.29
비영유아 부모	0.7	9.9	51.5	35.0	2.9	100.0 (994)	3.30
$x^2(df)$ / t			10.419(8)				.078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9	12.1	52.0	29.9	4.0	100.0 (619)	3.22
400~599만원	.6	10.5	52.8	32.4	3.7	100.0 (803)	3.28
600만원 이상	.8	10.1	45.9	39.0	4.2	100.0 (902)	3.36
$x^2(df)$ / F			23.605(8)**				6.440**

주 :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1$, *** $p < .001$.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자녀를 사랑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자녀를 갖기까지 시간을 더 둘 것인지 질문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 편'의 응답은 48.8%로 절반 가까이 되었으나, 반대로 '동의하는 편'도 31.4%의 높은 수준으로 응답 되었다. 5점 평균으로는 2.74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으로 봤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이와 같은 생각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았다.

〈표 Ⅱ-1-21〉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의도: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자녀를 갖기까지 사간을 더 둘 것이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수)	평균
전체	17.3	31.5	19.9	23.3	8.1	100.0 (2,324)	2.74
성별							
남자	19.9	34.7	22.7	18.5	4.1	100.0 (1,143)	2.52
여자	14.6	28.3	17.2	27.9	12.0	100.0 (1,181)	2.94
$x^2(df)$ / t		92.219(4)***					−8.443***
연령							
20대 이하	8.6	28.6	28.6	25.7	8.6	100.0 (35)	2.97
30대	17.7	26.8	20.6	25.1	9.8	100.0 (1,082)	2.83
40대	17.5	34.8	19.2	21.1	7.3	100.0 (1,083)	2.66
50대 이상	13.7	43.5	16.9	25.0	.8	100.0 (124)	2.56
$x^2(df)$ / F		38.959(12)***					4.772**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8.4	29.9	20.6	22.4	8.7	100.0 (1,329)	2.73
비영유아 부모	15.7	33.6	18.9	24.3	7.4	100.0 (994)	2.74
$x^2(df)$ / t		11.042(4)					.565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5.3	28.6	20.8	24.2	11.0	100.0 (619)	2.87
400~599만원	17.9	32.3	20.5	22.4	6.8	100.0 (803)	2.68
600만원 이상	18.0	32.7	18.6	23.4	7.3	100.0 (902)	2.69
$x^2(df)$ / F		14.244(8)					5.068**

주 :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매우 동의함(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1, *** p 〈 .001.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게 본인이 향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를 질문한 결과, ‘그런 편’ 34.2%, ‘그렇지 않은 편’은 24.2% 있었고, 5점 중 평균 3.10점이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미래에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에 대해 5점 중 평균 2.96점으로 응답하여 보통보다 낮은 수준의 기대를 하고 있었고, 항목별로 ‘그렇지 않은 편’의 응답 비율이 28.9%로 남성 17.9%에 비해 높게 나타나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표 Ⅱ-1-22〉 (자녀가 없는 경우) 미래에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 자기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임	보통	그런 편임	매우 그렇다	계 (수)	평균
전체	5.5	18.7	41.7	28.7	5.5	100.0 (696)	3.10
성별							
남자	3.3	14.6	41.5	31.2	9.3	100.0 (301)	3.29
여자	7.1	21.8	41.8	26.8	2.5	100.0 (395)	2.96
$x^2(df)$ / t		24.613(4)***					4.552***
연령							
20대 이하	8.3	25.0	29.2	25.0	12.5	100.0 (24)	3.08
30대	5.1	18.6	42.5	29.0	4.7	100.0 (510)	3.10
40대	6.5	18.3	40.5	28.1	6.5	100.0 (153)	3.10
50대 이상	0.0	11.1	44.4	33.3	11.1	100.0 (9)	3.44
$x^2(df)$ / F		6.942(12)					.399
혼인 여부							
미혼	5.4	16.2	54.1	16.2	8.1	100.0 (37)	3.05
배우자 있음	5.5	18.7	40.7	29.6	5.4	100.0 (651)	3.11
배우자 없음	0.0	25.0	62.5	12.5	0.0	100.0 (8)	2.88
x^2/ F		6.936(8)					.280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7.0	20.0	41.9	25.1	6.0	100.0 (215)	3.03
400~599만원	4.5	21.7	41.4	26.2	6.1	100.0 (244)	3.08
600만원 이상	5.1	14.3	41.8	34.6	4.2	100.0 (237)	3.19
$x^2(df)$ / F		10.542(8)					1.574

주 :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01.

좋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1순위 결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52.4%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지원' 17.4%,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15.9%, '양육지식' 1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정서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59.4%로 남성에 비해 높았고, 남성은 '양육지식, 생활태도 및 습관지도, 경제적 지원' 등에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Ⅱ-1-23〉 좋은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1순위)

단위: %(명)

구분	양육지식	정서적 지원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학업지도	경제적 지원	기타	계 (수)
전체	12.7	52.4	15.9	1.4	17.4	0.3	100.0 (3,012)
성별							
남자	15.1	44.7	18.5	1.7	19.7	0.2	100.0 (1,440)
여자	10.5	59.4	13.4	1.1	15.3	0.3	100.0 (1,572)
$x^2(df)$			66.278(5)***				
연령							
20대 이하	8.5	39.0	23.7	5.1	23.7	0.0	100.0 (59)
30대	12.6	53.7	15.0	1.2	17.3	0.3	100.0 (1,588)
40대	13.1	52.1	15.7	1.4	17.4	0.3	100.0 (1,233)
50대 이상	12.1	44.7	24.2	3.0	15.9	0.0	100.0 (132)
$x^2(df)$			24.668(15)				
혼인 여부							
미혼	31.0	26.2	16.7	9.5	16.7	0.0	100.0 (42)
배우자 있음	12.4	52.9	15.9	1.3	17.3	0.3	100.0 (2,949)
배우자 없음	19.0	33.3	9.5	9.5	28.6	0.0	100.0 (21)
$x^2(df)$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3.9	53.5	15.1	1.3	16.1	0.1	100.0 (1,335)
비영유아 부모	12.4	51.7	16.3	1.5	17.7	0.3	100.0 (998)
자녀 없음	10.6	51.1	16.8	1.5	19.4	0.6	100.0 (679)
$x^2(df)$			13.306(10)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3.9	49.7	16.6	1.9	17.5	0.4	100.0 (833)
400~599만원	11.8	51.0	17.3	0.5	19.1	0.4	100.0 (1,043)
600만원 이상	12.6	55.5	14.1	1.9	15.8	0.1	100.0 (1,136)
$x^2(df)$			24.855(10)**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부모가 필요시 자녀에게 체벌(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을 가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50.2%는 '체벌을 하면 안된다'고 응답하였고,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41.1% 있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 30~40대, 기혼, 자녀가 없는 경우에 '체벌 할 수 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체벌을 할 수 있다'가 47.9%로 '체벌은 안된다'는 응답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Ⅱ-1-24〉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체벌 할 수 있다	체벌은 하면 안된다	모르겠다	계 (수)
전체	41.1	50.2	8.7	100.0 (3,020)
성별				
남자	41.6	50.7	7.7	100.0 (1,444)
여자	40.7	49.7	9.6	100.0 (1,576)
$x^2(df)$		3.634(2)		
연령				
20대 이하	23.7	55.9	20.3	100.0 (59)
30대	41.0	49.2	9.8	100.0 (1,592)
40대	42.5	50.5	7.0	100.0 (1,236)
50대 이상	38.3	55.6	6.0	100.0 (133)
$x^2(df)$		23.033(6)**		
혼인 여부				
미혼	21.4	64.3	14.3	100.0 (42)
배우자 있음	41.3	50.2	8.5	100.0 (2,956)
배우자 없음	50.0	22.7	27.3	100.0 (22)
$x^2(df)$		19.754(4)**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36.9	54.2	8.8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42.1	50.6	7.3	100.0 (1,002)
자녀 없음	47.9	41.6	10.6	100.0 (681)
$x^2(df)$		33.007(4)***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0.3	49.5	10.2	100.0 (834)
400~599만원	43.6	47.9	8.5	100.0 (1,047)
600만원 이상	39.4	52.8	7.8	100.0 (1,139)
$x^2(df)$		8.496(4)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일을 하면서 자녀양육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84.8%가 '어렵다(어려운 편+매우 어려움)'로 응답했고 '쉽다(쉬운 편+매우 쉬움)'는 응답은 2.1%, '보통이다' 13.2%이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하면 5점에 평균 4.21점으로 일과 양육을 함께 하는 것은 어렵다는 데에 동의 정도가 높고, 특히 여성, 기혼자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연령, 자녀유무에 따라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Ⅱ-1-25〉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쉬움	쉬운 편	보통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계 (수)	평균
전체	0.3	1.8	13.2	46.3	38.5	100.0 (3,020)	4.21
성별							
남자	0.4	2.2	17.8	45.4	34.2	100.0 (1,444)	4.11
여자	0.1	1.4	8.9	47.1	42.4	100.0 (1,576)	4.30
$x^2(df)$ / t			63.764(4)***				-7.194***
연령							
20대 이하	0.0	3.4	18.6	42.4	35.6	100.0 (59)	4.10
30대	0.3	2.3	12.2	42.7	42.6	100.0 (1,592)	4.25
40대	0.3	1.1	14.6	49.3	34.7	100.0 (1,236)	4.17
50대 이상	0.0	1.5	9.0	63.2	26.3	100.0 (133)	4.14
$x^2(df)$ / F			44.561(12)***				3.519*
혼인 여부							
미혼	0.0	9.5	38.1	26.2	26.2	100.0 (42)	3.69
배우자 있음	0.3	1.7	12.8	46.7	38.6	100.0 (2,956)	4.22
배우자 없음	0.0	4.5	22.7	22.7	50.0	100.0 (22)	4.18
$x^2(df)$ / F			46.000(8)***				10.181***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0.4	1.7	12.0	43.6	42.3	100.0 (1,337)	4.26
비영유아 부모	0.1	2.1	14.8	52.4	30.6	100.0 (1,002)	4.11
자녀 없음	0.1	1.5	13.2	42.4	42.7	100.0 (681)	4.26
$x^2(df)$ / F			43.959(8)***				12.217***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0.4	1.8	13.5	43.2	41.1	100.0 (834)	4.23
400~599만원	0.2	1.7	12.7	46.9	38.5	100.0 (1,047)	4.22
600만원 이상	0.3	1.8	13.3	47.9	36.6	100.0 (1,139)	4.19
$x^2(df)$ / F			5.898(8)				.810

주 :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매우 쉬움(1점)~매우 어려움(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p < .001$.

라. 영유아 부모의 양육 현황

〈표 Ⅱ-1-26〉는 영유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상황별로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놀이할 때’에는 5점을 기준으로 평균 2.84점, ‘식사할 때’에는 2.27점, ‘재울 때’에는 2.25점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자녀와 식사를 할 때’에는 남성이, ‘자녀를 재울 때’와 ‘식사할 때’에는 맞벌이 부부의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1-26〉 (영유아 부모) 상황별 스마트폰 사용 정도(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자녀와 함께 놀이할 때	자녀와 함께 식사할 때	자녀를 재울 때	(수)
전체	2.84	2.27	2.25	(1,337)
성별				
남자	2.81	2.36	2.24	(668)
여자	2.87	2.18	2.25	(669)
t	-1.105	2.909**	-.105	
연령				
20대 이하	2.48	2.24	2.58	(33)
30대	2.84	2.27	2.26	(927)
40대	2.88	2.29	2.20	(374)
50대 이상	2.67	2.67	2.00	(3)
F	1.392	.149	1.037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85	2.27	2.24	(430)
400~599만원	2.82	2.17	2.18	(435)
600만원 이상	2.85	2.37	2.31	(472)
F	.106	3.801*	1.30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7	2.34	2.33	(799)
외벌이	2.80	2.16	2.09	(520)
둘다 비경제활동	2.57	2.00	2.14	(7)
F	2.186	2.434*	4.718**	

주 : 1) ‘전혀 안한다(1점)~매우 많이 사용한다(5점)’의 평균을 산출함.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영유아 부모가 하루 중 근무하는 시간, 집에 머무는 시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와 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질문한 결과, '집에 머무는 시간'과 '근무시간'은 평균 7.47시간, 7.31시간으로 비슷했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5.06시간으로 보다 적게 나타났다.

각 활동별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55.7%로 절반 이상이었고, '집에 머무는 시간' 역시 부족하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반면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다.

〈표 Ⅱ-1-27〉 영유아 부모의 활동 시간 및 만족도

단위: %(명), 시간

구분	시간사용 만족도			계 (수)	사용시간 평균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근무시간	37.1	48.6	14.4	100.0 (1,001)	7.31
집에 머무는 시간	12.5	40.7	46.8	100.0 (1,322)	7.47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7.3	36.9	55.7	100.0 (1,322)	5.06

영유아 부모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 및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평균 근무시간은 8.29시간으로 5.68시간인 여성에 비해 길고, 20대 이하 응답자는 4.96시간으로 다른 연령에 비하여 짧은 편이었다.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변인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Ⅱ-1-28〉 영유아 (취업중)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근무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근무시간 만족도			계 (수)	근무시간 평균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전체	37.1	48.6	14.4	100.0 (1,001)	7.31
성별					
남자	37.3	49.2	13.4	100.0 (656)	8.29
여자	36.5	47.2	16.2	100.0 (345)	5.68
$x^2(df)$ / t		1.474(2)			13.172***
연령					
20대 이하	38.1	33.3	28.6	100.0 (21)	4.96
30대	36.8	48.2	15.0	100.0 (668)	7.17
40대	37.7	50.0	12.3	100.0 (310)	7.78

구분	근무시간 만족도			계 (수)	근무시간 평균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50대 이상	0.0	100.0	0.0	100.0 (2)	6.50
$x^2(df)$ / F		7.398(6)			7.210***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6.0	48.6	15.4	100.0 (253)	7.17
400~599만원	36.1	48.7	15.2	100.0 (335)	7.20
600만원 이상	38.5	48.4	13.1	100.0 (413)	7.48
$x^2(df)$ / F		1.237(4)			1.152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영유아 부모의 하루 평균 집에 머무는 시간 및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평균 9.63시간으로 5.30시간인 남성에 비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만족도 질문에는 '너무 길다'고 응답한 여성이 23.6%로 1.5%인 남성과 차이를 보였고, 반면 남성의 58.1%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월 가구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만족도 질문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집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Ⅱ-1-29〉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집에 머무는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집에 머무는 시간 만족도			계 (수)	집에 머무는 시간 평균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전체	12.5	40.7	46.8	100.0 (1,322)	7.47
성별					
남자	1.5	40.4	58.1	100.0 (664)	5.30
여자	23.6	41.0	35.4	100.0 (658)	9.63
$x^2(df)$ / t		165.225(2)***			-18.474***
연령					
20대 이하	18.8	53.1	28.1	100.0 (32)	9.58
30대	13.9	39.3	46.8	100.0 (915)	7.60
40대	8.6	42.7	48.7	100.0 (372)	6.97
50대 이상	0.0	66.7	33.3	100.0 (3)	7.33
$x^2(df)$ / F		12.579(5)			3.736*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0.8	44.3	34.9	100.0 (424)	8.47

구분	집에 머무는 시간 만족도			계 (수)	집에 머무는 시간 평균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400~599만원	11.9	39.9	48.3	100.0 (429)	7.43
600만원 이상	5.5	38.2	56.3	100.0 (469)	6.60
$x^2(df)$ / F		65.679(4)***			17.466***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영유아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하루 평균 시간 및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경우 하루 평균 7.15시간, 남성은 2.96시간을 자녀와 보낸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만족도 질문에는 남성의 65.9%가 자녀와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7.15시간을 보내는 여성 역시 '부족하다'는 응답이 45.5%이었다.

〈표 Ⅱ-1-30〉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만족도			계 (수)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평균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전체	7.3	36.9	55.7	100.0 (1,322)	5.06
성별					
남자	1.2	32.9	65.9	100.0 (664)	2.96
여자	13.5	40.9	45.5	100.0 (658)	7.15
$x^2(df)$ / t		98.933(2)***			-17.090***
연령					
20대 이하	18.8	31.3	50.0	100.0 (32)	8.39
30대	8.1	36.2	55.7	100.0 (915)	5.35
40대	4.6	38.7	56.7	100.0 (372)	4.06
50대 이상	0.0	100.0	0.0	100.0 (3)	3.33
$x^2(df)$ / F		16.383(6)*			11.445***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1.8	42.7	45.5	100.0 (424)	6.06
400~599만원	6.5	37.0	56.5	100.0 (429)	4.94
600만원 이상	4.0	31.7	64.3	100.0 (469)	4.25
$x^2(df)$ / F		40.382(4)***			15.541***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영유아 부모가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어떠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에 대한 결과는 5점 평균에 3.78점으로 높은 편이고, 그렇다는 응답이 68.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6%이다.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유능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평균 2.80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고, 제시된 항목 중 가장 효능감이 낮은 항목이다. 응답자의 35.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44.8%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평균 3.35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다. 45.6%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자도 40.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질문은 평균 2.88점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이다. 48.1%가 보통, 30.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21.7% 보다 많았다.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는 평균 3.13점으로, 32.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 20.1%에 비해 높았다.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는 평균 3.45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고, 50.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균 3.29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고, 보통이라는 응답 비중이 47.1%로 가장 높았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한다’는 5점 평균에 3.94점으로, 제시된 항목 중 가장 효능감이 높은 항목이다. 응답자의 73.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4.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에 대해서는 평균 3.04점이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48.5%로 절반 정도이다.

〈표 Ⅱ-1-31〉 (영유아 부모) 양육효능감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계	(수)	평균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0.6	5.0	25.7	53.0	15.8	100.0	(1,337)	3.78
2)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6.5	28.7	44.8	18.4	1.6	100.0	(1,337)	2.80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1.2	12.9	40.2	40.9	4.7	100.0	(1,337)	3.35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6.6	23.6	48.1	18.8	2.9	100.0	(1,337)	2.88
5)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1.6	18.5	47.8	29.4	2.6	100.0	(1,337)	3.13
6)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0.7	9.7	39.1	44.5	5.9	100.0	(1,337)	3.45
7)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0.7	12.9	47.1	35.0	4.2	100.0	(1,337)	3.29
8)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한다.	0.4	3.7	22.4	48.8	24.7	100.0	(1,337)	3.94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2.5	21.5	48.5	25.1	2.5	100.0	(1,337)	3.04

〈표 Ⅱ-1-32〉은 영유아 부모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5점 기준에 평균점수는 2.10점~3.53점 범위였고, 다수의 항목에서 보통 수준인 3점 전후의 결과가 나타났다.

제시된 항목 중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항목은 '자녀가 함께 놀아주거나 재밌게 해달라고 조른다',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밤에 아이를 두고 나가거나 다른 곳에 맡기고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이가 어질러 놓은 장남감이나 음식을 계속 치워야 한다'이며, 모두 평균 3.40점 이상이다.

상대적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항목은 '아이가 친구들과 지내는데 문제가 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다루기 어렵다', '옷을 더럽혀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등이 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살펴보면 평균 3점 이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아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나 음식을 계속 치워야 한다’는 3.40점으로, 응답자의 49.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평균 3.49점으로 제시된 항목 중 높은 편이며, 53.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예상치 못했던 아이의 일로 내 계획을 바꿔야 할 때가 많다’는 3.23점으로 41.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밤에 아이를 두고 나가거나 다른 곳에 맡기고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3.43점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항목 중 하나이고, 5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야만 한다’는 평균 3.11점으로 보통이다 38.6%, 그렇다 35.6% 수준이었다. ‘아이가 나에게 함께 놀아주거나 재밌게 해달라고 조른다’는 평균 3.53점으로 제시된 항목 중 가장 높은 양육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는데, 55.7%의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2%이다.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자지 않으려고 해서 힘이 들 때가 있다’는 3.18점으로, 41.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아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균 3.04점이며, 그렇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3~37%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평균 3점 미만인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가 나를 귀찮게 하거나 칭얼대며 불평한다’는 평균 2.77점으로, 39.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아이가 잔소리 없이는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2.76점이며, 39.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아이의 스케줄 때문에 나의 일이나 가정 일에 지장이 있다’는 평균 2.76점이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0.8%이다. ‘집안일을 하는데 아이가 끊임없이 걸리적 거린다’는 2.75점으로, 42.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더럽혀서 갈아입혀야 한다’는 2.72점으로, 43.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상기 항목들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그렇다,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

‘아이 밥 먹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평균 2.99점이며,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비슷하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평균 2.94점이고, 정말 그렇다는 응답이 11.1%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는 응답은 평균 2.68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편이고, 43.6%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응답은 21.7%이었다. ‘외출할 때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기 위해 아이를 준비시키려면 어렵다'는 평균 2.97점이며,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는 응답 비중이 30~31%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 '아이가 친구들과 지내는 데 문제가 있다'는 2.10점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는 항목이며, 그렇다는 응답은 10.1% 있었다.

〈표 Ⅱ-1-32〉 (영유아 부모) 양육스트레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계	(수)	평균
1) 나는 아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나 음식물을 계속 치워야 한다.	2.9	14.5	33.3	37.8	11.4	100.0	(1,337)	3.40
2) 아이가 나를 귀찮게 하거나 칭얼대며 불평 한다.	10.2	29.3	38.0	18.5	4.0	100.0	(1,337)	2.77
3) 아이 밥 먹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거나 불평하는 등)	10.4	23.9	30.7	26.5	8.5	100.0	(1,337)	2.99
4) 아이가 잔소리 없이는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10.5	28.8	37.8	19.3	3.5	100.0	(1,337)	2.76
5) 아이 돌보는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5.0	21.5	29.5	23.0	11.1	100.0	(1,337)	2.94
6) 아이의 스케줄(유치원/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때문에 나의 일이나 가정 일에 지장이 있다.	13.8	27.0	33.3	21.5	4.4	100.0	(1,337)	2.76
7) 아이는 나에게 함께 놀아주거나 재밌게 해 달라고 조른다.	2.2	10.0	32.1	44.5	11.2	100.0	(1,337)	3.53
8)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자지 않으려고 해서 힘이 들 때가 있다.	7.8	18.6	31.7	31.7	10.2	100.0	(1,337)	3.18
9) 집안일을 하는데 아이가 끊임없이 걸리적거린다.	11.2	30.9	32.8	21.8	3.3	100.0	(1,337)	2.75
10)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5	13.8	29.4	37.1	16.2	100.0	(1,337)	3.49
11) 예상치 못했던 아이의 일로 인해 내 계획을 바꿔야 할 때가 많다.	4.3	19.0	35.1	32.6	9.0	100.0	(1,337)	3.23
12)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더럽혀서 갈아 입혀야 한다.	13.9	30.0	30.7	21.3	4.0	100.0	(1,337)	2.72
13) 아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8.8	24.6	29.6	27.7	9.3	100.0	(1,337)	3.04
14) 공공장소(식품가게, 쇼핑센터, 음식점)에서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14.1	29.5	34.7	17.7	4.0	100.0	(1,337)	2.68
15) 외출할 때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기 위해 아이를 준비시키려면 어렵다.	6.7	25.1	37.8	25.2	5.2	100.0	(1,337)	2.97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계 (수)	평균
16) 밤에 아이를 두고 나가거나, 다른 곳에 맡기고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8.2	15.4	23.1	31.9	21.3	100.0 (1,337)	3.43
17) 아이가 친구들과 지내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싸우거나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거나 친구가 없는 등)	31.9	37.8	20.3	9.0	1.1	100.0 (1,337)	2.10
18)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야만 한다.	5.2	20.5	38.6	28.9	6.7	100.0 (1,337)	3.11

영유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은 가족, 친척이 평균 3.34명으로 가장 많고, 친구 2.53명, 이웃 1.06명이었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는 가족, 친척이 2.34명이었고, 친구와 이웃은 1명 미만이었다. ‘육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는 가족, 친척과 친구가 각각 1.65명, 1.53명으로 친구를 통해서도 육아 정보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에 있어서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은 가족, 친척이 2.03명, 친구 1.07명이고, ‘육아와 관련한 통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모두 1명 미만이다.

〈표 Ⅱ-1-33〉 (영유아 부모) 사회적 관계망

단위: 명, (명)

구분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수)
1)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	3.34	2.53	1.06	(1,337)
2)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2.34	0.76	0.49	(1,337)
3) 육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	1.65	1.53	0.87	(1,337)
4) 육아에 있어서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	2.03	1.07	0.55	(1,337)
5) 육아와 관련한 통제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0.75	0.29	0.24	(1,337)

영유아 부모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개수를 조사하였더니,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정기적 모임’은 0.62개,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0.59개로 1개 미만이었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온라인 카페’의 개수는 1.30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터넷 카페 개수는 여성이 1.48개로 남성 1.12개보다 많았고,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 부부에게서 온·오프라인의 모임 개수와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수가 많았다.

〈표 Ⅱ-1-34〉 (영유아 부모) 정기적인 모임

단위: 개, (명)

구분	정기적 참여 모임 (오프라인)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터넷 카페(온라인)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수)
전체	0.62	1.30	0.59	(1,337)
성별				
남자	0.66	1.12	0.69	(668)
여자	0.58	1.48	0.49	(669)
t	1.359	-4.709***	3.350**	
연령				
20대 이하	0.70	1.33	0.61	(33)
30대	0.59	1.28	0.55	(927)
40대	0.70	1.34	0.68	(374)
50대 이상	0.67	1.33	0.33	(3)
F	.956	.199	1.406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0.49	1.07	0.38	(430)
400~599만원	0.61	1.33	0.54	(435)
600만원 이상	0.75	1.48	0.82	(472)
F	7.053**	10.573***	20.616***	
맞벌이 여부				
맞벌이	0.72	1.33	0.72	(799)
외벌이	0.48	1.26	0.39	(520)
둘다 비경제활동	0.29	0.71	0.29	(7)
F	4.255**	.899	7.895***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집 또는 거주지 주변에 있는 기관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여 5점 만점의 평균점수로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 대해 3점(보통) 이하로 응답 되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술관과 박물관의 경우 평균 약 1.90점으로 응답 되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집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이용이 가능한 실제 기관 수를 물은 질문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는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보다 실제 이용 가능 기관 수가 더 많았고, 아동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는 이용 가능 기관 수

보다 충분성에 대한 평균 환산 개수가 더 많았다. 즉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는 실제 이용 가능한 수보다 부족하다고 인식되어 더 많은 요구가 있지만 다른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35〉 (영유아 부모) 육아인프라 및 주변 환경

단위: %(명), 점, 개

구분	충분성							이용가능 기관수
	매우 부족	다소 부족	보통	약간 충분	매우 충분	계 (수)	평균	
1) 어린이집	8.4	23.9	34.9	22.8	10.0	100.0 (1,337)	3.02	4.69
2) 유치원	12.6	29.2	36.4	15.0	6.7	100.0 (1,337)	2.74	3.42
3) 놀이터	12.9	24.4	32.6	21.2	8.8	100.0 (1,337)	2.89	4.05
4) 아동도서관	18.6	33.7	30.5	13.0	4.2	100.0 (1,337)	2.50	1.94
5) 미술관	41.7	32.2	18.2	5.5	2.4	100.0 (1,337)	1.95	1.35
6) 박물관	41.7	30.1	18.5	7.6	2.0	100.0 (1,337)	1.98	1.47
7) 문화센터	22.5	32.0	29.7	12.6	3.1	100.0 (1,337)	2.42	2.19

2.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가. 결혼 가치관

결혼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50.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하는 편이 좋다’가 37.5%,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응답도 4.2%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여성의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67.4%로 남성의 부정적 응답 비율인 40.2% 보다 높았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여성의 응답은 3.3%, 남성은 13.3%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향이 있었다.

〈표 Ⅱ-2-1〉 결혼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계(수)
전체	8.1	37.5	50.2	4.2	100.0 (3,020)
성별					
남자	13.3	46.5	38.0	2.2	100.0 (1,444)
여자	3.3	29.3	61.4	6.0	100.0 (1,576)
$x^2(df)$			260.812(3)***		
연령					
20대 이하	3.4	42.4	45.8	8.5	100.0 (59)
30대	7.7	37.4	51.4	3.6	100.0 (1,592)
40대	8.3	37.4	49.4	4.9	100.0 (1,236)
50대 이상	12.8	39.1	45.9	2.3	100.0 (133)
$x^2(df)$			14.358(9)		
혼인 여부					
미혼	2.4	35.7	50.0	11.9	100.0 (42)
배우자 있음	8.2	37.7	50.3	3.9	100.0 (2,956)
배우자 없음	9.1	18.2	40.9	31.8	100.0 (22)
$x^2(df)$			51.402(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8.4	39.1	48.3	4.2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9.3	36.6	49.3	4.8	100.0 (1,002)
자녀 없음	5.7	35.8	55.2	3.2	100.0 (681)
$x^2(df)$			15.123(6)*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6.8	36.8	50.7	5.6	100.0 (834)
400~599만원	8.3	37.7	50.2	3.7	100.0 (1,047)
600만원 이상	8.8	37.9	49.8	3.5	100.0 (1,139)
$x^2(df)$			8.591(6)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나. 결혼과 출산의 관계

결혼과 출산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질문한 결과,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점 평균에 2.86점으로 가장 높았고,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2.42점,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2.28점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와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에는 여성 보다 남성의 동의 정도가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또한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4점 만점에 2.04점의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고,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에도 동의 수준이 낮았으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표 Ⅱ-2-2〉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4점 만점)

단위: 점, (명)

구분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수)
전체	2.28	2.86	2.42	(3,020)
성별				
남자	2.26	2.95	2.62	(1,444)
여자	2.29	2.78	2.24	(1,576)
t	-1.263	5.553***	12.288***	
연령				
20대 이하	2.34	2.86	2.24	(59)
30대	2.31	2.82	2.31	(1,592)
40대	2.23	2.90	2.53	(1,236)
50대 이상	2.20	3.03	2.76	(133)
F	2.369	4.135**	23.287***	
혼인 여부				
미혼	2.33	2.60	2.40	(42)
배우자 있음	2.28	2.87	2.42	(2,956)
배우자 없음	2.27	2.68	2.27	(22)
F	.099	2.671	.324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30	2.89	2.49	(1,337)

구분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수)
비영유아 부모	2.20	2.92	2.58	(1,002)
자녀 없음	2.35	2.71	2.04	(681)
F	7.393**	14.627***	91.548***	
월 가구 소득				
399만원이하	2.26	2.87	2.42	(834)
400~599만원	2.28	2.85	2.43	(1,047)
600만원이상	2.28	2.86	2.41	(1,139)
F	.301	.245	.190	

주 :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1$, *** $p < .001$.

다. 이상적인 자녀의 수

〈표 Ⅱ-2-3〉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결과로, '자녀가 있는 편이 좋다'가 63.4%로 높았고, '잘 모르겠다' 27.8%, '없는 편이 좋다' 8.7%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 '자녀가 있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77.4%로 높은 반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녀가 없는 편이 좋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한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는 '자녀가 없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각각 23.8%, 15.9%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미혼은 '자녀가 있는 편이 좋다'에 동의 비중이 38.1%로 63%대의 동의 비중을 보인 기혼자에 비해 자녀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2-3〉 자녀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있는 편이 좋다	없는 편이 좋다	잘 모르겠다	계 (수)
전체	63.4	8.7	27.8	100.0 (3,020)
성별				
남자	65.6	8.1	26.3	100.0 (1,444)
여자	61.5	9.3	29.2	100.0 (1,576)
$x^2(df)$		5.522(2)		
연령				
20대 이하	62.7	10.2	27.1	100.0 (59)

구분	있는 편이 좋다	없는 편이 좋다	잘 모르겠다	계 (수)
30대	60.3	9.9	29.8	100.0 (1,592)
40대	66.0	7.9	26.1	100.0 (1,236)
50대 이상	77.4	2.3	20.3	100.0 (133)
$x^2(df)$		24.072(6)**		
혼인 여부				
미혼	38.1	23.8	38.1	100.0 (42)
배우자 있음	63.8	8.5	27.7	100.0 (2,956)
배우자 없음	63.6	18.2	18.2	100.0 (22)
$x^2(df)$		20.074(4)***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63.8	7.1	29.1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70.1	6.1	23.9	100.0 (1,002)
자녀 없음	53.0	15.9	31.1	100.0 (681)
$x^2(df)$		79.391(4)***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이하	62.6	10.0	27.5	100.0 (834)
400~599만원	64.6	8.5	26.9	100.0 (1,047)
600만원이상	63.0	8.1	28.9	100.0 (1,139)
$x^2(df)$		3.175(4)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자녀가 있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상적인 총 자녀 수는 평균 2.13명이었고, 그중 ‘자녀의 성별은 상관없다’는 응답자 기준으로는 총 2.05명, 아들과 딸을 구분하여 응답한 경우에는 아들 0.97명, 딸 1.23명이었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게서는 이상적인 총 자녀 수와 성별 구분 없는 자녀 수가 유자녀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Ⅱ-2-4〉 이상적인 자녀의 수

단위: 명

구분	총 자녀 수	성별 구분 없이 자녀 수	아들 수	딸 수
전체	2.13	2.05	0.97	1.23
성별				
남자	2.14	2.12	1.00	1.17
여자	2.11	1.98	0.95	1.29
t	1.153	3.399	1.913	-3.916
연령				
20대 이하	2.22	2.07	0.96	1.35
30대	2.09	2.00	0.94	1.23
40대	2.15	2.08	1.01	1.22
50대 이상	2.25	2.19	1.06	1.27
F	2.801	1.955	2.447	.594
혼인 여부				
미혼	2.25	1.80	1.09	1.36
배우자 있음	2.12	2.05	0.97	1.23
배우자 없음	2.36	2.38	1.00	1.33
F	1.189	1.432	.380	.583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15	2.08	0.97	1.26
비영유아 부모	2.15	2.09	1.01	1.22
자녀 없음	2.01	1.86	0.92	1.19
F	7.523**	8.313***	2.500	1.348
월 가구 소득				
399만원이하	2.14	2.07	0.98	1.22
400~599만원	2.12	2.04	0.97	1.23
600만원이상	2.12	2.04	0.97	1.23
F	.234	.198	.017	.051

** $p < .01$, *** $p < .001$.

라. 자녀에 대한 필요성

〈표 Ⅱ-2-5〉는 본인 자녀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 결과이다. 그 결과, ‘자녀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높았고, ‘꼭 있어야 한다’ 32.0%, ‘없어도 무방하다’ 22.4%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이 37.5%, 여성 26.9%로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어도 무방하다’는 응답 비율이 27.3%로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 26.9%보다 도리어 높았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없어도 무방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고,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 43.0%는 ‘자녀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응답하여 자녀의 필요성을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2-5〉 본인 자녀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방함	모르겠음	계 (수)
전체	32.0	42.6	22.4	3.0	100.0 (3,020)
성별					
남자	37.5	44.0	17.0	1.5	100.0 (1,444)
여자	26.9	41.3	27.3	4.4	100.0 (1,576)
$x^2(df)$		85.693(3)***			
연령					
20대 이하	33.9	28.8	32.2	5.1	100.0 (59)
30대	29.8	42.2	24.9	3.1	100.0 (1,592)
40대	34.0	43.4	19.7	3.0	100.0 (1,236)
50대 이상	38.3	46.6	13.5	1.5	100.0 (133)
$x^2(df)$		26.861(9)**			
혼인 여부					
미혼	21.4	38.1	38.1	2.4	100.0 (42)
배우자 있음	32.1	42.7	22.2	3.0	100.0 (2,956)
배우자 없음	31.8	40.9	18.2	9.1	100.0 (22)
$x^2(df)$		9.293(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38.3	42.7	16.8	2.2	100.0 (1,337)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방함	모르겠음	계 (수)
비영유아 부모	36.1	45.8	16.0	2.1	100.0 (1,002)
자녀 없음	13.4	37.7	43.0	5.9	100.0 (681)
$x^2(df)$		292.796(6)***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이하	33.1	39.3	24.6	3.0	100.0 (834)
400~599만원	30.7	45.5	20.1	3.8	100.0 (1,047)
600만원이상	32.3	42.4	23.0	2.3	100.0 (1,139)
$x^2(df)$		13.850*6)*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자녀가 있어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자녀를 키우며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과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가 각각 47.0%, 42.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가문(대)을 잇기 위함'의 응답이 4.8%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미혼의 경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에 대한 응답 비율이 24.0%, '배우자(또는 양가 부모)가 원하니까'가 16.0%로 높게 나타나 전체적인 응답 경향과 차이를 보였다. 그 밖에도 연령, 자녀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Ⅱ-2-6〉 자녀가 있어야 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배우자 (또는 양가 부모)가 원하니까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가문 (대)을 잇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기타	계 (수)
전체	3.0	1.7	2.8	2.1	47.0	42.3	1.1	100.0 (2,252)
성별								
남자	2.7	2.2	4.8	2.5	45.8	41.1	0.9	100.0 (1,177)
여자	3.3	1.2	0.6	1.7	48.4	43.6	1.2	100.0 (1,075)
$x^2(df)$				43.679(6)***				
연령								
20대 이하	8.1	0.0	2.7	10.8	32.4	45.9	0.0	100.0 (37)
30대	3.7	1.7	3.2	2.6	45.3	41.9	1.6	100.0 (1,146)

구분	배우자 (또는 양가 부모)가 원하니까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가문 (대)을 잇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기타	계 (수)
40대	2.2	1.9	2.5	1.4	49.0	42.6	0.5	100.0 (956)
50대 이상	1.8	0.9	0.0	0.0	53.1	43.4	0.9	100.0 (113)
$x^2(df)$				42.871(18)**				
혼인 여부								
미혼	16.0	0.0	8.0	24.0	32.0	16.0	4.0	100.0 (25)
배우자 있음	2.8	1.7	2.7	1.8	47.3	42.7	1.0	100.0 (2,211)
배우자 없음	6.3	6.3	6.3	6.3	37.5	37.5	0.0	100.0 (16)
$x^2(df)$				87.947(12)***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3.0	1.8	2.8	2.4	49.5	39.3	1.2	100.0 (1,083)
비영유아 부모	2.1	1.6	1.3	1.5	48.0	44.6	1.0	100.0 (821)
자녀 없음	5.5	1.7	6.0	2.6	37.1	46.3	0.9	100.0 (348)
$x^2(df)$				45.379(12)***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6	1.5	3.0	2.3	45.4	41.9	1.3	100.0 (604)
400~599만원	2.5	1.5	2.6	2.0	48.1	42.4	0.9	100.0 (797)
600만원 이상	2.4	2.1	2.7	2.0	47.2	42.5	1.1	100.0 (851)
$x^2(df)$				9.931(12)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반면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21.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18.1%,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많이 되어서’ 17.6%,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16.1%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는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가 19.5%, 여성은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22.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2-7〉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수)
전체	21.7	2.8	13.1	16.1	2.2	0.3	0.9	17.6	3.4	18.1	3.8	100.0	(678)
성별													
남자	22.4	2.0	19.5	14.6	0.8	0.4	0.8	19.1	5.3	11.4	3.7	100.0	(246)
여자	21.3	3.2	9.5	16.9	3.0	0.2	0.9	16.7	2.3	22.0	3.9	100.0	(432)
$x^2(df)$						31.354(10)**							
연령													
20대 이하	10.5	0.0	15.8	10.5	5.3	0.0	0.0	21.1	0.0	26.3	10.5	100.0	(19)
30대	24.1	3.0	15.1	14.8	2.5	0.5	0.8	17.3	3.3	14.3	4.3	100.0	(398)
40대	19.3	2.9	10.3	18.5	1.6	0.0	1.2	17.7	3.3	22.6	2.5	100.0	(243)
50대 이상	11.1	0.0	5.6	16.7	0.0	0.0	0.0	16.7	11.1	33.3	5.6	100.0	(18)
$x^2(df)$						30.496(30)							
혼인 여부													
미혼	18.8	6.3	12.5	12.5	6.3	0.0	0.0	18.8	6.3	12.5	6.3	100.0	(16)
배우자 있음	21.4	2.7	13.2	16.3	2.1	0.3	0.9	17.5	3.3	18.4	3.8	100.0	(658)
배우자 없음	75.0	0.0	0.0	0.0	0.0	0.0	0.0	25.0	0.0	0.0	0.0	100.0	(4)
$x^2(df)$						11.074(20)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2.7	3.6	15.1	18.7	2.7	0.4	1.8	13.8	1.8	16.4	3.1	100.0	(225)
비영유아 부모	20.0	3.1	6.9	15.0	1.3	0.0	0.6	23.1	1.9	24.4	3.8	100.0	(160)
자녀 없음	21.8	2.0	15.0	14.7	2.4	0.3	0.3	17.4	5.5	16.0	4.4	100.0	(293)
$x^2(df)$						30.039(20)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이하	20.9	3.4	15.0	12.6	2.9	0.0	1.5	21.8	4.9	13.6	3.4	100.0	(206)
400~599만원	26.2	1.0	12.9	16.2	0.5	0.5	0.0	18.6	3.8	17.1	3.3	100.0	(210)
600만원이상	18.7	3.8	11.8	18.7	3.1	0.4	1.1	13.4	1.9	22.5	4.6	100.0	(262)
$x^2(df)$						32.225(20)*							

주 : 1) ①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②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③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④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⑤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⑥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해서, ⑦유전병 등 질환 때문에, ⑧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많이 되어서, ⑨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⑩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⑪기타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마. 양육 태도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 버릇이 나빠진다'와 '자녀가 하기에 벅찬 일이라도 혼자 해보도록 해야 한다'에 동의 수준이 높았고,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와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에 동의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는 4점 평균에 2.94점으로 동의 수준이 높은 편이고, 특히 여성, 20대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았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2.37점으로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고, 성별로는 남성의 동의 정도가 2.46점으로 여성에 비해 높았다.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는 문항은 평균 2.48점이었고, 남성과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게서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하기에 벅찬 일이라도 혼자서 해보도록 해야한다'는 평균 2.98점으로 제시된 문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응답자 특성별로는 응답 경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2.43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동의 수준이었다. 남성과 연령이 높을수록 이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았고, 비영유아 부모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2.64점으로, 여성,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았다.

〈표 Ⅱ-2-8〉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4점 만점)

단위: 점, (명)

구분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자녀가 하기에 벅찬 일일지라도 혼자서 해보도록 해야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
전체	2.94	2.37	2.48	2.98	2.43	2.64	(3,020)
성별							
남자	2.89	2.46	2.54	3.00	2.50	2.60	(1,444)
여자	2.98	2.29	2.42	2.96	2.37	2.67	(1,576)
t	-3.647***	6.549***	3.804***	1.654	4.806***	-2.827**	
연령							
20대 이하	3.10	2.37	2.41	2.95	2.24	2.58	(59)
30대	2.96	2.34	2.48	2.98	2.37	2.62	(1,592)
40대	2.91	2.39	2.47	2.99	2.50	2.66	(1,236)
50대 이상	2.84	2.42	2.47	2.94	2.60	2.62	(133)
F	3.364*	1.269	.143	.313	12.023***	.847	
혼인 여부							
미혼	2.86	2.43	2.43	2.90	2.57	2.74	(42)
배우자 있음	2.94	2.37	2.47	2.98	2.43	2.63	(2,956)
배우자 없음	2.95	2.36	2.68	3.05	2.27	2.73	(22)
F	.315	.151	.726	.448	1.371	.689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95	2.35	2.41	2.97	2.39	2.63	(1,337)
비영유아 부모	2.89	2.38	2.46	2.98	2.51	2.70	(1,002)
자녀 없음	3.00	2.39	2.63	3.00	2.40	2.56	(681)
F	5.289*	.711	14.807***	.404	9.217***	7.898***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96	2.37	2.48	2.96	2.41	2.53	(834)
400~599만원	2.95	2.39	2.49	2.98	2.44	2.63	(1,047)
600만원 이상	2.92	2.35	2.45	2.99	2.43	2.71	(1,139)
F	1.262	.613	.717	.475	.396	17.495***	

주 : 1)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의 평균을 산출함.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바. 자녀양육의 어려움

〈표 Ⅱ-2-9〉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1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24.5%, ‘자녀양육과 일의 병행’이 23.2%로 전체 응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14.2%, ‘자녀의 심리적 안정’ 13.3%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전체 응답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여성은 ‘양육비용 부담’보다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또한 20대 이하, 자녀가 없는 응답자가 느끼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각각 33.9%, 32.8%로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과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표 Ⅱ-2-9〉 자녀 양육의 어려움(1순위)

단위: %(명)

구분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자녀의 학업/ 직업적 성취	자녀의 심리적 안정	자녀의 신체적 건강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기타	계	(수)
전체	23.2	24.5	8.2	4.2	13.3	7.4	14.2	4.6	0.4	100.0	(3,014)
성별											
남자	22.4	26.1	9.3	5.3	11.6	9.4	12.0	3.5	0.2	100.0	(1,440)
여자	23.9	23.1	7.1	3.2	14.9	5.5	16.2	5.5	0.5	100.0	(1,574)
$x^2(df)$					55.291(8)***						
연령											
20대 이하	15.3	33.9	11.9	1.7	13.6	10.2	11.9	1.7	0.0	100.0	(59)
30대	22.6	25.2	7.2	2.9	13.5	7.4	16.4	4.5	0.3	100.0	(1,590)
40대	23.3	23.0	8.8	5.9	13.5	7.1	12.5	5.4	0.5	100.0	(1,233)
50대 이상	32.6	25.8	12.1	6.1	9.1	9.1	5.3	0.0	0.0	100.0	(132)
$x^2(df)$					62.094(24)***						
혼인 여부											
미혼	4.8	26.2	7.1	11.9	7.1	14.3	14.3	14.3	0.0	100.0	(42)
배우자 있음	23.6	24.4	8.1	4.1	13.4	7.4	14.2	4.5	0.4	100.0	(2,950)
배우자 없음	9.1	36.4	13.6	9.1	18.2	0.0	13.6	0.0	0.0	100.0	(22)
$x^2(df)$					33.450(16)**						
자녀 유무											

구분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자녀의 학업/ 직업적 성취	자녀의 심리적 안정	자녀의 신체적 건강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기타	계	(수)
영유아 부모	21.7	20.1	9.8	3.4	14.0	8.3	17.6	4.8	0.3	100.0	(1,335)
비영유아 부모	24.2	24.8	8.3	6.8	13.1	6.6	10.5	5.1	0.5	100.0	(999)
자녀 없음	24.6	32.8	4.7	2.2	12.4	6.8	12.9	3.4	0.3	100.0	(680)
$x^2(df)$					99.516(16)***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8.2	29.1	10.1	2.5	12.3	7.7	14.6	5.2	0.2	100.0	(829)
400~599만원	23.0	26.4	7.0	4.9	11.7	7.6	14.7	4.4	0.3	100.0	(1,046)
600만원 이상	27.0	19.5	7.8	4.9	15.6	6.9	13.4	4.3	0.5	100.0	(1,139)
$x^2(df)$					60.784(16)***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사. 자녀 교육관

〈표 Ⅱ-2-10〉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그 결과,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의 응답 비율이 30.8%로 가장 높고,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29.0%,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삶’ 15.3%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는 20대 이하, 미혼의 응답자에게서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자녀교육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6.9%, 14.3%로 낮게 나타난 반면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각각 32.2%,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체 응답의 경향과 차이를 보였다.

〈표 Ⅱ-2-10〉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

단위: %(명)

구분	자녀가 명문 대학에 진학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남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삶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	기타	계 (수)
전체	5.3	29.0	9.3	2.9	15.3	30.8	6.9	0.5	100.0 (3,020)
성별									
남자	5.7	27.4	8.0	4.4	15.0	31.0	8.2	0.3	100.0 (1,444)
여자	4.9	30.4	10.6	1.6	15.7	30.5	5.6	0.6	100.0 (1,576)
$x^2(df)$				37.305(7)***					
연령									
20대 이하	5.1	32.2	13.6	6.8	15.3	16.9	8.5	1.7	100.0 (59)
30대	4.5	29.3	8.7	3.2	16.1	29.7	7.7	0.8	100.0 (1,592)
40대	5.9	28.6	9.4	2.6	14.8	32.4	6.1	0.2	100.0 (1,236)
50대 이상	9.8	26.3	14.3	0.8	11.3	34.6	3.0	0.0	100.0 (133)
$x^2(df)$				40.528(21)*					
혼인 여부									
미혼	14.3	26.2	21.4	9.5	14.3	14.3	0.0	0.0	100.0 (42)
배우자 있음	5.2	29.1	9.1	2.8	15.3	30.9	7.0	0.5	100.0 (2,956)
배우자 없음	4.5	18.2	13.6	0.0	22.7	40.9	0.0	0.0	100.0 (22)
$x^2(df)$				31.661(14)**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4.7	29.6	7.4	3.4	15.3	30.9	8.2	0.5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7.1	25.3	10.5	2.6	15.0	33.4	5.8	0.3	100.0 (1,002)
자녀 없음	4.0	33.0	11.5	2.5	15.9	26.6	5.9	0.7	100.0 (681)
$x^2(df)$				43.358(14)***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4	27.7	10.3	3.6	16.3	29.9	7.4	0.4	100.0 (834)
400~599만원	5.2	29.8	9.1	2.6	15.8	30.0	7.0	0.7	100.0 (1,047)
600만원 이상	6.1	29.1	8.9	2.7	14.2	32.1	6.3	0.4	100.0 (1,139)
$x^2(df)$				11.129(14)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과 '열정에 따라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 중 더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선호하는 응답 비율은 49.8%, '열정에 따른 삶'을 선호한다는 26.7%

로 자녀의 경제적인 안정에 더 큰 가치를 둔다는 응답이 많았다.

성별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자녀의 ‘경제적인 안정’, 남성의 경우 ‘열정에 따른 삶’에 대한 선호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 응답자 중 경제적 안정에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 있었다.

〈표 Ⅱ-2-11〉 자녀의 미래에 대한 선호도-경제적 안정 vs 열정에 따른 삶

단위: %(명), 점

구분	경제적 안정 ⇔ 열정에 따른 삶					계 (수)	평균
	1	2	3	4	5		
전체	24.7	25.1	23.5	18.2	8.5	100.0 (3,020)	2.61
성별							
남자	21.5	25.0	24.0	21.1	8.4	100.0 (1,444)	2.70
여자	27.6	25.1	23.1	15.6	8.6	100.0 (1,576)	2.52
$x^2(df)$ / t			24.358(4)***				3.807***
연령							
20대 이하	16.9	22.0	27.1	25.4	8.5	100.0 (59)	2.86
30대	25.6	25.3	23.5	17.3	8.3	100.0 (1,592)	2.57
40대	24.0	24.9	23.9	18.4	8.7	100.0 (1,236)	2.63
50대 이상	23.3	24.8	18.8	24.8	8.3	100.0 (133)	2.70
$x^2(df)$ / F			9.910(12)				1.511
혼인 여부							
미혼	23.8	31.0	26.2	11.9	7.1	100.0 (42)	2.48
배우자 있음	24.7	25.0	23.5	18.3	8.5	100.0 (2,956)	2.61
배우자 없음	27.3	18.2	22.7	22.7	9.1	100.0 (22)	2.68
$x^2(df)$ / F			2.475(8)				.26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2.7	25.1	25.6	17.6	9.1	100.0 (1,337)	2.65
비영유아 부모	26.1	24.6	22.9	19.0	7.5	100.0 (1,002)	2.57
자녀 없음	26.4	25.8	20.6	18.5	8.7	100.0 (681)	2.57
$x^2(df)$ / F			11.821(8)				1.616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7.6	24.7	21.5	16.1	10.2	100.0 (834)	2.57
400~599만원	24.0	25.2	25.6	17.7	7.5	100.0 (1,047)	2.60
600만원 이상	23.2	25.2	23.2	20.4	8.1	100.0 (1,139)	2.65
$x^2(df)$ / F			16.981(8)*				1.123

주 :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경제적 안정에 동의할 경우(1점)~열정에 따른 삶에 동의할 경우(5점)’로 산출한 결과로 점수가 낮을수록 열정에 따른 삶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선호함.

* $p < .05$, *** $p < .001$.

이어서,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 ‘부모로서 권위를 보여주는 것’ 중 선호 정도를 5점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친구 같은 부모’를 선호하는 비율이 74.4%, ‘권위적인 부모’를 선호하는 비율은 7.3%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2.4%는 ‘친구 같은 부모를 선호한다’에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친구 같은 부모를 1점, 권위 있는 부모를 5점으로 하여 동의 정도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미혼, 월 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권위 있는 부모를 선호한다는 응답 경향이 나타났다.

〈표 Ⅱ-2-12〉 부모역할 선호도-친구 같은 부모 vs 권위 있는 부모

단위: %(명), 점

구분	친구		⇔		권위	계 (수)	평균
	1	2	3	4	5		
전체	42.4	32.0	18.3	6.3	1.0	100.0 (3,020)	1.92
성별							
남자	35.2	34.0	20.6	8.9	1.3	100.0 (1,444)	2.07
여자	48.9	30.2	16.2	3.9	0.8	100.0 (1,576)	1.77
$x^2(df)$ / t			76.609(4)***				8.479***
연령							
20대 이하	49.2	20.3	23.7	5.1	1.7	100.0 (59)	1.90
30대	44.0	29.0	20.4	5.7	1.1	100.0 (1,592)	1.91
40대	40.6	35.4	16.1	7.0	0.9	100.0 (1,236)	1.92
50대 이상	36.8	42.9	12.0	6.8	1.5	100.0 (133)	1.93
$x^2(df)$ / F			33.664(12)**				.064
혼인 여부							
미혼	33.3	16.7	31.0	16.7	2.4	100.0 (42)	2.38
배우자 있음	42.4	32.3	18.2	6.1	1.0	100.0 (2,956)	1.91
배우자 없음	54.5	22.7	13.6	9.1	0.0	100.0 (22)	1.77
$x^2(df)$ / F			17.971(8)*				5.131**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42.3	30.2	19.8	6.6	1.1	100.0 (1,337)	1.94
비영유아 부모	40.1	36.1	16.1	6.8	0.9	100.0 (1,002)	1.92
자녀 없음	46.0	29.5	18.6	4.8	1.0	100.0 (681)	1.85
$x^2(df)$ / F			18.826(8)*				1.821
월평균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6.3	27.9	18.9	5.6	1.2	100.0 (834)	1.88
400~599만원	43.0	33.3	17.7	5.1	1.0	100.0 (1,047)	1.88
600만원 이상	39.0	33.8	18.4	7.8	1.0	100.0 (1,139)	1.98
$x^2(df)$ / F			20.302(8)**				4.053*

주 :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친구 같은 부모에 동의할 경우(1점)~권위 있는 부모에 동의할 경우(5점)’로 산출한 결과로 점수가 낮을수록 권위 있는 부모보다는 친구 같은 부모를 선호함.

* $p < .05$, ** $p < .01$, *** $p < .001$.

희망하는 자녀의 최종학력을 조사한 결과, '4년제 대졸'이 54.6%로 절반 이상이었고, '상관없다'가 24.3%,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을 희망 한다'는 응답이 각각 8.7%, 5.5%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고학력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Ⅱ-2-13〉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한 희망

단위: %(명)

구분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석사학위 취득	박사학위 취득	상관없다	계 (수)
전체	2.5	4.4	54.6	8.7	5.5	24.3	100.0 (3,020)
성별							
남자	1.7	4.0	54.1	8.8	6.4	24.9	100.0 (1,444)
여자	3.2	4.8	55.0	8.7	4.6	23.7	100.0 (1,576)
$x^2(df)$			13.339(5)**				
연령							
20대 이하	5.1	6.8	59.3	1.7	0.0	27.1	100.0 (59)
30대	2.4	4.8	51.2	7.5	4.9	29.3	100.0 (1,592)
40대	2.5	4.1	58.4	10.6	6.4	18.0	100.0 (1,236)
50대 이상	3.0	2.3	57.1	9.8	6.0	21.8	100.0 (133)
$x^2(df)$			66.382(15)***				
혼인 여부							
미혼	7.1	4.8	50.0	14.3	11.9	11.9	100.0 (42)
배우자 있음	2.4	4.4	54.6	8.7	5.4	24.5	100.0 (2,956)
배우자 없음	4.5	9.1	54.5	9.1	4.5	18.2	100.0 (22)
$x^2(df)$			13.072(10)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9	4.3	53.8	8.5	4.9	26.6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2.3	4.5	58.3	10.1	7.0	17.9	100.0 (1,002)
자녀 없음	4.0	4.6	50.7	7.3	4.4	29.1	100.0 (681)
$x^2(df)$			48.975(10)***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0	7.9	50.5	4.9	3.8	28.9	100.0 (834)
400~599만원	2.2	4.2	57.8	7.3	4.2	24.4	100.0 (1,047)
600만원 이상	1.8	2.1	54.6	12.9	7.8	20.8	100.0 (1,139)
$x^2(df)$			122.021(10)***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아. 추가 출산 의도

〈표 Ⅱ-2-14〉는 기혼 응답자의 추가 출산 계획을 질문한 결과이다.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68.6%로 대부분이었고, ‘생각 중이다’ 13.7%, ‘출산 계획이 있다’가 11.2%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는 연령, 자녀 유무, 월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해당 없음’ 응답을 제외하면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 비영유아 부모,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2-14〉 (기혼, 자녀 있음) 추가 출산 계획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생각 중	해당없음	계 (수)
전체	11.2	68.6	13.7	6.6	100.0 (2,321)
성별					
남자	12.3	66.4	14.9	6.4	100.0 (1,149)
여자	10.1	70.7	12.5	6.7	100.0 (1,172)
$x^2(df)$		6.686(3)			
연령					
20대 이하	36.4	24.2	36.4	3.0	100.0 (33)
30대	17.6	57.0	21.2	4.3	100.0 (1,081)
40대	5.2	81.1	6.7	7.0	100.0 (1,084)
50대 이상	0.8	72.4	2.4	24.4	100.0 (123)
$x^2(df)$		336.655(9)***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7.1	58.4	19.8	4.7	100.0 (1,330)
비영유아 부모	3.2	82.3	5.5	9.0	100.0 (990)
$x^2(df)$		259.587(3)***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5.3	60.2	18.3	6.2	100.0 (613)
400~599만원	9.8	70.4	12.8	7.1	100.0 (807)
600만원 이상	9.5	72.7	11.3	6.4	100.0 (901)
$x^2(df)$		36.004(6)***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갖고자 하는 자녀 수를 살펴보면 '1명' 81.1%, '2명' 16.2%로 평균 1.22명의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영유아 부모의 평균 자녀수 계획이 1.25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2-15〉 (기혼, 자녀 있음, 추가출산 계획 있는 경우) 자녀수 계획

단위: %(명),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계 (수)	평균
전체	81.1	16.2	2.3	0.4	100.0 (259)	1.22
성별						
남자	80.9	14.9	3.5	0.7	100.0 (141)	1.24
여자	81.4	17.8	0.8	0.0	100.0 (118)	1.19
$x^2(df)$		3.192(3)				.752
연령						
20대 이하	58.3	41.7	0.0	0.0	100.0 (12)	1.42
30대	79.5	17.4	2.6	0.5	100.0 (190)	1.24
40대	91.1	7.1	1.8	0.0	100.0 (56)	1.11
50대 이상	100.0	0.0	0.0	0.0	100.0 (1)	1.00
$x^2(df)$		10.328(9)				1.833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78.9	18.1	2.6	0.4	100.0 (227)	1.25
비영유아 부모	96.9	3.1	0.0	0.0	100.0 (32)	1.03
$x^2(df)$		5.969(3)				5.471*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80.9	18.1	1.1	0.0	100.0 (94)	1.20
400~599만원	78.5	19.0	2.5	0.0	100.0 (79)	1.24
600만원 이상	83.7	11.6	3.5	1.2	100.0 (86)	1.22
$x^2(df)$		5.007(6)				.130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생각 중인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가 39.8%로 가장 높고,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21.8%,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많아서' 20.0% 순으로 상기 세 가지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변인에서 '현재 자녀가 충분해서'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연령이 낮고,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용

의 부담'을 꼽은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 악화'와 '개인시간이 필요해서'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표 Ⅱ-2-16〉 (기혼, 자녀 있음) 자녀 낳을 계획 없으나 생각 중인 경우 해당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 (수)
전체	21.8	5.2	3.7	3.6	39.8	20.0	3.8	2.0	100.0 (1,909)
성별									
남자	23.2	6.0	4.8	2.0	38.7	21.1	2.6	1.6	100.0 (934)
여자	20.5	4.4	2.7	5.1	40.8	19.0	5.0	2.5	100.0 (975)
$x^2(df)$				33.366(7)***					
연령									
20대 이하	40.0	5.0	5.0	10.0	30.0	0.0	0.0	10.0	100.0 (20)
30대	29.9	5.0	5.3	3.9	37.5	9.3	6.7	2.2	100.0 (845)
40대	15.3	5.7	2.5	3.5	42.2	27.6	1.6	1.6	100.0 (952)
50대 이상	10.9	2.2	1.1	1.1	37.0	43.5	1.1	3.3	100.0 (92)
$x^2(df)$				219.681(21)***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8.5	5.2	4.3	3.9	37.3	12.6	6.1	2.1	100.0 (1,040)
비영유아 부모	13.9	5.2	3.0	3.2	42.7	28.9	1.2	2.0	100.0 (869)
$x^2(df)$				144.835(7)***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1.8	5.0	2.3	4.6	35.1	14.6	4.2	2.5	100.0 (481)
400~599만원	20.6	5.5	3.3	2.8	42.9	20.3	2.7	1.9	100.0 (671)
600만원 이상	16.6	5.0	5.0	3.7	39.9	23.2	4.6	1.8	100.0 (757)
$x^2(df)$				60.550(14)***					

주: 1)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2) 교육비 부담 때문에, 3) 직장생활로 바빠서, 4) 건강이 안 좋아서, 5)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6)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많아서, 7) 개인 시간(자기계발, 여가 등)이 필요해서, 8) 기타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결혼 당시 계획했던 자녀 수에 대한 질문 결과를 살펴보면, '2명'이 56.4%로 절반 이상이었고, '1명' 32.1%, '3명' 9.7%로, 평균 1.82명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유일하게 평균 2.17명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계획했다는 응답 결과가 나타났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명을 계획했다는 응답이 54.4%로 가장 높아 전체적인 경향과 차이를 나타냈다.

〈표 Ⅱ-2-17〉 (기혼) 결혼 당시 자녀 계획

단위: %(명),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계 (수)	평균
전체	32.1	56.4	9.7	1.4	0.4	100.0 (2,956)	1.82
성별							
남자	30.9	57.8	9.8	0.9	0.6	100.0 (1,412)	1.83
여자	33.2	55.1	9.7	1.9	0.3	100.0 (1,544)	1.81
x^2(*df*)			8.685(4)				.583
연령							
20대 이하	20.8	52.1	16.7	10.4	0.0	100.0 (48)	2.17
30대	34.9	52.6	11.0	1.3	0.2	100.0 (1,560)	1.79
40대	30.0	59.7	8.4	1.2	0.7	100.0 (1,217)	1.83
50대 이상	21.4	71.0	5.3	2.3	0.0	100.0 (131)	1.89
x^2(*df*)			67.994(12)***				5.364**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6.7	59.2	12.6	1.0	0.5	100.0 (1,330)	1.89
비영유아 부모	24.9	64.6	8.1	2.1	0.2	100.0 (990)	1.88
자녀 없음	54.4	37.6	6.3	1.3	0.5	100.0 (636)	1.56
x^2(*df*)			209.206(8)***				59.271***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1.3	54.9	11.9	1.5	0.4	100.0 (801)	1.85
400~599만원	32.8	56.5	9.4	1.2	0.2	100.0 (1,032)	1.80
600만원 이상	32.0	57.3	8.5	1.6	0.6	100.0 (1,123)	1.82
x^2(*df*)			9.447(8)				1.223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2.03명으로, 항목별로는 '2명'이 66.5%로 높고, '1명' 17.0%, '3명' 13.9% 순이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유무에 따른 응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자녀가 없는 응답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평균 1.88명으로 유자녀 응답자보다 적었고, 연령이 50대 이상인 응답자는 2.23명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많았다.

〈표 Ⅱ-2-18〉 이상적인 자녀 수

단위: %(명),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계 (수)	평균
전체	17.0	66.5	13.9	2.2	0.5	100.0 (3,020)	2.03
성별							
남자	15.9	66.8	15.1	1.5	0.7	100.0 (1,444)	2.04
여자	18.0	66.2	12.8	2.8	0.3	100.0 (1,576)	2.01
$x^2(df)$			14.082(4)**				1.226
연령							
20대 이하	18.6	61.0	13.6	5.1	1.7	100.0 (59)	2.10
30대	18.7	67.4	12.5	1.3	0.2	100.0 (1,592)	1.97
40대	15.7	65.1	15.9	2.7	0.6	100.0 (1,236)	2.07
50대 이상	8.3	70.7	12.8	6.8	1.5	100.0 (133)	2.23
$x^2(df)$			48.325(12)***				10.542***
혼인 여부							
미혼	31.0	61.9	0.0	4.8	2.4	100.0 (42)	1.86
배우자 있음	16.7	66.6	14.1	2.1	0.4	100.0 (2,956)	2.03
배우자 없음	22.7	54.5	13.6	9.1	0.0	100.0 (22)	2.09
$x^2(df)$			21.720(8)**				1.494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4.0	69.8	14.2	1.7	0.3	100.0 (1,337)	2.05
비영유아 부모	13.9	66.9	15.5	3.3	0.5	100.0 (1,002)	2.10
자녀 없음	27.5	59.5	11.0	1.3	0.7	100.0 (681)	1.88
$x^2(df)$			81.260(8)***				22.402***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7.0	66.1	14.0	2.4	0.5	100.0 (834)	2.03
400~599만원	16.5	68.3	13.3	1.4	0.5	100.0 (1,047)	2.01
600만원 이상	17.4	65.1	14.4	2.6	0.4	100.0 (1,139)	2.04
$x^2(df)$			5.593(8)				.457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심각하다’는 응답이 86.3%로 대다수였고,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도 2.0% 있었다. 남성, 연령이 많을수록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편이고, 미혼의 경우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26.2%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응답 비율과 같은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기혼자의 응답 양상과 차이를 보였다.

〈표 Ⅱ-2-19〉 출생아 수 감소 문제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매우 심각한 문제	다소 심각한 문제	별로 심각한 문제 아님	전혀 심각한 문제 아님	모르겠음	계 (수)
전체	51.0	35.3	8.9	2.0	2.8	100.0 (3,020)
성별						
남자	55.9	31.2	9.2	2.1	1.5	100.0 (1,444)
여자	46.6	39.0	8.6	1.9	3.9	100.0 (1,576)
x^2(*df*)			41.813(4)***			
연령						
20대 이하	42.4	32.2	13.6	3.4	8.5	100.0 (59)
30대	49.3	35.0	10.2	2.4	3.1	100.0 (1,592)
40대	52.1	36.7	7.6	1.5	2.1	100.0 (1,236)
50대 이상	65.4	26.3	3.0	2.3	3.0	100.0 (133)
x^2(*df*)			36.615(12)***			
혼인 여부						
미혼	26.2	38.1	26.2	2.4	7.1	100.0 (42)
배우자 있음	51.4	35.4	8.6	2.0	2.7	100.0 (2,956)
배우자 없음	54.5	18.2	18.2	4.5	4.5	100.0 (22)
x^2(*df*)			27.561(8)**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52.7	33.2	9.0	2.1	3.1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53.0	36.1	7.5	1.6	1.8	100.0 (1,002)
자녀 없음	44.9	38.0	10.9	2.5	3.7	100.0 (681)
x^2(*df*)			22.433(8)**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7.2	37.2	9.2	2.3	4.1	100.0 (834)
400~599만원	53.0	33.3	9.2	2.2	2.3	100.0 (1,047)
600만원 이상	52.0	35.6	8.4	1.7	2.3	100.0 (1,139)
x^2(*df*)			13.919(8)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3. 육아행복감에 대한 여론

가. 육아행복감 및 가치

〈표 Ⅱ-3-1〉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을 조사한 결과이다.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에 대한 응답이 38.5%로 가장 높았고,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가 30.4%,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26.4%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응답자가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를 꼽은 비율이 각각 31.6%, 32.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Ⅱ-3-1〉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

단위: %(명)

구분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자녀 돌봄과 지도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기타	계 (수)
전체	38.5	30.4	4.4	26.4	0.2	100.0 (3,020)
성별						
남자	38.9	33.7	6.3	20.8	0.3	100.0 (1,444)
여자	38.2	27.3	2.7	31.6	0.2	100.0 (1,576)
$x^2(df)$		66.471(4)***				
연령						
20대 이하	35.6	32.2	3.4	28.8	0.0	100.0 (59)
30대	38.5	30.3	4.2	26.7	0.3	100.0 (1,592)
40대	38.8	31.1	4.9	25.2	0.1	100.0 (1,236)
50대 이상	38.3	24.1	3.0	33.8	0.8	100.0 (133)
$x^2(df)$		10.691(12)				
혼인 여부						
미혼	33.3	31.0	9.5	26.2	0.0	100.0 (42)
배우자 있음	38.5	30.4	4.3	26.5	0.2	100.0 (2,956)
배우자 없음	50.0	22.7	4.5	22.7	0.0	100.0 (22)
$x^2(df)$		4.282(8)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38.7	31.0	5.2	24.9	0.1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39.6	31.5	4.1	24.7	0.1	100.0 (1,002)

구분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자녀 돌봄과 지도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기타	계 (수)
자녀 없음	36.6	27.6	3.2	32.0	0.6	100.0 (681)
$x^2(df)$		23.035(8)**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7.8	30.1	5.6	26.3	0.2	100.0 (834)
400~599만원	38.6	30.2	3.5	27.6	0.1	100.0 (1,047)
600만원 이상	39.1	30.8	4.3	25.5	0.4	100.0 (1,139)
$x^2(df)$		7.518(8)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표 Ⅱ-3-2〉는 자녀 양육은 행복한 일, 육체적으로 힘든 일,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일,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아이를 키우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4점 만점에 3.26점으로 가장 동의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미혼,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이 키우기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다'에 대해서는 평균 3.11점의 동의 수준을 보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이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이 키우기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2.78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이에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이 키우기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에 대해서는 평균 3.12점의 동의 수준이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없는 경우,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Ⅱ-3-2〉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4점 만점)

단위: 점, (명)

구분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 된다고 생각한다	(수)
전체	3.26	3.11	2.78	3.12	(3,020)
성별					
남자	3.26	2.94	2.62	3.00	(1,444)
여자	3.27	3.26	2.93	3.24	(1,576)
t	-.426	-12.458	-11.036	-9.640	
연령					
20대 이하	3.15	3.31	2.92	3.24	(59)
30대	3.26	3.22	2.89	3.19	(1,592)
40대	3.26	2.97	2.66	3.05	(1,236)
50대 이상	3.39	2.86	2.47	2.98	(133)
F	2.348	36.766***	28.984***	11.648***	
혼인 여부					
미혼	2.81	3.00	2.71	2.90	(42)
배우자 있음	3.27	3.11	2.78	3.13	(2,956)
배우자 없음	3.32	2.91	2.82	3.23	(22)
F	10.546***	1.378	.179	2.36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3.34	3.16	2.76	3.07	(1,337)
비영유아 부모	3.31	2.91	2.62	3.04	(1,002)
자녀 없음	3.04	3.29	3.05	3.35	(681)
F	52.626***	71.746***	65.062***	48.806***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24	3.12	2.78	3.17	(834)
400~599만원	3.27	3.10	2.78	3.13	(1,047)
600만원 이상	3.27	3.10	2.78	3.08	(1,139)
F	1.116	.304	.039	4.073**	

주 :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1$, *** $p < .001$.

나. 양육의 경제적 가치

〈표 Ⅱ-3-3〉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월평균 얼마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는 평균 월 270.21만원 이었다. 구간별로는 '200~300만원 미만'의 응답이 35.4%로 가장 높고, '300~400만원 미만' 26.8%, '100~200만원 미만' 20.1%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응답한 경향이 있었고, 영유아 부모는 평균 282.59만원인 반면 비영유아 부모는 247.95만원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3-3〉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월 평균)

단위: %(명), 만원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계	(수)	평균
전체	4.3	20.1	35.4	26.8	4.2	9.2	100.0	(2,953)	270.21
성별									
남자	3.9	24.5	34.6	24.1	4.2	8.8	100.0	(1,415)	275.81
여자	4.7	16.1	36.1	29.3	4.3	9.6	100.0	(1,538)	265.06
$x^2(df)$			35.752(5)***						.917
연령									
20대 이하	8.8	17.5	36.8	19.3	3.5	14.0	100.0	(57)	430.04
30대	3.8	17.0	35.7	28.8	4.1	10.5	100.0	(1,564)	281.79
40대	4.5	23.4	35.2	24.9	4.4	7.7	100.0	(1,210)	251.91
50대 이상	7.4	28.7	31.1	23.0	4.9	4.9	100.0	(122)	228.56
$x^2(df)$			42.029(15)***						7.572***
혼인 여부									
미혼	25.0	25.0	20.0	15.0	2.5	12.5	100.0	(40)	200.45
배우자 있음	4.0	20.1	35.7	26.8	4.2	9.2	100.0	(2,892)	271.18
배우자 없음	4.8	19.0	19.0	42.9	9.5	4.8	100.0	(21)	269.52
$x^2(df)$			51.950(10)***						.97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3.6	17.1	34.9	29.6	3.8	11.1	100.0	(1,313)	282.59
비영유아 부모	4.3	24.3	35.9	24.0	4.8	6.6	100.0	(974)	247.95
자녀 없음	5.7	20.0	35.4	25.4	4.2	9.3	100.0	(666)	278.35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계	(수)	평균
$x^2(df)$			40.487(10)***						3.604*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6.0	19.7	34.1	27.4	4.0	8.7	100.0	(827)	271.79
400~599만원	4.4	19.9	35.7	27.2	4.9	7.8	100.0	(1,033)	262.29
600만원 이상	2.9	20.6	36.0	25.9	3.8	10.9	100.0	(1,093)	276.50
$x^2(df)$			19.499(10)*						.544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다. 양육의 책임

〈표 Ⅱ-3-4〉는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와 국가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한다'라는 응답이 70.3%로 가장 높았고,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는 부모가 부담한다'라는 응답도 19.3%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에게서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3-4〉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기타	계	(수)
전체	7.2	70.3	19.3	3.0	0.1	100.0	(3,020)
성별							
남자	7.6	67.5	21.5	3.2	0.1	100.0	(1,444)
여자	6.9	72.8	17.3	2.9	0.1	100.0	(1,576)
$x^2(df)$			10.683(4)*				
연령							
20대 이하	10.2	64.4	20.3	5.1	0.0	100.0	(59)
30대	7.9	67.5	21.2	3.4	0.1	100.0	(1,592)
40대	6.6	73.2	17.4	2.7	0.2	100.0	(1,236)
50대 이상	4.5	78.9	15.0	1.5	0.0	100.0	(133)
$x^2(df)$			18.592(12)				

구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기타	계 (수)
혼인 여부						
미혼	4.8	57.1	31.0	7.1	0.0	100.0 (42)
배우자 있음	7.3	70.6	19.0	3.0	0.1	100.0 (2,956)
배우자 없음	0.0	54.5	40.9	4.5	0.0	100.0 (22)
$x^2(df)$			14.808(8)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6.7	68.1	21.8	3.1	0.3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6.4	75.0	16.7	2.0	0.0	100.0 (1,002)
자녀 없음	9.4	67.7	18.5	4.4	0.0	100.0 (681)
$x^2(df)$			31.421(8)***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7.2	68.9	20.0	3.7	0.1	100.0 (834)
400~599만원	7.2	71.3	19.2	2.2	0.1	100.0 (1,047)
600만원 이상	7.3	70.2	19.0	3.3	0.2	100.0 (1,139)
$x^2(df)$			4.994(8)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자녀 양육이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아기(0~2세)’가 37.8%로 가장 높았고, ‘유아기(3~5세)’가 25.4%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가 가장 힘들다는 응답이 전체의 63.2%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비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영유아 시기’를 꼽은 응답 비중이 53.0%로 영유아 부모, 자녀가 없는 응답자(67.1%)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 연령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성별, 연령, 월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Ⅱ-3-5〉 자녀 양육이 가장 힘든 시기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임신기	영아 (0~2세)	유아 (3~5세)	초등 저학년 (1~3학년)	초등 고학년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모르겠음	계	(수)
전체	1.3	37.8	25.4	10.9	4.4	7.3	6.5	6.4	100.0	(3,020)
성별										
남자	1.7	38.1	25.8	11.0	4.4	5.7	8.0	5.3	100.0	(1,444)
여자	1.0	37.6	25.0	10.9	4.3	8.8	5.0	7.4	100.0	(1,576)
$x^2(df)$				28.588(7)***						
연령										
20대 이하	1.7	30.5	28.8	11.9	1.7	8.5	3.4	13.6	100.0	(59)
30대	1.5	41.7	25.1	10.7	3.5	5.5	4.3	7.6	100.0	(1,592)
40대	1.2	34.5	25.9	10.6	5.3	9.0	8.7	4.8	100.0	(1,236)
50대 이상	0.0	24.8	22.6	15.8	6.8	12.8	12.8	4.5	100.0	(133)
$x^2(df)$				91.749(21)***						
혼인 여부										
미혼	0.0	21.4	35.7	16.7	4.8	9.5	7.1	4.8	100.0	(42)
배우자 있음	1.4	38.1	25.2	10.7	4.3	7.3	6.5	6.5	100.0	(2,956)
배우자 없음	0.0	31.8	22.7	27.3	9.1	4.5	0.0	4.5	100.0	(22)
$x^2(df)$				16.152(14)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9	42.0	26.8	10.9	3.3	4.9	4.6	6.6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1.0	30.1	22.9	13.4	6.9	11.3	10.0	4.5	100.0	(1,002)
자녀 없음	2.6	40.8	26.3	7.3	2.8	6.2	5.0	9.0	100.0	(681)
$x^2(df)$				149.049(14)***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4	34.5	25.4	8.8	5.2	7.9	7.2	9.6	100.0	(834)
400~599만원	1.1	39.4	24.9	12.1	4.2	7.1	5.2	6.0	100.0	(1,047)
600만원 이상	1.4	38.8	25.7	11.4	4.0	7.1	7.1	4.5	100.0	(1,139)
$x^2(df)$				35.571(14)**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장소나 업소를 뜻하는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 의견은 49.9%로 절반 정도였고, ‘반대’는 26.6%이었다. 특히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게 노키즈존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64.5%로 나타나 자녀가 있는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노키즈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표 Ⅱ-3-6〉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모르겠음	계 (수)
전체	49.9	26.6	23.5	100.0 (3,020)
성별				
남자	49.5	28.6	21.9	100.0 (1,444)
여자	50.2	24.8	25.0	100.0 (1,576)
$x^2(df)$		7.251(2)*		
연령				
20대 이하	57.6	27.1	15.3	100.0 (59)
30대	51.2	24.4	24.4	100.0 (1,592)
40대	47.8	29.3	22.9	100.0 (1,236)
50대 이상	49.6	27.8	22.6	100.0 (133)
$x^2(df)$		11.020(6)		
혼인 여부				
미혼	54.8	23.8	21.4	100.0 (42)
배우자 있음	49.7	26.6	23.6	100.0 (2,956)
배우자 없음	59.1	31.8	9.1	100.0 (22)
$x^2(df)$		2.983(4)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43.9	31.8	24.3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47.9	29.0	23.1	100.0 (1,002)
자녀 없음	64.5	12.9	22.6	100.0 (681)
$x^2(df)$		103.702(4)***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7.1	28.7	24.2	100.0 (834)
400~599만원	49.2	25.7	25.1	100.0 (1,047)
600만원 이상	52.5	26.0	21.5	100.0 (1,139)
$x^2(df)$		8.022(4)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가.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표 Ⅱ-4-1〉은 국가차원에서 육아 정책을 설계하는데 두어야 할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지원’에 대한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30.2%,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17.3%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 여성, 자녀가 없는 경우,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4-1〉 국가 차원 육아정책 설계 시 우선 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지원	아이의 행복	기타	계 (수)
전체	30.2	17.3	45.6	6.4	0.5	100.0 (3,020)
성별						
남자	25.6	18.9	49.0	6.1	0.4	100.0 (1,444)
여자	34.5	15.9	42.4	6.6	0.6	100.0 (1,576)
$x^2(df)$			31.938(4)***			
연령						
20대 이하	23.7	23.7	45.8	6.8	0.0	100.0 (59)
30대	33.1	15.7	44.7	5.8	0.7	100.0 (1,592)
40대	26.9	18.9	46.6	7.2	0.4	100.0 (1,236)
50대 이상	28.6	19.5	46.6	5.3	0.0	100.0 (133)
$x2(df)$			20.801(12)			
혼인 여부						
미혼	26.2	33.3	35.7	4.8	0.0	100.0 (42)
배우자 있음	30.3	17.1	45.8	6.3	0.5	100.0 (2,956)
배우자 없음	27.3	13.6	36.4	22.7	0.0	100.0 (22)
$x^2(df)$			17.925(8)*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31.4	16.7	44.9	6.2	0.8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25.7	21.1	46.0	7.1	0.1	100.0 (1,002)

구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지원	아이의 행복	기타	계 (수)
자녀 없음	34.4	13.1	46.4	5.6	0.6	100.0 (681)
$x^2(df)$			34.161(8)***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5.3	17.7	48.8	7.0	1.2	100.0 (834)
400~599만원	30.9	14.4	48.0	6.3	0.3	100.0 (1,047)
600만원 이상	33.1	19.7	41.0	6.0	0.3	100.0 (1,139)
$x^2(df)$			37.794(8)***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정부의 재정적인 육아 지원 설계에 대한 우선순위 항목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6%가 '0~5세 무상보육·유아교육 이행'이라고 응답하였고,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에 대한 응답은 37.0%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0~5세 무상보육·유아교육 이행'이 우선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고, 50대 이상, 비영유아 부모는 '국가 개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아 전반적인 응답 경향과 차이를 보였다.

〈표 Ⅱ-4-2〉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 시 우선 순위

단위: %(명)

구분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	모르겠음	기타	계 (수)
전체	37.0	51.6	9.2	2.2	100.0 (3,017)
성별					
남자	36.2	54.7	7.4	1.7	100.0 (1,443)
여자	37.8	48.7	10.8	2.7	100.0 (1,574)
$x^2(df)$		19.206(3)***			
연령					
20대 이하	23.7	59.3	15.3	1.7	100.0 (59)
30대	34.0	55.1	8.8	2.1	100.0 (1,590)
40대	40.2	47.7	9.6	2.6	100.0 (1,235)
50대 이상	50.4	42.1	7.5	0.0	100.0 (133)
$x^2(df)$		34.000(9)***			

구분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	모르겠음	기타	계 (수)
혼인 여부					
미혼	23.8	64.3	11.9	0.0	100.0 (42)
배우자 있음	37.2	51.4	9.1	2.2	100.0 (2,953)
배우자 없음	40.9	45.5	9.1	4.5	100.0 (22)
$x^2(df)$		5.392(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33.6	56.8	7.6	2.0	100.0 (1,334)
비영유아 부모	44.2	41.8	10.8	3.2	100.0 (1,002)
자녀 없음	33.2	55.7	10.0	1.2	100.0 (681)
$x^2(df)$		63.662(6)***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8.2	48.3	11.0	2.5	100.0 (833)
400~599만원	38.6	50.1	9.2	2.1	100.0 (1,046)
600만원 이상	34.7	55.4	7.8	2.1	100.0 (1,138)
$x^2(df)$		13.959(6)*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표 Ⅱ-4-3〉은 2019년에 개정된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이다. ‘잘 노는 것은 미래사회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41.7%로 많았고,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다’는 응답도 25.4%이었다. 반면 ‘놀기만 하면 초등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와 ‘유아들의 전반적인 학습능력이 저하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의견에도 각 14.6%, 13.1%가 동의하였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잘 노는 것은 미래사회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다)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자녀 유무와 월 가구 소득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Ⅱ-4-3〉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잘 노는 것은 미래사회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놀기만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유아들의 전반적인 학습능력이 저하되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다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다	기타	모르겠다	계 (수)
전체	41.7	14.6	13.1	25.4	0.5	4.8	100.0 (3,020)
성별							
남자	38.6	15.0	17.2	24.6	0.3	4.3	100.0 (1,444)
여자	44.4	14.3	9.4	26.1	0.6	5.3	100.0 (1,576)
$x^2(df)$			44.058(5)***				
연령							
20대 이하	39.0	15.3	5.1	33.9	1.7	5.1	100.0 (59)
30대	41.0	15.6	12.4	25.8	0.4	4.7	100.0 (1,592)
40대	42.2	13.4	14.6	24.4	0.4	5.1	100.0 (1,236)
50대 이상	46.6	12.8	11.3	25.6	0.8	3.0	100.0 (133)
$x^2(df)$			15.340(15)				
혼인 여부							
미혼	33.3	19.0	23.8	21.4	0.0	2.4	100.0 (42)
배우자 있음	41.8	14.5	12.8	25.5	0.5	4.8	100.0 (2,956)
배우자 없음	36.4	13.6	31.8	13.6	0.0	4.5	100.0 (22)
$x^2(df)$			13.479(10)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41.1	15.5	13.4	25.7	0.6	3.7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42.5	14.1	14.1	24.9	0.5	4.0	100.0 (1,002)
자녀 없음	41.4	13.7	11.2	25.6	0.1	8.1	100.0 (681)
$x^2(df)$			26.255(10)**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1.7	15.0	10.9	25.3	0.4	6.7	100.0 (834)
400~599만원	40.9	14.0	13.1	27.2	0.7	4.1	100.0 (1,047)
600만원 이상	42.3	14.8	14.7	23.7	0.4	4.0	100.0 (1,139)
$x^2(df)$			18.942(10)*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이어서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54.4%로 절반 이상이었다. 반면 ‘국공립 기관의 확대는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해칠 것 같다’와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각각 15.3%, 12.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미혼의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 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미혼인 응답자가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3.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Ⅱ-4-4〉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국공립 기관의 확대는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해칠 것 같다.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일 것 같다.	국공립 기관을 확대하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40%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기타	계 (수)
전체	54.4	15.3	12.6	13.2	4.5	100.0 (3,020)
성별						
남자	53.9	18.8	13.0	11.5	2.8	100.0 (1,444)
여자	54.9	12.1	12.2	14.8	6.1	100.0 (1,576)
$x^2(df)$			47.834(4)***			
연령						
20대 이하	47.5	16.9	16.9	15.3	3.4	100.0 (59)
30대	53.7	14.9	12.2	14.3	5.0	100.0 (1,592)
40대	54.7	15.3	13.2	12.5	4.3	100.0 (1,236)
50대 이상	63.2	19.5	9.8	6.0	1.5	100.0 (133)
$x^2(df)$			17.531(12)			
혼인 여부						
미혼	23.8	21.4	35.7	14.3	4.8	100.0 (42)
배우자 있음	54.8	15.2	12.3	13.2	4.5	100.0 (2,956)
배우자 없음	59.1	18.2	9.1	13.6	0.0	100.0 (22)
$x^2(df)$			27.908(8)***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54.6	16.8	11.4	12.7	4.5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53.9	14.5	14.9	12.9	3.9	100.0 (1,002)

구분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국공립 기관의 확대는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해칠 것 같다.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일 것 같다.	국공립 기관을 확대하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40%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기타	계 (수)
자녀 없음	54.8	13.5	11.6	14.7	5.4	100.0 (681)
$x^2(df)$			13.842(8)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53.8	15.6	9.8	13.9	6.8	100.0 (834)
400~599만원	55.1	15.6	11.9	13.6	3.8	100.0 (1,047)
600만원 이상	54.2	14.8	15.2	12.4	3.4	100.0 (1,139)
$x^2(df)$			27.014(8)**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운영되는 보육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45.6%는 '담임 교사와 전담 교사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고, '담임 교사 업무 부담이 줄어서 보육의 질이 제고될 것이다'가 17.1%,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방안이다' 12.9% 순이었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연령, 자녀 유무, 월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Ⅱ-4-5〉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담임교사의 업무가 줄어들 것이다	담임교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서 보육의 질이 제고될 것이다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영유아들이 일과 중 여러 교사를 만나게 되어 혼란스러울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방안이다	기타	모르겠다	계 (수)
전체	10.2	17.1	45.6	9.8	12.9	0.4	3.9	100.0 (3,020)
성별								
남자	11.3	17.2	43.3	10.7	13.2	0.4	3.9	100.0 (1,444)
여자	9.3	17.1	47.7	9.0	12.8	0.4	3.8	100.0 (1,576)
$x^2(df)$			8.605(6)					
연령								
20대 이하	1.7	16.9	50.8	8.5	10.2	0.0	11.9	100.0 (59)

구분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담임교사의 업무가 줄어들 것이다	담임교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서 보육의 질이 제고될 것이다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영유아들이 일과 중 여러 교사를 만나게 되어 혼란스러울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방안이다	기타	모르겠다	계 (수)
30대	9.2	17.5	45.2	11.1	12.9	0.4	3.7	100.0 (1,592)
40대	12.1	17.4	45.6	8.3	12.7	0.4	3.6	100.0 (1,236)
50대 이상	9.8	10.5	47.4	10.5	16.5	0.8	4.5	100.0 (133)
x^2(*df*)			32.253(18)*					
혼인 여부								
미혼	14.3	14.3	33.3	23.8	9.5	0.0	4.8	100.0 (42)
배우자 있음	10.1	17.2	45.8	9.5	13.0	0.4	3.9	100.0 (2,956)
배우자 없음	18.2	9.1	36.4	22.7	13.6	0.0	0.0	100.0 (22)
x^2(*df*)			18.875(12)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0.0	18.9	44.7	10.8	11.5	0.6	3.4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11.5	17.3	44.4	10.2	13.4	0.4	2.9	100.0 (1,002)
자녀 없음	8.8	13.4	48.9	7.3	15.1	0.1	6.3	100.0 (681)
x^2(*df*)			39.814(12)***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2	15.2	43.4	11.3	12.7	0.5	6.7	100.0 (834)
400~599만원	9.4	19.1	46.2	9.1	12.7	0.5	3.1	100.0 (1,047)
600만원 이상	11.1	16.7	46.5	9.5	13.3	0.4	2.5	100.0 (1,139)
x^2(*df*)			34.373(12)***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나. 아동학대 관련 의견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장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28.9%,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 환경 개선’ 16.6%, ‘영유아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견 노력’ 13.9%,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1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영유아 부모의 경우 처벌 강화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성별, 연령, 자녀 유무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Ⅱ-4-6〉 아동학대 관련 정부가 비중을 두어야 할 사항

단위: %(명)

구분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 확대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아동 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지속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 과정 강화	기타	계 (수)
전체	12.0	13.9	5.8	28.9	6.9	16.6	8.0	7.2	0.7	100.0 (3,020)
성별										
남자	13.2	13.0	6.0	22.8	8.9	17.8	9.6	8.0	0.8	100.0 (1,444)
여자	10.9	14.8	5.6	34.5	5.1	15.5	6.5	6.5	0.6	100.0 (1,576)
$\chi^2(df)$					71.142(8)***					
연령										
20대 이하	8.5	11.9	5.1	42.4	6.8	10.2	5.1	10.2	0.0	100.0 (59)
30대	10.1	13.3	6.0	32.3	6.5	16.6	7.7	6.9	0.6	100.0 (1,592)
40대	14.2	15.0	5.9	24.4	6.9	17.0	8.2	7.5	0.8	100.0 (1,236)
50대 이상	15.0	12.0	3.0	23.3	12.0	16.5	11.3	6.0	0.8	100.0 (133)
$\chi^2(df)$					47.491(24)**					
혼인 여부										
미혼	14.3	14.3	11.9	19.0	14.3	9.5	9.5	7.1	0.0	100.0 (42)
배우자 있음	12.0	14.0	5.6	29.0	6.8	16.7	8.0	7.2	0.7	100.0 (2,956)
배우자 없음	9.1	9.1	18.2	31.8	4.5	13.6	9.1	4.5	0.0	100.0 (22)
$\chi^2(df)$					16.621(1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0.1	13.9	4.6	31.3	7.3	17.6	7.5	7.0	0.6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14.6	14.4	6.2	25.5	6.6	15.7	8.8	7.8	0.5	100.0 (1,002)
자녀 없음	11.9	13.4	7.5	28.9	6.6	16.2	7.9	6.6	1.0	100.0 (681)
$\chi^2(df)$					29.143(16)*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1.5	12.2	5.8	31.7	6.4	15.2	8.6	7.4	1.2	100.0 (834)
400~599만원	11.7	15.6	5.1	28.7	6.2	16.5	7.6	8.2	0.3	100.0 (1,047)
600만원 이상	12.6	13.7	6.5	27.0	8.0	17.7	7.9	6.1	0.6	100.0 (1,139)
$\chi^2(df)$					24.928(16)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의견

영유아 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조사한 1순위 결과,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처질까봐’와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가 각각 26.9%, 25.5%로 전체 응답의 52.4%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하원 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18.9%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처질까봐’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과 전체의 응답 경향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그밖에 연령과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Ⅱ-4-7〉 영유아 사교육 이유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처질까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특별활동만으로는 부족해서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계 (수)
전체	2.9	10.0	25.5	26.9	6.2	9.0	18.9	0.5	100.0 (3,014)
성별									
남자	3.4	9.6	21.4	29.1	7.6	10.0	18.4	0.5	100.0 (1,442)
여자	2.5	10.3	29.3	24.9	4.9	8.1	19.5	0.4	100.0 (1,572)
$x^2(df)$				37.718(7)***					
연령									
20대 이하	1.7	11.9	25.4	27.1	6.8	5.1	20.3	1.7	100.0 (59)
30대	3.0	10.3	23.7	26.8	6.0	8.8	20.8	0.7	100.0 (1,589)
40대	2.8	9.7	28.3	25.6	6.4	9.7	17.3	0.2	100.0 (1,233)
50대 이상	3.8	9.0	21.8	40.6	6.0	6.8	12.0	0.0	100.0 (133)
$x^2(df)$				35.263(21)*					
혼인 여부									
미혼	4.8	14.3	19.0	19.0	16.7	11.9	14.3	0.0	100.0 (42)
배우자 있음	2.9	9.9	25.7	27.1	6.1	8.9	18.9	0.5	100.0 (2,950)
배우자 없음	4.5	13.6	18.2	22.7	0.0	13.6	27.3	0.0	100.0 (22)
$x^2(df)$				15.541(14)					
자녀 유무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쳐질까 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특별활동 만으로는 부족해서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계 (수)
영유아 부모	3.1	11.2	25.6	22.6	6.2	9.6	21.1	0.6	100.0 (1,334)
비영유아 부모	3.6	9.2	28.0	27.5	5.7	9.5	16.1	0.3	100.0 (999)
자녀 없음	1.6	8.7	21.9	34.5	6.8	7.2	18.9	0.4	100.0 (681)
$x^2(df)$				51.843(14)***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	9.0	25.8	27.0	7.6	7.1	20.0	0.8	100.0 (832)
400~599만원	3.2	9.7	24.5	28.2	5.7	9.7	18.7	0.4	100.0 (1,045)
600만원 이상	2.9	11.0	26.3	25.7	5.5	9.9	18.5	0.3	100.0 (1,137)
$x^2(df)$				17.292(14)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이어서, 영유아 대상의 사교육 과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는 의견이 82.6%로 월등히 높았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경우 사교육 과열이 계속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86.2%로 높았고, 반면 미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8.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4-8〉 사교육 과열 현상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 (수)
전체	82.6	10.2	7.3	100.0 (3,020)
성별				
남자	78.6	14.1	7.3	100.0 (1,444)
여자	86.2	6.5	7.2	100.0 (1,576)
$x^2(df)$		48.039(2)***		
연령				
20대 이하	69.5	16.9	13.6	100.0 (59)
30대	83.0	10.2	6.8	100.0 (1,592)
40대	82.3	10.2	7.5	100.0 (1,236)
50대 이상	86.5	6.0	7.5	100.0 (133)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 (수)
$x^2(df)$		10.302(6)		
혼인 여부				
미혼	64.3	28.6	7.1	100.0 (42)
배우자 있음	82.9	9.8	7.2	100.0 (2,956)
배우자 없음	68.2	18.2	13.6	100.0 (22)
$x^2(df)$		19.237(4)**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82.1	11.1	6.7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83.6	9.5	6.9	100.0 (1,002)
자녀 없음	81.9	9.3	8.8	100.0 (681)
$x^2(df)$		5.450(4)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81.9	9.7	8.4	100.0 (834)
400~599만원	82.2	9.3	8.5	100.0 (1,047)
600만원 이상	83.4	11.3	5.3	100.0 (1,139)
$x^2(df)$		12.602(4)*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라. 세금 추가 부담 의사

영유아(0~5세)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할 생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없다'는 의견이 43.9%, '있다'는 의견이 35.7%로 전반적으로 추가 세금 부과에 부정적인 응답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남성, 영유아 부모의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전체 응답의 경향과 차이를 보였고, 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도 세금 추가 부담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Ⅱ-4-9〉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수)
전체	35.7	43.9	20.4	100.0 (3,020)
성별				
남자	43.8	40.6	15.7	100.0 (1,444)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수)
여자	28.3	46.9	24.8	100.0 (1,576)
$x^2(df)$		88.284(2)***		
연령				
20대 이하	23.7	44.1	32.2	100.0 (59)
30대	36.8	42.1	21.0	100.0 (1,592)
40대	35.1	46.0	18.9	100.0 (1,236)
50대 이상	33.1	44.4	22.6	100.0 (133)
$x^2(df)$		11.794(6)		
혼인 여부				
미혼	26.2	57.1	16.7	100.0 (42)
배우자 있음	35.9	43.6	20.5	100.0 (2,956)
배우자 없음	27.3	54.5	18.2	100.0 (22)
$x^2(df)$		4.190(4)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42.4	39.3	18.2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31.8	48.5	19.7	100.0 (1,002)
자녀 없음	28.2	46.0	25.8	100.0 (681)
$x^2(df)$		56.798(4)***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0.9	43.2	25.9	100.0 (834)
400~599만원	33.0	46.5	20.5	100.0 (1,047)
600만원 이상	41.7	42.0	16.3	100.0 (1,139)
$x^2(df)$		43.311(4)***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세금 추가 부담 의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다’가 29.6%,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27.5%,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는다’가 22.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거나 비영유아 부모인 경우에는 ‘관련 정책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Ⅱ-4-10〉 세금 추가 부담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음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	기타	계 (수)
전체	22.3	14.8	27.5	29.6	3.7	2.2	100.0 (1,325)
성별							
남자	25.3	14.3	27.6	26.5	3.9	2.4	100.0 (586)
여자	19.9	15.2	27.3	32.1	3.5	2.0	100.0 (739)
$x^2(df)$			8.213(5)				
연령							
20대 이하	15.4	15.4	26.9	34.6	7.7	0.0	100.0 (26)
30대	25.6	13.0	25.9	30.0	3.9	1.6	100.0 (671)
40대	19.3	17.2	27.9	28.8	3.5	3.2	100.0 (569)
50대 이상	15.3	11.9	40.7	30.5	1.7	0.0	100.0 (59)
$x^2(df)$			23.490(15)				
혼인 여부							
미혼	29.2	16.7	12.5	29.2	12.5	0.0	100.0 (24)
배우자 있음	22.3	14.7	27.5	29.6	3.6	2.2	100.0 (1,289)
배우자 없음	0.0	25.0	50.0	25.0	0.0	0.0	100.0 (12)
$x^2(df)$			14.711(10)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3.0	9.7	30.8	31.7	3.2	1.5	100.0 (526)
비영유아 부모	20.4	15.8	25.9	30.9	3.7	3.3	100.0 (486)
자녀 없음	24.0	21.7	24.3	24.0	4.5	1.6	100.0 (313)
$x^2(df)$			34.328(10)***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1.9	15.3	26.7	29.2	5.0	1.9	100.0 (360)
400~599만원	23.0	13.6	28.7	28.1	3.9	2.7	100.0 (487)
600만원 이상	21.8	15.7	26.8	31.4	2.5	1.9	100.0 (478)
$x^2(df)$			6.705(10)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마.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표 Ⅱ-4-11〉은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우선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이다. 그 결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이 24.2%로 가장 높았고, '보육·교육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8.2%,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상' 13.5%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제도 정책 및 휴직 시 소득 보장'과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부모는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 등의 비용 지원단가 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었다.

〈표 Ⅱ-4-11〉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수)
전체	24.2	13.5	12.5	18.2	9.7	2.9	12.3	1.1	5.6	100.0 (2,974)
성별										
남자	26.5	15.4	14.0	16.1	9.7	3.0	10.2	1.1	3.9	100.0 (1,426)
여자	22.0	11.8	11.1	20.2	9.7	2.8	14.2	1.0	7.2	100.0 (1,548)
$x^2(df)$	48.271(8)***									
연령										
20대 이하	19.0	13.8	13.8	15.5	8.6	8.6	13.8	0.0	6.9	100.0 (58)
30대	21.6	15.2	13.6	16.2	9.2	3.4	13.5	1.3	5.9	100.0 (1,574)
40대	26.8	11.8	11.5	20.8	10.2	2.1	10.7	.8	5.2	100.0 (1,215)
50대 이상	33.1	7.9	7.1	19.7	11.8	1.6	11.8	1.6	5.5	100.0 (127)
$x^2(df)$	55.967(24)***									
혼인 여부										
미혼	16.7	19.0	14.3	19.0	11.9	4.8	4.8	2.4	7.1	100.0 (42)
배우자 있음	24.3	13.5	12.3	18.3	9.7	2.9	12.4	1.0	5.6	100.0 (2,912)
배우자 없음	15.0	5.0	30.0	10.0	5.0	5.0	20.0	5.0	5.0	100.0 (20)
$x^2(df)$	17.735(1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0.5	16.9	14.6	17.5	9.1	3.3	12.3	1.1	4.8	100.0 (1,323)
비영유아 부모	28.5	10.5	10.2	21.1	10.3	1.8	10.9	1.1	5.6	100.0 (982)
자녀 없음	25.1	11.2	11.7	15.5	10.2	3.9	14.3	.9	7.2	100.0 (669)
$x^2(df)$	68.340(16)***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수)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5.0	18.4	13.1	16.4	8.3	2.3	9.0	1.5	5.9	100.0 (809)
400~599만원	23.6	13.2	12.2	18.8	10.3	3.9	12.1	.8	5.2	100.0 (809)
600만원 이상	24.1	10.3	12.3	19.0	10.2	2.5	14.9	1.1	5.7	100.0 (1,131)
$x^2(df)$				49.001(16)***						

주 : 1) ①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②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상 ③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④보육·교육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⑤시간연장형(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보육,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⑥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⑦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⑧육아정보·상담 제공 ⑨유연근무제 확대(시차출근제, 단시간근로 등)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정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가 59.6%,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가 26.5%로, 전체 응답자의 86.1%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2.5%이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 50대 이상, 기혼자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미혼의 경우는 42.8%가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응답하여 기혼자의 응답 경향과 차이를 보였다.

〈표 Ⅱ-4-12〉 정부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함	별로 지원할 필요 없음	전혀 지원할 필요 없음	모르겠음	계 (수)
전체	26.5	59.6	9.8	2.7	1.4	100.0 (3,004)
성별						
남자	30.4	53.2	11.9	3.3	1.2	100.0 (1,439)
여자	23.0	65.4	7.9	2.2	1.5	100.0 (1,565)
$x^2(df)$			50.236(4)**			
연령						
20대 이하	25.9	60.3	6.9	1.7	5.2	100.0 (58)
30대	30.9	55.3	10.1	2.4	1.3	100.0 (1,583)
40대	22.2	63.4	10.1	3.2	1.2	100.0 (1,231)
50대 이상	15.2	75.0	5.3	3.0	1.5	100.0 (132)
$x^2(df)$			51.357(12)***			
혼인 여부						
미혼	16.7	38.1	33.3	9.5	2.4	100.0 (42)

구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함	별로 지원할 필요 없음	전혀 지원할 필요 없음	모르겠음	계 (수)
배우자 있음	26.7	59.9	9.5	2.6	1.3	100.0 (2,942)
배우자 없음	20.0	60.0	10.0	5.0	5.0	100.0 (20)
$x^2(df)$			39.083(8)***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33.2	54.1	9.2	2.1	1.4	100.0 (1,330)
비영유아 부모	16.9	68.4	10.1	3.3	1.2	100.0 (998)
자녀 없음	27.5	57.2	10.5	3.1	1.6	100.0 (676)
$x^2(df)$			82.836(8)***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0.9	55.5	8.8	2.0	2.8	100.0 (831)
400~599만원	24.5	62.4	9.8	2.6	.7	100.0 (1,043)
600만원 이상	25.1	59.9	10.6	3.4	1.0	100.0 (1,130)
$x^2(df)$			33.949(8)***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출산 및 양육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에 대한 1순위 결과는 '비용지원'이 37.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22.0%,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10.8% 순이고, 나머지 항목은 10% 미만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26.9%로 높았고, 이에 대한 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에게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Ⅱ-4-13〉 정부의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수)
전체	22.0	3.0	10.8	37.4	7.8	6.8	7.4	3.8	0.9	100.0 (2,598)
성별										
남자	16.4	3.6	12.2	40.3	8.9	6.1	8.1	3.9	0.6	100.0 (1,206)
여자	26.9	2.6	9.6	34.8	6.9	7.5	6.8	3.7	1.1	100.0 (1,392)
$x^2(df)$				52.174(8)***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수)
연령										
20대 이하	21.6	2.0	3.9	43.1	7.8	5.9	9.8	3.9	2.0	100.0 (51)
30대	23.6	2.8	8.8	39.7	8.1	5.8	6.7	3.2	1.2	100.0 (1,371)
40대	19.4	3.3	13.6	35.3	7.6	8.0	7.7	4.6	0.5	100.0 (1,056)
50대 이상	26.7	3.3	12.5	26.7	6.7	8.3	12.5	3.3	0.0	100.0 (120)
$x^2(df)$				49.107(24)**						
혼인 여부										
미혼	8.7	4.3	17.4	47.8	13.0	4.3	4.3	0.0	0.0	100.0 (23)
배우자 있음	22.0	3.0	10.8	37.4	7.7	6.7	7.5	3.9	0.9	100.0 (2,557)
배우자 없음	38.9	5.6	0.0	22.2	11.1	22.2	0.0	0.0	0.0	100.0 (18)
$x^2(df)$				20.524(1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1.5	2.9	9.8	39.7	7.5	5.7	7.1	4.8	0.9	100.0 (1,166)
비영유아 부모	20.6	3.0	11.9	35.3	8.0	8.8	8.2	3.7	0.5	100.0 (855)
자녀 없음	25.1	3.3	11.3	35.7	8.3	6.1	6.9	1.9	1.4	100.0 (577)
$x^2(df)$				29.505(16)*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6.4	3.1	8.1	44.8	6.5	8.2	7.7	4.0	1.1	100.0 (718)
400~599만원	22.7	2.4	11.9	39.6	7.0	6.3	6.3	3.4	0.4	100.0 (910)
600만원 이상	25.5	3.6	11.9	29.8	9.5	6.3	8.4	4.0	1.1	100.0 (970)
$x^2(df)$				66.584(16)***						

주 : 1) ①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②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③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④ 비용 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⑤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연장, ⑥ 자녀 건강 관련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확대, ⑦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공기질 개선, 교통안전 등), ⑧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⑨ 기타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이어서, 직장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도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가 64.6%,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가 21.8%로, 전체 응답자의 86.4%가 직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1.4%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미혼의 경우 직장의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응답 비율이 28.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4-14〉 직장(회사, 기업 등)의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도

단위: %(명)

구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함	별로 지원할 필요 없음	전혀 지원할 필요 없음	모르겠음	계 (수)
전체	21.8	64.6	9.6	1.8	2.3	100.0 (3,020)
성별						
남자	23.1	62.5	10.9	1.7	1.8	100.0 (1,444)
여자	20.6	66.6	8.4	1.8	2.7	100.0 (1,576)
$x^2(df)$			11.844(4)*			
연령						
20대 이하	13.6	62.7	10.2	8.5	5.1	100.0 (59)
30대	24.7	61.2	10.2	1.6	2.3	100.0 (1,592)
40대	19.7	67.6	9.1	1.8	1.9	100.0 (1,236)
50대 이상	9.0	78.9	7.5	.8	3.8	100.0 (133)
$x^2(df)$			50.890(12)***			
혼인 여부						
미혼	14.3	54.8	26.2	2.4	2.4	100.0 (42)
배우자 있음	21.9	64.7	9.4	1.8	2.3	100.0 (2,956)
배우자 없음	13.6	72.7	9.1	4.5	0.0	100.0 (22)
$x^2(df)$			16.378(8)*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5.8	61.2	9.4	1.7	1.9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17.1	69.7	9.9	1.3	2.1	100.0 (1,002)
자녀 없음	20.7	63.9	9.5	2.6	3.2	100.0 (681)
$x^2(df)$			35.161(8)***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2.8	63.3	10.2	1.6	2.2	100.0 (834)
400~599만원	19.4	66.6	9.7	2.0	2.3	100.0 (1,047)
600만원 이상	23.2	63.7	9.0	1.8	2.3	100.0 (1,139)
$x^2(df)$			6.403(8)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바. 비용지원 정책

보육료·유아학비의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5점 기준에 평균 3.74점으로 긍정적인 편이고, 항목별로는 '바람직한 편'의 응답이 63.9%, '보통' 24.7%, '바람직하지 않은 편'은 11.4%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영유아 부모에게서 긍정적인 응답 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영유아 부모의 69.6%는 바람직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Ⅱ-4-15〉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음	보통	약간 바람직	매우 바람직	계 (수)	평균
전체	2.4	9.0	24.7	39.9	24.0	100.0 (3,020)	3.74
성별							
남자	2.1	7.3	24.5	39.8	26.3	100.0 (1,444)	3.81
여자	2.7	10.6	24.9	40.0	21.9	100.0 (1,576)	3.68
$x^2(df)$ / t			16.530(4)**				3.638***
연령							
20대 이하	1.7	10.2	23.7	35.6	28.8	100.0 (59)	3.80
30대	1.6	7.7	26.3	37.5	26.8	100.0 (1,592)	3.80
40대	3.3	10.2	22.6	43.0	21.0	100.0 (1,236)	3.68
50대 이상	3.0	12.8	25.6	42.1	16.5	100.0 (133)	3.56
$x^2(df)$ / F			39.000(12)***				4.948**
혼인 여부							
미혼	2.4	11.9	28.6	40.5	16.7	100.0 (42)	3.57
배우자 있음	2.3	8.9	24.7	40.0	24.1	100.0 (2,956)	3.75
배우자 없음	9.1	18.2	22.7	22.7	27.3	100.0 (22)	3.41
$x^2(df)$ / F			9.649(8)				1.86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4	6.1	23.0	39.3	30.3	100.0 (1,337)	3.91
비영유아 부모	4.0	12.0	24.8	42.3	17.0	100.0 (1,002)	3.56
자녀 없음	1.9	10.4	28.0	37.6	22.0	100.0 (681)	3.67
$x^2(df)$ / F			91.983(8)***				37.457***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음	보통	약간 바람직	매우 바람직	계 (수)	평균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3	9.1	28.9	35.4	25.3	100.0 (834)	3.74
400~599만원	3.0	8.5	24.0	41.3	23.3	100.0 (1,047)	3.73
600만원 이상	2.6	9.4	22.3	42.0	23.7	100.0 (1,139)	3.75
$x^2(df)$ / F			21.882(8)**				.044

주 : 1)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1점)~매우 바람직(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의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고, '세금 부담 가중 우려'가 23.3%,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이 8.4%, '재정 지원 불안정' 7.0% 순으로 높았다.

〈표 Ⅱ-4-16〉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	재정 지원 불안정	기타	계 (수)
전체	57.8	23.3	8.4	7.0	3.5	100.0 (344)
성별						
남자	52.6	24.4	12.6	8.1	2.2	100.0 (135)
여자	61.2	22.5	5.7	6.2	4.3	100.0 (209)
$x^2(df)$			7.221(4)			
연령						
20대 이하	57.1	0.0	28.6	14.3	0.0	100.0 (7)
30대	58.4	18.1	10.7	9.4	3.4	100.0 (149)
40대	56.3	28.1	6.6	4.8	4.2	100.0 (167)
50대 이상	66.7	28.6	0.0	4.8	0.0	100.0 (21)
$x^2(df)$			16.701(12)			
혼인 여부						
미혼	50.0	33.3	16.7	0.0	0.0	100.0 (6)
배우자 있음	57.8	23.2	8.4	6.9	3.6	100.0 (332)
배우자 없음	66.7	16.7	0.0	16.7	0.0	100.0 (6)
$x^2(df)$			3.169(8)			

구분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	재정 지원 불안정	기타	계 (수)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56.0	19.0	11.0	12.0	2.0	100.0 (100)
비영유아 부모	56.9	26.9	5.6	4.4	6.3	100.0 (160)
자녀 없음	61.9	21.4	10.7	6.0	0.0	100.0 (84)
$x^2(df)$			17.280(8)*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69.0	16.1	4.6	6.9	3.4	100.0 (87)
400~599만원	55.0	28.3	9.2	5.8	1.7	100.0 (120)
600만원 이상	53.3	23.4	10.2	8.0	5.1	100.0 (137)
$x^2(df)$			10.501(8)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다음은 양육수당의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5점 기준에 평균 3.64점으로 긍정적인 편이고, 항목별로는 '바람직한 편'의 응답이 58.8%, '보통' 28.1%, '바람직하지 않은 편'은 13.0%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0대, 영유아 부모에게서 긍정적인 응답 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영유아 부모의 인식은 평균 3.8점으로,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4-17〉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바람직 하지 않음	별로 바람직 하지 않음	보통	약간 바람직	매우 바람직	계 (수)	평균
전체	2.6	10.4	28.1	37.7	21.1	100.0 (3,020)	3.64
성별							
남자	2.1	9.4	26.2	38.3	24.0	100.0 (1,444)	3.73
여자	3.1	11.3	29.9	37.1	18.5	100.0 (1,576)	3.57
$x^2(df)$ / t			19.802(4)**				4.320***
연령							
20대 이하	5.1	6.8	28.8	35.6	23.7	100.0 (59)	3.66
30대	1.6	8.7	29.5	36.0	24.2	100.0 (1,592)	3.73
40대	3.8	12.1	26.6	39.2	18.3	100.0 (1,236)	3.56

구분	전혀 바람직 하지 않음	별로 바람직 하지 않음	보통	약간 바람직	매우 바람직	계 (수)	평균
50대 이상	3.8	16.5	26.3	44.4	9.0	100.0 (133)	3.38
$x^2(df)$ / F		55.516(12)***					9.294***
혼인 여부							
미혼	2.4	9.5	40.5	38.1	9.5	100.0 (42)	3.43
배우자 있음	2.6	10.4	28.0	37.8	21.3	100.0 (2,956)	3.65
배우자 없음	13.6	13.6	27.3	22.7	22.7	100.0 (22)	3.27
$x^2(df)$ / F		16.715(8)*					2.467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6	6.7	28.3	36.8	26.5	100.0 (1,337)	3.80
비영유아 부모	4.3	14.2	26.9	39.0	15.6	100.0 (1,002)	3.47
자녀 없음	2.2	12.0	29.5	37.4	18.8	100.0 (681)	3.59
$x^2(df)$ / F		84.847(8)***					31.347***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2	8.9	31.1	34.3	23.6	100.0 (834)	3.68
400~599만원	3.1	10.1	27.9	38.6	20.3	100.0 (1,047)	3.63
600만원 이상	2.6	11.8	26.3	39.3	20.0	100.0 (1,139)	3.62
$x^2(df)$ / F		16.405(8)*					.966

주 : 1)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1점)~매우 바람직(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의 응답이 47.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세금 부담 가중 우려'가 24.1%, '재정 지원 불안정' 12.9%, '비용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이 11.7% 순이었다.

〈표 Ⅱ-4-18〉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	재정 지원 불안정	기타	계 (수)
전체	47.0	24.1	11.7	12.9	4.3	100.0 (394)
성별						
남자	48.5	18.6	14.4	15.6	3.0	100.0 (167)
여자	45.8	28.2	9.7	11.0	5.3	100.0 (227)
$x^2(df)$			8.369(4)			
연령						
20대 이하	57.1	14.3	28.6	0.0	0.0	100.0 (7)
30대	44.5	23.2	15.2	12.2	4.9	100.0 (164)
40대	47.4	27.0	8.7	12.2	4.6	100.0 (196)
50대 이상	55.6	11.1	7.4	25.9	0.0	100.0 (27)
$x^2(df)$			15.353(12)			
혼인 여부						
미혼	20.0	60.0	0.0	20.0	0.0	100.0 (5)
배우자 있음	46.5	24.0	12.0	13.1	4.4	100.0 (383)
배우자 없음	100.0	0.0	0.0	0.0	0.0	100.0 (6)
$x^2(df)$			11.289(8)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47.3	22.3	18.8	6.3	5.4	100.0 (112)
비영유아 부모	49.2	24.3	8.1	13.5	4.9	100.0 (185)
자녀 없음	42.3	25.8	10.3	19.6	2.1	100.0 (97)
$x^2(df)$			16.674(8)*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6.7	19.6	10.9	15.2	7.6	100.0 (92)
400~599만원	50.7	23.2	11.6	12.3	2.2	100.0 (138)
600만원 이상	43.9	27.4	12.2	12.2	4.3	100.0 (164)
$x^2(df)$			6.685(8)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사. 어린이집 유치원 서비스 지원 정책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육·교육에 있어서 강조해야 할 점을 조사하였다. 먼저 유치원의 경우,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인성 지도(37.2%), 안전한 보호(16.7%), 균형 있는 발달(15.0%), 자유놀이 중심활동(1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4-19〉 유치원에서 강조해야 할 점(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수)
전체	15.0	37.2	16.7	11.1	6.1	6.3	7.4	0.2	0.1	100.0 (3,018)
성별										
남자	16.9	33.1	15.0	12.0	6.4	7.5	8.8	0.1	0.1	100.0 (1,444)
여자	13.3	40.9	18.3	10.2	5.7	5.2	6.0	0.2	0.1	100.0 (1,574)
$x^2(df)$					40.572(8)***					
연령										
20대 이하	13.6	32.2	15.3	11.9	13.6	8.5	5.1	0.0	0.0	100.0 (59)
30대	16.0	36.2	17.0	11.3	6.1	6.0	7.0	0.1	0.2	100.0 (1,590)
40대	13.8	38.3	16.7	10.7	6.0	6.6	7.7	0.2	0.1	100.0 (1,236)
50대 이상	14.3	40.6	14.3	11.3	3.0	6.0	9.8	0.8	0.0	100.0 (133)
$x^2(df)$					19.032(24)					
혼인 여부										
미혼	14.3	35.7	11.9	4.8	9.5	14.3	7.1	0.0	2.4	100.0 (42)
배우자 있음	15.0	37.3	16.8	11.1	6.1	6.1	7.4	0.2	0.1	100.0 (2,955)
배우자 없음	19.0	23.8	23.8	14.3	0.0	14.3	4.8	0.0	0.0	100.0 (21)
$x^2(df)$					29.412(1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6.1	34.9	15.9	13.2	6.4	6.9	6.6	0.1	0.0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12.6	39.8	17.7	9.2	6.0	6.1	8.4	0.2	0.1	100.0 (1,002)
자녀 없음	16.5	37.8	17.1	9.6	5.4	5.4	7.4	0.3	0.4	100.0 (679)
$x^2(df)$					34.351(16)**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5.4	34.0	17.5	11.4	7.0	7.3	6.7	0.4	0.4	100.0 (833)
400~599만원	14.3	39.8	18.0	10.6	5.5	5.3	6.4	0.0	0.0	100.0 (1,047)
600만원 이상	15.4	37.1	15.0	11.2	5.9	6.4	8.7	0.2	0.1	100.0 (1,138)
$x^2(df)$					25.899(16)					

주 : 1) ①균형 있는 발달, ②인성지도(정서 및 사회성 발달), ③안전한 보호, ④자유놀이 중심활동, ⑤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⑥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⑦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⑧특별활동, ⑨충분한 휴식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이어서 어린이집에서 강조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인성지도(27.4%), 안전한 보호(25.6%), 균형 있는 발달(13.7%), 자유놀이 중심활동(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치원 응답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Ⅱ-4-20〉 어린이집에서 강조해야 할 점(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수)
전체	13.7	27.4	25.6	12.6	7.9	4.7	7.8	0.2	0.2	100.0 (3,017)
성별										
남자	14.1	26.1	21.8	13.2	8.2	6.4	9.8	0.2	0.1	100.0 (1,443)
여자	13.4	28.5	29.0	11.9	7.6	3.0	6.0	0.2	0.3	100.0 (1,574)
$x^2(df)$				52.550(8)***						
연령										
20대 이하	15.3	18.6	33.9	8.5	10.2	8.5	5.1	0.0	0.0	100.0 (59)
30대	14.2	25.4	27.3	12.5	7.9	4.6	7.7	0.1	0.3	100.0 (1,592)
40대	13.1	29.5	23.7	12.2	8.4	4.9	7.9	0.2	0.1	100.0 (1,233)
50대 이상	13.5	34.6	18.8	18.0	3.0	1.5	9.0	1.5	0.0	100.0 (133)
$x^2(df)$				44.960(24)**						
혼인 여부										
미혼	9.5	23.8	16.7	11.9	14.3	14.3	9.5	0.0	0.0	100.0 (42)
배우자 있음	13.9	27.4	25.6	12.6	7.9	4.5	7.8	0.2	0.2	100.0 (2,953)
배우자 없음	4.5	27.3	36.4	13.6	4.5	9.1	4.5	0.0	0.0	100.0 (22)
$x^2(df)$				17.046(1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4.0	24.3	27.7	13.8	7.9	4.4	7.8	0.1	0.0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11.9	30.4	22.7	12.7	8.3	4.6	8.9	0.2	0.2	100.0 (999)
자녀 없음	15.9	28.9	25.6	10.0	7.3	5.3	6.2	0.4	0.4	100.0 (681)
$x^2(df)$				37.677(16)**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3.1	28.4	26.1	12.9	7.1	4.9	6.7	0.5	0.2	100.0 (834)
400~599만원	13.8	27.2	25.7	13.5	7.4	4.5	7.9	0.0	0.0	100.0 (1,047)
600만원 이상	14.2	26.8	25.1	11.4	9.0	4.7	8.5	0.2	0.3	100.0 (1,136)
$x^2(df)$				15.878(16)						

주 : 1) ①균형 있는 발달, ②인성지도(정서 및 사회성 발달), ③안전한 보호, ④자유놀이 중심활동, ⑤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⑥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⑦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⑧특별활동, ⑨충분한 휴식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유치원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을 알아보았다.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집과의 거리’(19.4%)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 되었으며, ‘프로그램(특별/특성화/방과후 활동 포함)’(17.2%), ‘원장 및 교사’(15.9%), ‘주변의 평판’(1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4-21〉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명)

구분	운영 시간	학부모 비용 부담	집과의 거리	국공립 등 여부	주변의 평판	차량 운행 여부	형제 재원 여부	원장 및 교사	프로그램 (특별/특성화/방과후 활동 포함)	기타	모르겠음	계(수)
전체	7.7	10.4	19.4	10.4	12.4	3.2	2.7	15.9	17.2	0.5	0.3	100.0 (3,017)
성별												
남자	9.4	11.7	18.3	12.1	12.6	3.6	3.7	13.3	14.4	0.5	0.3	100.0 (1,442)
여자	6.0	9.3	20.3	8.9	12.3	2.8	1.7	18.3	19.7	0.4	0.2	100.0 (1,575)
$\chi^2(df)$					63.254(10)***							
연령												
20대 이하	1.7	8.6	22.4	3.4	10.3	6.9	1.7	29.3	13.8	0.0	1.7	100.0 (58)
30대	9.1	9.3	20.1	10.5	13.1	3.2	2.8	15.5	15.9	0.3	0.3	100.0 (1,590)
40대	6.1	11.5	19.0	10.8	12.1	3.0	2.5	16.0	18.3	0.5	0.2	100.0 (1,236)
50대 이상	8.3	15.0	12.8	9.0	9.0	3.0	2.3	14.3	24.1	2.3	0.0	100.0 (133)
$\chi^2(df)$					57.928(30)**							
혼인 여부												
미혼	12.2	7.3	14.6	7.3	14.6	14.6	4.9	12.2	12.2	0.0	0.0	100.0 (41)
배우자 있음	7.6	10.6	19.4	10.5	12.5	3.0	2.6	16.0	17.2	0.4	0.3	100.0 (2,954)
배우자 없음	4.5	0.0	27.3	9.1	4.5	9.1	4.5	13.6	22.7	4.5	0.0	100.0 (22)
$\chi^2(df)$					37.488(20)*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8.2	9.9	18.7	10.5	12.9	2.7	2.9	15.6	17.9	0.2	0.4	100.0 (1,336)
비영유아 부모	6.6	11.8	19.3	9.9	10.8	3.4	2.9	15.7	19.1	0.6	0.1	100.0 (1,002)
자녀 없음	8.1	9.6	20.8	11.2	13.8	3.8	1.8	16.9	13.1	0.7	0.1	100.0 (679)
$\chi^2(df)$					30.519(20)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6.1	11.8	18.1	10.8	10.8	4.7	2.3	19.1	15.0	0.8	0.4	100.0 (832)
400~599만원	7.6	11.6	20.2	11.1	11.4	1.8	3.2	16.0	16.6	0.5	0.1	100.0 (1,046)
600만원 이상	8.8	8.4	19.5	9.6	14.6	3.3	2.5	13.5	19.3	0.2	0.4	100.0 (1,139)
$\chi^2(df)$					55.729(20)***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유치원 고려사항과 마찬가지로 ‘집과의 거리’(24.1%)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 되었고, ‘원장 및 교사’(17.2%), ‘주변의 평판’(14.5%), ‘프로그램’(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집과의 거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 시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임을 알 수 있다.

〈표 Ⅱ-4-22〉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명)

구분	운영 시간	학부모 비용 부담	집과의 거리	국공립 등 여부	주변의 평판	차량 운행 여부	형제 재원 여부	원장 및 교사	프로그램 (특별/특성화/방과후 활동 포함)	기타	모르겠음	계(수)
전체	7.2	9.2	24.1	8.0	14.5	4.0	3.0	17.2	12.1	0.5	0.3	100.0 (3,012)
성별												
남자	8.4	10.9	21.5	9.2	13.5	4.9	3.7	15.3	11.7	0.5	0.3	100.0 (1,441)
여자	6.0	7.7	26.4	7.0	15.3	3.2	2.2	19.0	12.4	0.4	0.3	100.0 (1,571)
$\chi^2(df)$					45.307(10)***							
연령												
20대 이하	3.4	10.2	28.8	8.5	8.5	6.8	8.5	22.0	1.7	0.0	1.7	100.0 (59)
30대	8.2	8.3	25.1	7.9	14.6	4.2	2.6	17.0	11.5	0.3	0.3	100.0 (1,585)
40대	6.1	10.0	23.5	8.2	14.6	3.5	3.1	17.2	13.2	0.6	0.2	100.0 (1,235)
50대 이상	6.8	12.8	15.0	8.3	15.0	5.3	3.8	18.0	12.8	2.3	0.0	100.0 (133)
$\chi^2(df)$					51.077(30)*							
혼인 여부												
미혼	2.4	19.0	14.3	7.1	14.3	9.5	2.4	21.4	9.5	0.0	0.0	100.0 (42)
배우자 있음	7.3	9.1	24.1	8.1	14.5	3.8	3.0	17.2	12.1	0.4	0.3	100.0 (2,949)
배우자 없음	0.0	4.8	33.3	0.0	9.5	19.0	0.0	14.3	14.3	4.8	0.0	100.0 (21)
$\chi^2(df)$					37.822(20)**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6.8	8.3	25.2	7.7	15.1	3.8	3.0	17.9	11.6	0.2	0.5	100.0 (1,331)
비영유아 부모	6.0	10.3	23.9	7.7	13.6	4.1	3.2	16.7	13.9	0.6	0.1	100.0 (1,001)
자녀 없음	9.6	9.6	22.2	9.1	14.6	4.3	2.5	16.8	10.4	0.9	0.1	100.0 (680)
$\chi^2(df)$					28.941(20)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6.0	9.9	23.0	8.8	12.7	4.8	3.7	18.1	12.0	0.6	0.4	100.0 (832)
400~599만원	8.0	9.5	25.6	7.5	15.0	2.9	2.5	16.9	11.5	0.6	0.1	100.0 (1,047)
600만원 이상	7.2	8.6	23.5	7.9	15.3	4.5	2.8	16.9	12.7	0.3	0.4	100.0 (1,133)
$\chi^2(df)$					21.037(20)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유치원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7%로 가장 높았고, ‘약간 신뢰함’ 34.8%, ‘별로 신뢰하지 못함’ 9.6%, ‘매우 신뢰함’ 3.6%로 나타났으며,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5점을 기준으로 평균 3.30점으로 보통 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수준이고, 유자녀의 부모가 갖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무자녀 응답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Ⅱ-4-23〉 유치원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신뢰하지 못함	별로 신뢰하지 못함	보통	약간 신뢰함	매우 신뢰함	계 (수)	평균
전체	1.4	9.6	50.7	34.8	3.6	100.0 (3,020)	3.30
성별							
남자	1.2	10.0	50.3	35.2	3.3	100.0 (1,444)	3.29
여자	1.5	9.3	51.0	34.4	3.9	100.0 (1,576)	3.30
$x^2(df)$ / t			2.069(4)				-.144
연령							
20대 이하	3.4	6.8	55.9	32.2	1.7	100.0 (59)	3.22
30대	1.5	9.2	50.6	34.6	4.0	100.0 (1,592)	3.30
40대	1.1	10.4	50.2	35.2	3.2	100.0 (1,236)	3.29
50대 이상	0.8	8.3	53.4	34.6	3.0	100.0 (133)	3.31
$x^2(df)$ / F			7.530(12)				.315
혼인 여부							
미혼	4.8	11.9	59.5	21.4	2.4	100.0 (42)	3.05
배우자 있음	1.3	9.5	50.7	34.9	3.6	100.0 (2,956)	3.30
배우자 없음	0.0	22.7	31.8	40.9	4.5	100.0 (22)	3.27
$x^2(df)$ / F			12.978(8)				2.39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1	8.5	46.0	39.1	5.3	100.0 (1,337)	3.39
비영유아 부모	0.7	9.2	51.3	36.7	2.1	100.0 (1,002)	3.30
자녀 없음	2.8	12.5	58.9	23.5	2.3	100.0 (681)	3.10
$x^2(df)$ / F			90.347(8)***				34.884***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6	9.7	52.2	32.1	4.4	100.0 (834)	3.28
400~599만원	1.1	8.9	52.0	35.4	2.6	100.0 (1,047)	3.29
600만원 이상	1.4	10.2	48.4	36.2	3.9	100.0 (1,139)	3.31
$x^2(df)$ / F			10.821(8)				.330

주 : 1) 평균은 ‘신뢰하지 못함(1점)~매우 신뢰함(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이어서 어린이집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7%로 가장 높았고, ‘약간 신뢰함’ 27.7%, ‘별로 신뢰하지 못함’ 14.8%, ‘매우 신뢰함’ 3.2%로 나타났으며,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5점을 기준으로 평균 3.14점 수준이고, 미혼 응답자와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4-24〉 어린이집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신뢰하지 못함	별로 신뢰하지 못함	보통	약간 신뢰함	매우 신뢰함	계 (수)	평균
전체	2.5	14.8	51.7	27.7	3.2	100.0 (3,020)	3.14
성별							
남자	2.0	14.5	52.4	28.1	3.0	100.0 (1,444)	3.16
여자	3.0	15.2	51.0	27.4	3.4	100.0 (1,576)	3.13
$x^2(df)$ / t			4.054(4)				.977
연령							
20대 이하	6.8	11.9	50.8	28.8	1.7	100.0 (59)	3.07
30대	2.8	14.6	50.6	28.0	4.0	100.0 (1,592)	3.16
40대	2.2	15.5	52.4	27.4	2.5	100.0 (1,236)	3.13
50대 이상	1.5	13.5	57.1	27.1	0.8	100.0 (133)	3.12
$x^2(df)$ / F			15.995(12)				.621
혼인 여부							
미혼	4.8	23.8	57.1	9.5	4.8	100.0 (42)	2.86
배우자 있음	2.5	14.6	51.7	28.0	3.2	100.0 (2,956)	3.15
배우자 없음	0.0	31.8	36.4	31.8	0.0	100.0 (22)	3.00
$x^2(df)$ / F			15.532(8)				3.101*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2	13.2	46.1	33.4	5.0	100.0 (1,337)	3.26
비영유아 부모	1.8	14.5	55.3	26.9	1.5	100.0 (1,002)	3.12
자녀 없음	4.3	18.5	57.3	17.8	2.2	100.0 (681)	2.95
$x^2(df)$ / F			98.920(8)***				34.556***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9	13.8	52.9	26.7	3.7	100.0 (834)	3.15
400~599만원	2.0	14.9	53.2	27.4	2.5	100.0 (1,047)	3.13
600만원 이상	2.8	15.5	49.3	28.8	3.5	100.0 (1,139)	3.15
$x^2(df)$ / F			8.286(8)				.075

주 : 1) 평균은 ‘전혀 신뢰하지 못함(1점)~매우 신뢰함(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유치원 교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2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가 74.1%로 가장 높았고, ‘인성이 좋은 교사’(64.8%), ‘교육 내용에 대해 지식이 많은 교사’(22.9%) 순으로 응답 되었다.

〈표 Ⅱ-4-25〉 유치원 교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2가지 선택)

단위: %, (명)

구분	학력이 높은 교사	경력이 많은 교사	교육·보육 내용에 대해 지식이 많은 교사	인성이 좋은 교사	부모와 의사소통을 잘하는 교사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	기타 (수)
전체	5.8	9.5	22.9	64.8	21.1	74.1	0.5 (3,020)
성별							
남자	8.6	11.5	24.4	61.9	25.0	66.8	0.6 (1,444)
여자	3.2	7.7	21.6	67.4	17.5	80.9	0.4 (1,576)
연령							
20대 이하	10.2	16.9	22.0	54.2	20.3	72.9	1.7 (59)
30대	6.2	9.6	23.0	62.5	22.2	74.7	0.6 (1,592)
40대	5.3	9.4	22.2	67.2	20.4	74.0	0.3 (1,236)
50대 이상	4.5	6.8	29.3	74.4	14.3	68.4	0.8 (133)
혼인 여부							
미혼	23.8	21.4	26.2	40.5	42.9	42.9	2.4 (42)
배우자 있음	5.5	9.4	22.9	65.2	20.7	74.6	0.5 (2,956)
배우자 없음	9.1	0.0	18.2	54.5	27.3	77.3	0.0 (22)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7.2	9.9	21.8	63.6	21.1	74.7	0.4 (1,337)
비영유아 부모	4.8	9.3	24.6	67.4	20.8	72.1	0.3 (1,002)
자녀 없음	4.6	9.3	22.8	63.4	21.6	76.1	0.9 (681)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7.0	9.2	23.1	63.3	21.2	74.2	0.2 (834)
400~599만원	5.6	9.9	22.3	64.6	21.4	74.9	0.6 (1,047)
600만원 이상	5.1	9.4	23.4	66.1	20.7	73.4	0.6 (1,139)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어서 어린이집 교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2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74.6%)와 ‘인성이 좋은 교사’(65.8%)가 가장 많이 응답 되었고, ‘교육 내용에 대해 지식이 많은 교사’(19.3%) 순으로 응답 되었다. 이는 유치원 교사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표 Ⅱ-4-26〉 어린이집 교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2가지 선택)

단위: %, (명)

구분	학력이 높은 교사	경력이 많은 교사	교육·보육 내용에 대해 지식이 많은 교사	인성이 좋은 교사	부모와 의사소통을 잘하는 교사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	기타 (수)
전체	5.7	10.2	19.3	65.8	22.7	74.6	0.5 (3,020)
성별							
남자	8.2	11.6	20.9	62.0	26.7	68.7	0.6 (1,444)
여자	3.4	8.9	17.8	69.4	19.2	80.0	0.4 (1,576)
연령							
20대 이하	13.6	18.6	23.7	54.2	22.0	66.1	0.0 (59)
30대	6.3	10.6	19.4	64.0	23.9	74.3	0.4 (1,592)
40대	4.9	9.5	19.0	67.5	22.5	74.8	0.7 (1,236)
50대 이상	3.0	7.5	18.8	77.4	12.0	80.5	0.0 (133)
혼인 여부							
미혼	26.2	19.0	35.7	40.5	38.1	40.5	0.0 (42)
배우자 있음	5.4	10.0	19.1	66.3	22.5	75.1	0.5 (2,956)
배우자 없음	4.5	18.2	18.2	50.0	27.3	72.7	0.0 (22)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6.9	11.2	18.0	64.0	23.0	75.3	0.4 (1,337)
비영유아 부모	3.4	10.1	18.6	69.4	22.8	74.4	0.5 (1,002)
자녀 없음	6.8	8.2	23.1	64.2	22.2	73.6	0.7 (681)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5.9	10.6	19.2	62.8	24.1	75.2	0.4 (834)
400~599만원	4.8	8.9	20.2	68.0	21.8	75.3	0.5 (1,047)
600만원 이상	6.4	11.1	18.6	66.0	22.7	73.6	0.7 (1,139)

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표 Ⅱ-4-27〉는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이 자신의 추가 출산이나 출산 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5점 기준에 평균 2.89점으로 보통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영향이 없는 편'의 응답이 38.9%로 '영향이 있는 편' 32.5%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은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인 응답이 43.0%로 높았지만, 남성은 '영향이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35.8%로 '영향 없는 편' 34.4%보다 높았다. 평균 환산 점수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낮았다.

〈표 Ⅱ-4-27〉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계 (수)	평균
전체	9.9	29.0	28.7	26.7	5.8	100.0 (3,020)	2.89
성별							
남자	8.2	26.2	29.7	28.5	7.3	100.0 (1,444)	3.01
여자	11.4	31.6	27.7	24.9	4.3	100.0 (1,576)	2.79
$x^2(df)$ / t			31.996(4)***				5.459***
연령							
20대 이하	6.8	35.6	30.5	22.0	5.1	100.0 (59)	2.83
30대	10.0	29.0	28.1	26.1	6.7	100.0 (1,592)	2.91
40대	10.3	29.0	28.6	27.5	4.6	100.0 (1,236)	2.87
50대 이상	6.8	26.3	34.6	27.1	5.3	100.0 (133)	2.98
$x^2(df)$ / F			11.619(12)				.561
혼인 여부							
미혼	2.4	19.0	50.0	21.4	7.1	100.0 (42)	3.12
배우자 있음	10.0	29.0	28.5	26.8	5.7	100.0 (2,956)	2.89
배우자 없음	13.6	50.0	13.6	13.6	9.1	100.0 (22)	2.55
$x^2(df)$ / F			18.374(8)*				2.050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0.2	28.3	26.0	28.0	7.4	100.0 (1,337)	2.94

구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계 (수)	평균
비영유아 부모	9.5	29.5	29.6	27.1	4.2	100.0 (1,002)	2.87
자녀 없음	10.0	29.5	32.5	23.2	4.8	100.0 (681)	2.83
$x^2(df)$ / F			23.276(8)**				2.582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8.8	27.8	30.6	26.0	6.8	100.0 (834)	2.94
400~599만원	8.6	29.7	29.1	27.3	5.3	100.0 (1,047)	2.91
600만원 이상	11.9	29.2	26.9	26.5	5.4	100.0 (1,139)	2.84
$x^2(df)$ / F			13.368(8)				2.254

주 : 1) 평균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1점)~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자. 안전한 사회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에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5점 기준에 평균 2.92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항목별로는 '그렇지 않은 편' 32.0%, '그런 편' 26.8%, '보통' 41.1%이었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를 안전하다고 보았고, 20대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는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Ⅱ-4-28〉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수)	평균
전체	6.0	26.0	41.1	24.0	2.8	100.0 (3,020)	2.92
성별							
남자	3.8	20.4	43.4	28.5	3.8	100.0 (1,444)	3.08
여자	8.1	31.2	38.9	19.9	2.0	100.0 (1,576)	2.77
$x^2(df)$ / t			91.849(4)***				9.546***
연령							
20대 이하	11.9	39.0	25.4	22.0	1.7	100.0 (59)	2.63
30대	7.3	28.8	41.0	20.2	2.7	100.0 (1,592)	2.82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수)	평균
40대	4.4	22.2	41.8	28.4	3.2	100.0 (1,236)	3.04
50대 이상	3.8	22.6	41.4	30.8	1.5	100.0 (133)	3.04
$x^2(df)$ / F			58.557(12)***				15.926***
혼인 여부							
미혼	9.5	31.0	40.5	19.0	0.0	100.0 (42)	2.69
배우자 있음	5.9	26.0	40.9	24.2	2.9	100.0 (2,956)	2.92
배우자 없음	13.6	13.6	59.1	13.6	0.0	100.0 (22)	2.73
$x^2(df)$ / F			9.784(8)				1.767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6.2	27.2	40.2	23.1	3.3	100.0 (1,337)	2.90
비영유아 부모	4.2	21.6	42.7	28.4	3.1	100.0 (1,002)	3.05
자녀 없음	8.4	30.2	40.4	19.4	1.6	100.0 (681)	2.76
$x^2(df)$ / F			45.450(8)***				20.807***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7.4	26.4	44.8	18.6	2.8	100.0 (834)	2.83
400~599만원	5.5	25.2	42.0	24.9	2.3	100.0 (1,047)	2.93
600만원 이상	5.4	26.5	37.4	27.2	3.4	100.0 (1,139)	2.97
$x^2(df)$ / F			29.000(8)***				5.656**

주 : 1) 평균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불안 요인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범죄 발생'이 47.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계층 간 갈등' 15.7%, '경제적 위험' 10.7% 순이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범죄 발생'을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고 꼽은 비율이 55.3%로 남성에 비해 높았다.

〈표 Ⅱ-4-29〉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불안 요인(1순위)

단위: %(명)

구분	국가 안보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	자원	도덕성 부족	신종 질병	범죄 발생	계층간 갈등	기타	계 (수)
전체	1.6	1.8	5.5	3.8	10.7	1.3	5.3	6.1	47.6	15.7	0.7	100.0 (967)
성별												
남자	3.4	2.0	3.7	6.0	16.6	2.9	7.7	5.7	34.0	17.4	0.6	100.0 (350)
여자	0.5	1.6	6.5	2.6	7.3	0.5	3.9	6.3	55.3	14.7	0.8	100.0 (617)

구분	국가 안보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	자원	도덕성 부족	신종 질병	범죄 발생	계층간 갈등	기타	계 (수)
$\chi^2(df)$						78.688(10)***						
연령												
20대 이하	0.0	0.0	3.3	0.0	10.0	0.0	0.0	6.7	60.0	20.0	0.0	100.0 (30)
30대	1.7	1.7	6.1	3.0	11.0	1.2	5.4	6.3	47.9	15.2	0.5	100.0 (574)
40대	1.2	1.8	5.2	4.9	10.1	1.8	5.5	6.1	45.4	16.8	1.2	100.0 (328)
50대 이상	2.9	2.9	0.0	11.4	11.4	0.0	5.7	2.9	51.4	11.4	0.0	100.0 (35)
$\chi^2(df)$						21.544(30)						
혼인 여부												
미혼	0.0	5.9	0.0	11.8	5.9	5.9	0.0	5.9	41.2	23.5	0.0	100.0 (17)
배우자 있음	1.6	1.7	5.6	3.7	10.8	1.3	5.4	6.1	47.6	15.5	0.7	100.0 (944)
배우자 없음	0.0	0.0	0.0	0.0	0.0	0.0	0.0	0.0	66.7	33.3	0.0	100.0 (6)
$\chi^2(df)$						14.510(20)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3	1.8	6.0	2.5	11.4	1.8	5.1	6.5	49.7	13.4	0.4	100.0 (447)
비영유아 부모	1.6	1.6	5.4	7.4	9.7	0.8	4.7	5.4	44.7	17.1	1.6	100.0 (257)
자녀 없음	1.9	1.9	4.6	2.7	10.3	1.1	6.1	6.1	46.8	18.3	0.4	100.0 (257)
$\chi^2(df)$						22.520(20)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8	1.8	3.9	3.2	8.5	1.1	6.4	6.7	48.9	16.3	0.4	100.0 (282)
400~599만원	0.3	1.9	5.0	4.4	9.3	2.5	5.3	6.5	48.6	15.0	1.2	100.0 (321)
600만원 이상	1.6	1.6	7.1	3.8	13.5	0.5	4.4	5.2	45.6	15.9	0.5	100.0 (364)
$\chi^2(df)$						24.012(20)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차. COVID-19 대응 관련 의견

COVID-19로 인한 등원 연기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변화된 상황에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1순위), ‘유사 시 부모가 직접 영유아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가 39.0%로 가장 높았고, ‘등원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가 23.3%, ‘가정에 놀이자료나 재료를 지원한다’ 17.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가 자녀를 보육하는 방안에 관한 지원 요구가 높았고, 미혼자는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유아 부모는 '놀이 자료나 재료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유사시 부모가 보육할 수 있는 방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4-30〉 감염병 유행 시 영유아 교육 보육 우선 지원 정책(1순위)

단위: %(명)

구분	등원할 수 없는 경우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격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유사 시 부모가 직접 영유아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가정에 놀이자료나 재료를 지원해야 한다	가정과 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앱	기타	모르겠다	계 (수)
전체	23.3	13.5	39.0	17.0	5.7	0.7	0.9	100.0 (3,014)
성별								
남자	25.9	17.4	35.1	15.5	5.0	0.5	0.6	100.0 (1,442)
여자	20.9	10.0	42.5	18.4	6.3	0.9	1.1	100.0 (1,572)
$\chi^2(df)$			58.696(6)***					
연령								
20대 이하	22.0	13.6	40.7	22.0	1.7	0.0	0.0	100.0 (59)
30대	21.6	11.9	40.7	19.2	5.2	0.8	0.7	100.0 (1,589)
40대	25.1	15.5	36.9	14.5	6.2	0.7	1.0	100.0 (1,233)
50대 이상	25.6	15.0	36.8	12.0	8.3	0.0	2.3	100.0 (133)
$\chi^2(df)$			35.656(18)**					
혼인 여부								
미혼	47.6	19.0	16.7	11.9	4.8	0.0	0.0	100.0 (42)
배우자 있음	22.9	13.5	39.3	17.0	5.7	0.7	0.9	100.0 (2,950)
배우자 없음	27.3	9.1	31.8	27.3	4.5	0.0	0.0	100.0 (22)
$\chi^2(df)$			21.201(12)*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2.5	12.4	39.2	20.8	3.8	0.6	0.6	100.0 (1,334)
비영유아 부모	24.0	16.1	38.3	13.1	6.9	0.7	1.0	100.0 (1,001)
자녀 없음	23.7	11.9	39.5	15.3	7.5	0.9	1.2	100.0 (679)
$\chi^2(df)$			47.079(12)***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2.7	11.7	35.3	22.0	6.3	0.8	1.2	100.0 (831)
400~599만원	22.4	13.8	39.6	17.5	5.1	0.7	1.1	100.0 (1,046)
600만원 이상	24.5	14.7	41.1	12.9	5.8	0.6	0.4	100.0 (1,137)
$\chi^2(df)$			37.786(12)***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이어서, COVID-19로 인한 자녀 양육비 지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한 결과, 5점 기준에 평균 3.67점으로 보통 이상이고, 항목별로는 ‘그런 편’이 60.6%, ‘그렇지 않은 편’ 11.1%, ‘보통’ 28.2%로 양육비 지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영유아 부모,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영유아 부모의 경우 64.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Ⅱ-4-31〉 COVID-19로 인한 자녀 양육비 지원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수)	평균
전체	2.9	8.2	28.2	39.8	20.8	100.0	(3,020)	3.67
성별								
남자	2.2	7.1	27.2	41.2	22.2	100.0	(1,444)	3.74
여자	3.6	9.3	29.1	38.6	19.5	100.0	(1,576)	3.61
$x^2(df)$ / t			14.123(4)**					3.632***
연령								
20대 이하	5.1	10.2	28.8	32.2	23.7	100.0	(59)	3.59
30대	2.8	8.0	28.4	37.6	23.3	100.0	(1,592)	3.71
40대	3.1	8.3	27.8	42.5	18.4	100.0	(1,236)	3.65
50대 이상	3.0	10.5	28.6	45.9	12.0	100.0	(133)	3.53
$x^2(df)$ / F			22.292(12)*					1.884
혼인 여부								
미혼	9.5	4.8	47.6	19.0	19.0	100.0	(42)	3.33
배우자 있음	2.8	8.3	27.9	40.2	20.8	100.0	(2,956)	3.68
배우자 없음	4.5	13.6	27.3	27.3	27.3	100.0	(22)	3.59
$x^2(df)$ / F			19.622(8)*					2.598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2	7.2	25.7	37.5	27.4	100.0	(1,337)	3.81
비영유아 부모	3.3	9.3	28.5	43.8	15.1	100.0	(1,002)	3.58
자녀 없음	4.0	8.8	32.5	38.5	16.3	100.0	(681)	3.54
$x^2(df)$ / F			72.564(8)***					22.950***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4	6.8	30.2	36.7	23.9	100.0	(834)	3.73
400~599만원	3.0	6.2	28.8	42.4	19.6	100.0	(1,047)	3.69
600만원 이상	3.3	11.2	26.1	39.8	19.7	100.0	(1,139)	3.61
$x^2(df)$ / F			32.580(8)***					3.641*

주 : 1) 평균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COVID-19로 인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할 때 양육비 지원이 가장 필요한 대상의 우선순위를 고르게 하였다. 이에 약 절반에 달하는 48.0% 응답자가 영아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아와 초등학생 순으로 이어져 어린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급 대상 우선순위 1순위 자녀에게 연간 지급해야 하는 규모를 질문하였더니, 전체 평균 연간 약 230만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간 지급 규모는 성별, 연령, 자녀유무 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평균 약 188만원)보다 남자(평균 약 275만원) 응답자가 양육비 연간 지급규모를 높게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와 자녀유무 별로는 무자녀 집단이 높게 응답하였다.

〈표 Ⅱ-4-32〉 COVID-19로 인한 자녀 양육비 지원 관련

단위: %(명), 만원

구분	지급 대상 우선순위(1순위)						계 (수)	연간 지급 규모
	영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졸 이상 성인		
전체	48.0	26.4	15.6	2.6	5.6	1.8	100.0 (3,020)	230.82
성별								
남자	52.2	26.8	13.3	2.1	3.9	1.7	100.0 (1,444)	275.51
여자	44.1	26.1	17.6	3.0	7.2	1.9	100.0 (1,576)	188.54
$x^2(df)$ / t	37.275(5)***							4.959***
연령								
20대 이하	45.8	32.2	13.6	1.7	3.4	3.4	100.0 (59)	209.88
30대	53.5	26.6	12.8	1.8	4.0	1.4	100.0 (1,592)	258.48
40대	41.0	25.3	20.1	3.6	8.0	1.9	100.0 (1,236)	203.93
50대 이상	48.1	32.3	7.5	3.8	4.5	3.8	100.0 (133)	159.66
$x^2(df)$ / F	91.042(15)***							4.004**
혼인 여부								
미혼	42.9	21.4	16.7	9.5	4.8	4.8	100.0 (42)	270.26
배우자 있음	48.1	26.5	15.5	2.5	5.6	1.7	100.0 (2,956)	230.97
배우자 없음	36.4	27.3	18.2	0.0	4.5	13.6	100.0 (22)	141.59
$x^2(df)$ / F	29.446(10)**							.527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51.9	29.8	11.7	1.9	3.4	1.3	100.0 (1,337)	234.36
비영유아 부모	37.7	22.4	24.0	4.2	9.7	2.1	100.0 (1,002)	187.62
자녀 없음	55.4	25.8	10.7	1.6	4.1	2.3	100.0 (681)	286.84

구분	지급 대상 우선순위(1순위)						계 (수)	연간 지급 규모
	영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졸 이상 성인		
$x^2(df)$ / F	176.448(10)***							8.662***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7.2	28.1	16.2	2.0	3.8	2.6	100.0 (834)	217.83
400~599만원	45.8	26.0	17.0	3.0	6.8	1.4	100.0 (1,047)	217.89
600만원 이상	50.5	25.6	13.8	2.7	5.9	1.5	100.0 (1,139)	252.93
$x^2(df)$ / F	21.290(10)*							1.850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OVID-19 대응과 관련하여, 초중등과 비교하면 긴급보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에 따라 COVID-19 전후로 큰 차이가 없는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초중등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를 바란다'가 가장 많은 41.1% 응답 되었다. 또한 '초중등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26.3%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 영유아 부모에게서 '방역 노력은 기울이되 원하는 모두에게 양육지원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23%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4-33〉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유치원,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보다 엄격한 기준(비율 축소 또는 폐쇄)이 적용되어야 한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다 느슨한 기준(비율 확대 적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방역 노력은 기울이되 인원 제한 없이 원하는 모두에게 양육지원을 해야한다	계 (수)
전체	26.3	41.1	13.1	19.5	100.0 (3,020)
성별					
남자	26.2	43.5	14.8	15.5	100.0 (1,444)
여자	26.3	38.9	11.6	23.2	100.0 (1,576)
$x^2(df)$	32.132(3)***				
연령					
20대 이하	23.7	37.3	18.6	20.3	100.0 (59)
30대	25.9	39.9	14.3	19.9	100.0 (1,592)
40대	26.2	42.6	11.6	19.6	100.0 (1,236)

구분	보다 엄격한 기준(비율 축소 또는 폐쇄)이 적용되어야 한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다 느슨한 기준(비율 확대 적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방역 노력은 기울이되 인원 제한 없이 원하는 모두에게 양육지원을 해야한다	계 (수)
50대 이상	33.1	42.9	10.5	13.5	100.0 (133)
$x^2(df)$			12.841(9)		
혼인 여부					
미혼	28.6	42.9	21.4	7.1	100.0 (42)
배우자 있음	26.2	41.0	13.0	19.8	100.0 (2,956)
배우자 없음	31.8	45.5	13.6	9.1	100.0 (22)
$x^2(df)$			7.344(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4.0	39.1	13.5	23.3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27.0	44.5	12.2	16.3	100.0 (1,002)
자녀 없음	29.7	39.9	13.7	16.7	100.0 (681)
$x^2(df)$			29.271(6)***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7.7	39.3	12.5	20.5	100.0 (834)
400~599만원	24.4	41.8	13.9	19.9	100.0 (1,047)
600만원 이상	27.0	41.7	12.8	18.4	100.0 (1,139)
$x^2(df)$			5.292(6)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각종 시설 등의 정상운영이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내 체육과 도서관, 문화센터 등 실내시설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먼저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0%는 ‘입장 인원을 제한하되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음으로는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시간(요일 및 하루 중 운영시간 등)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0.1%로 많았다.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13.7%로 적지는 않았다.

〈표 Ⅱ-4-34〉 실내 시설: 실내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의 운영

단위: %(명)

구분	방역을 강화하되 모든 시설을 평시와 다름없이 운영해야 한다	입장 인원을 제한하되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시간(요일 및 하루 중 운영 시간 등)만 허용한다	가급적 폐쇄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계 (수)
전체	19.2	37.0	30.1	13.7	100.0 (3,020)
성별					
남자	21.9	39.8	25.6	12.8	100.0 (1,444)
여자	16.7	34.5	34.3	14.5	100.0 (1,576)
$x^2(df)$			36.944(3)***		
연령					
20대 이하	18.6	42.4	28.8	10.2	100.0 (59)
30대	18.7	35.0	31.4	14.9	100.0 (1,592)
40대	20.1	38.6	28.9	12.4	100.0 (1,236)
50대 이상	15.8	44.4	27.1	12.8	100.0 (133)
$x^2(df)$			12.362(9)		
혼인 여부					
미혼	21.4	42.9	28.6	7.1	100.0 (42)
배우자 있음	19.0	37.0	30.3	13.7	100.0 (2,956)
배우자 없음	36.4	31.8	13.6	18.2	100.0 (22)
$x^2(df)$			7.778(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19.2	37.3	29.6	13.8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19.8	38.0	29.5	12.7	100.0 (1,002)
자녀 없음	18.2	34.9	32.0	14.8	100.0 (681)
$x^2(df)$			4.064(6)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8.7	34.7	31.5	15.1	100.0 (834)
400~599만원	18.7	35.3	33.2	12.7	100.0 (1,047)
600만원 이상	19.9	40.3	26.3	13.5	100.0 (1,139)
$x^2(df)$			17.502(6)**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또한, 옥외시설의 개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옥외시설에 대해서는 '입장 인원을 제한하되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38.7%, '방역을 강화하되 모든 시설을 평시와 다름없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28.3%였다. 즉 옥외시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기를 바랐음을 알 수 있다.

〈표 Ⅱ-4-35〉 옥외 시설: 공원, 광장 등 등의 운영

단위: %(명)

구분	방역을 강화하되 모든 시설을 평시와 다름없이 운영해야 한다	입장 인원을 제한하되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시간(요일 및 하루 중 운영 시간 등)만 허용한다	가급적 폐쇄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계 (수)
전체	28.3	38.7	25.0	7.9	100.0 (3,020)
성별					
남자	31.0	37.1	24.7	7.1	100.0 (1,444)
여자	25.8	40.2	25.3	8.7	100.0 (1,576)
$x^2(df)$		11.677(3)**			
연령					
20대 이하	28.8	49.2	10.2	11.9	100.0 (59)
30대	26.3	37.9	27.1	8.7	100.0 (1,592)
40대	30.8	39.0	23.1	7.0	100.0 (1,236)
50대 이상	28.6	41.4	24.1	6.0	100.0 (133)
$x^2(df)$		21.246(9)*			
혼인 여부					
미혼	28.6	40.5	23.8	7.1	100.0 (42)
배우자 있음	28.1	38.9	24.9	8.0	100.0 (2,956)
배우자 없음	45.5	9.1	40.9	4.5	100.0 (22)
$x^2(df)$		9.981(6)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27.3	39.6	25.5	7.6	100.0 (1,337)
비영유아 부모	30.3	37.9	24.1	7.7	100.0 (1,002)
자녀 없음	27.2	38.3	25.6	9.0	100.0 (681)
$x^2(df)$		4.402(6)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7.2	37.8	25.5	9.5	100.0 (834)
400~599만원	26.7	41.8	24.5	7.0	100.0 (1,047)
600만원 이상	30.5	36.6	25.2	7.7	100.0 (1,139)
$x^2(df)$		11.256(6)			

주 :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카. 전반적 만족도

현재 0~5세 영유아 대상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3.04점으로 보통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잘하고 있는 편' 25.2%, '잘못하고 있는 편' 20.2%, '보통' 54.7%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는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비영유아부모에게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을 잘하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41.3%를 차지한다.

〈표 Ⅱ-4-36〉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잘못하고 있음	약간 잘못하고 있음	보통임	약간 잘하고 있음	매우 잘하고 있음	계 (수)	평균
전체	5.0	15.2	54.7	21.7	3.5	100.0 (3,020)	3.04
성별							
남자	6.2	16.5	52.6	22.0	2.6	100.0 (1,444)	2.98
여자	3.8	14.0	56.5	21.4	4.3	100.0 (1,576)	3.08
$x^2(df)$ / t			20.413(4)***				-3.304**
연령							
20대 이하	5.1	11.9	64.4	18.6	0.0	100.0 (59)	2.97
30대	4.9	16.1	56.7	19.3	3.0	100.0 (1,592)	2.99
40대	5.2	14.6	52.8	23.6	3.9	100.0 (1,236)	3.06
50대 이상	3.8	10.5	44.4	33.8	7.5	100.0 (133)	3.31
$x^2(df)$ / F			35.163(12)***				6.648***
혼인 여부							
미혼	4.8	14.3	61.9	16.7	2.4	100.0 (42)	2.98
배우자 있음	4.9	15.1	54.7	21.8	3.5	100.0 (2,956)	3.04
배우자 없음	18.2	22.7	36.4	18.2	4.5	100.0 (22)	2.68
$x^2(df)$ / F			11.245(8)				2.088
자녀 유무							
영유아 부모	4.9	16.8	52.7	22.0	3.6	100.0 (1,337)	3.03
비영유아 부모	4.3	13.3	52.6	25.7	4.1	100.0 (1,002)	3.12
자녀 없음	6.0	14.8	61.5	15.1	2.5	100.0 (681)	2.93
$x^2(df)$ / F			38.835(8)***				10.432***
월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7	12.9	59.6	20.0	3.7	100.0 (834)	3.07
400~599만원	4.5	15.0	54.3	22.9	3.2	100.0 (1,047)	3.05
600만원 이상	6.3	16.9	51.4	21.8	3.6	100.0 (1,139)	2.99
$x^2(df)$ / F			20.545(8)**				2.398

주 :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 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매우 잘못하고 있음(1점)~매우 잘하고 있음(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1$, *** $p < .001$.

5. 심층면담 결과

가. 노키즈존 찬성

영유아 관련 여론 중에서 종종 노키즈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어 육아 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지곤 한다. 이에 대한 기혼자와 미혼자의 의견, 혹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와 그 외의 사람들의 여론이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나, 대부분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을 강제로 금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였다.

> 저는 노키즈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자기가 가치를 지불하고 즐기는 상황 속에서 원치 않는 거를 할 필요도 없고 부모 된 입장에서 자식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괜히 눈치 보고 명확하게 구분해 주면 될 수 있는데 뜻하지 않게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캠핑장에 40대 이상 안 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회가 점점 그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헬스장이나 이런 데도 이제 노실버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 (11. 17. 47세 기혼 남 참여자 면담 중)

미혼자 혹은 영유아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강하였고,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가 찬성하는 사례는 오히려 노키즈존임을 분명히 한다면 자녀를 동반하고 방문할 시 이런 업소를 제외하고 방문할 것이므로 편안하게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나. 자녀는 좋지만 필수는 아님

결혼과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젊은 세대와 미혼자를 중심으로 이전세대와는 달리 자녀가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 기본적으로 와이프랑 남편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니깐, 여가생활이나 이런 것을 즐길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아이를 별로 갖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장점으로 따지면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좀 적적할 때, 아이들 크며는 좀 보면서 보람차지 않을까...(후략)
>
> (11. 20. 23세 미혼 남 참여자 면담 중)

30대 후반의 기혼 여성 역시 주변의 예를 들며 “아직은 주변에 좀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많아서 결혼은 이제 적극 찬성하는 편이지만 굳이 꼭 애를 꼭 낳아야 된다 라고 말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1. 21. 38세 기혼 여 참여자 면담 중) 라고 답하였다.

다. 양육 비용지원 확대 바람

여론조사 설문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영유아 자녀가 없는 부모, 미혼자 등 여러 면담 참여자 층에서 아동수당과 같은 비용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현재의 비용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 코로나 때 (국민지원금을) 한번 받아보긴 하지만 그게 좀 금액 대 별로는 이렇게 피부에 와서 주부로서 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금이 나가더라도 조금 더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
> (11. 30. 52세 기혼 여 참여자 면담 중)

또한 아동수당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원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 근데 이게 또 어린이집 다니고 하다 보면은 또, 양육 수당이 또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받다가 또 이게 뭔가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으로 받긴 하는데 그게 좀 지원을 안 받고 줄어드는 느낌이라서... 또 어린이집 들어가게 되면은 또 들어가는 돈이 또 따로 있고 하니까... 저도 받고 있으니까 좋긴 한데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느낌?
>
> (11. 21. 34세 기혼 여 참여자 면담 중)

이처럼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그리고 실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반적 지원 수준의 향상을, 나아가 서비스 지원 여부와 무관한 비용지원을 바라는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늘어날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비용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확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 조부모 돌봄에 대한 상반된 견해

조부모 돌봄과 관련해서는 혼인여부나 영유아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찬성과 반대가 갈렸다. 찬성의 이유로는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손자녀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더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가까이에서 보며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점에 대해서 찬성한 의견이 있었다.

> 사실 나쁜 쪽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아 저희 누나는 이제 육아를 가정주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를 이제 매일 하고 있어서 잠깐씩 집에 왔을 때 쉬다 가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 (부모님께서) 스트레스 받는 건 없는데 더 좋아하시는 것이 더 큰 것 같고요."
>
> (11. 21. 35세 미혼 남 참여자 면담 중)

반면 반대의 입장은 조부모 입장에서 영유아 돌봄이 신체적으로 쉽지 않은 점과, 조부모와 부모의 양육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및 이로 인해 손자녀가 버릇없어진다는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돌봐주시기 보다는 단기간 혹은 일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마. 시간 지원보다는 서비스 지원 확대 필요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 저는 일단 육아휴직이 육아휴직이 좀 더 많이 사회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인턴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대기업 제외하고는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가 좀 많이 보편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 (11. 20. 26세 미혼 남 참여자 면담 중)

다만 육아휴직 등과 같은 시간지원 정책은 동료들과의 관계 및 전반적 직장의 분위기나 사회적 인식의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무자와 같은 여전히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는 교사다 보니까 육아 휴직도 한 3년 정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좀 조절이 가

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런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좀 다른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 대부분이 다 이런 혜택을 분명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런 복지가 좀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1. 21. 38세 기혼 남 참여자 면담 중)

그렇기 때문에 면담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시간지원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주었지만, 한 면담 참여자는 현실적으로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돌보미 사업과 같은 서비스지원을 확대하여 시간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하였다.

제일 필요한 게 아무래도 서비스 지원이 아닐까 싶어요. 금전적인 거나 그런 것보다도, 솔직히 회사 생활하면서 육아(기) 단축 그거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 혼자 그걸 이용하기가 선뜻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뭔가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갑작스럽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돌보미 제도 그런 게 좀 확대돼서 좀 이용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짧은 시간이라도, 이게 내가 원했을 때 바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직장인들한테는...

(11. 21. 37세 기혼 여 참여자 면담 중)

특히 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는 초등시기까지 더 많이 확대되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제 생각은 육아 보육 지원? 관련된 게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 그 부분은 좀 사교육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아직 저희 아이가 국영수나 이런 거를 공부할 나이는 아니어서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 이제 방과 후에 좀 더 프로그램을 태권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프로그램을 좀 잘 짜주면 보육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1. 17. 40세 기혼 남 참여자 면담 중)

면담 참여자들이 이런 서비스 지원의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 속에는 한편으로 젊은 부모들이 사회생활을 보다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지원을 많이 해주면 아무래도 조금 생활하는 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편리하지 않을까, 엄마도 좀 더 훨씬 육아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정책이 좀 균등하게 좀 더 많은 국가에서 혜택이 더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11. 27. 52세 기혼 여 참여자 면담 중)

6. 소결

가. 부모됨에 대한 여론

2021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부모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였다. 반면에, 자녀 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는 문항에는 상대적으로 동의도가 낮았다. 이처럼,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와 더불어, 자녀의 주양육자는 부모여야 한다라는 생각과 부모 역할, 양육 방법, 부모-자녀 관계 교육 등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에 부담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식으로, 대학졸업 때까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취업할 때까지 해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이 다음을 이어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대학이나 그 이후까지 지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났다. 높은 대학등록금, 취업난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로는 고등학생 시기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비의 부담이 양육비용 중에서 가장 크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적, 실제적인 부모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상적인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의 아버지:어머니 비율은 4.28:5.72로 나타나 어머니의 분담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실제 부모역할 분담비율은 자녀양육과 가사분담에 대한 아버지:어머니 비율이 대략 3.5:6.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이상적인 수준보다 실제 아버지의 분담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과 가사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이유로 실제 양육과 가사의 분담이 이상적인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나.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결혼 가치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편이 좋

다는 의견에 남자는 절반을 훨씬 넘는 비율로 긍정했으나 여자의 긍정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결혼 필요성에 대한 뚜렷한 성차가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기혼 보다 미혼이 결혼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더 커서 갈수록 비혼 성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한 결과, '자녀가 있는 편이 좋다'가 과반이상을 차지했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없는 편이 좋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컸다. 젊은 연령대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 저출생의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많이 되어서' 같은 경제적인 이유가 약 40%에 달했다. 자녀 미래에 대한 선호도 역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선호하는 응답 비율은 거의 절반에 달해, 경제적인 문제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우려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자녀의 '경제적인 안정', 남성의 경우 '열정에 따른 삶'에 대한 선호 응답이 높게 나타나 여성이 더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과 우려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결혼과 자녀로 인하여 부모의 개인 생활이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확인한 점에서 젊은 세대의 경제적인 부담과 양육의 사회적 분담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육아 행복감에 대한 여론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아이를 키우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에 대한 동의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났으나, 자녀 양육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다'의 동의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육아 어려움에 대한 인식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는 평균 월 270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작년 조사(2020년) 240만원과 비교하여 약 30만원 상승하였다. 응답자 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응답한 경향이 있고,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비영유아 부모 보다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자녀 양육의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별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남성은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고, 반대로 여성은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 여성보다 남성이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심층면담의 일부 의견을 통하여 조부모 역시 손자녀의 돌봄을 통해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한편으로 조부모의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심층 면담을 통하여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전체 세대에 걸쳐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경험하여 이런 공감대가 더욱 확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육아정책을 설계하는데 두어야 할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남자, 자녀가 있는 경우,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지원'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성, 자녀가 없는 경우,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영유아(0~5세)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에서도, 여성, 자녀가 없는 경우,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정부의 재정적인 육아 지원 설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0~5세 무상보육·유아교육 이행'을 꼽았고,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뒤를 이었다.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0-5세 무상보육·유아교육 이행'이 우선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고, 50대 이상, 비영유아 부모는 '국가 개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아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 배경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82.6%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되어, 대다수가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는데, 영유아 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처질까 봐' 라는

불안 심리가 가장 컸으며 ‘하원 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라는 돌봄의 대안으로 꼽은 부모도 적지 않았다. ‘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시킨다는 경우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원 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역시 19% 가까이 응답되어,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안으로 영유아 사교육이 실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돌봄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시간지원 정책은 사회적 여건상 보편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아이 돌보미와 같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의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을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부가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가 가장 높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영유아 부모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한편 심층면담을 통해 노키즈존의 방침을 고수하는 업소에 대한 영유아 부모나 일반인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의외였는데 일률적인 기준을 부정적, 수동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육아를 환영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

2017~2021 KICCE 여론조사의 추이분석

01 수시 여론조사의 목적

02 수시 여론조사의 결과

03 소결

Ⅲ. 2017~2021 KICCE 여론조사의 추이분석

2017년부터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에는 매년 3,000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절반에 가까운 수로 유사하게 표집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시 거주자가 전체의 절반 가량이었으며 매년 각각 유사한 비중으로 표집되었다.

〈표 Ⅲ-1〉 2017~2018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 대상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2021		2020		2019		2018		2017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성별	남자	1,444	47.8	1,543	49.9	1,522	50.7	1,522	50.7	1,522	50.7
	여자	1,576	52.2	1,548	50.1	1,478	49.3	1,478	49.3	1,478	49.3
연령별	20대 이하	59	2.0	82	2.7	681	22.7	690	23.0	697	23.2
	30대	1,592	52.7	1,729	55.9	510	17	519	17.3	526	17.5
	40대	1,236	40.9	1,095	35.4	600	20	630	21.0	623	20.8
	50대이상	133	4.4	185	6.0	1209	40.3	1,161	38.7	1,154	38.5
거주지별	서울특별시	779	25.8	882	28.6	580	19.3	588	19.6	593	19.8
	광역시및특별자치시	779	25.8	853	27.7	805	26.8	779	26.0	783	26.1
	중소도시	1,221	40.4	1,149	37.3	1,484	49.5	1,490	49.7	1,491	49.7
	군(읍면지역)	241	8.0	200	6.5	131	4.4	143	4.8	133	4.4
결혼유무	미혼	42	1.4	527	17.0	910	30.3	579	19.3	922	30.7
	배우자 있음	2,956	97.9	2,517	81.4	1,942	64.7	2,312	77.1	1,922	64.1
	배우자 없음	22	0.7	47	1.5	148	4.9	109	3.6	156	5.2
자녀유무	1명	1158	38.3	1,177	38.1	575	19.2	668	22.3	553	18.4
	2명이상	1182	39.1	1,036	33.5	1,387	46.2	1,448	48.3	1,383	46.1
	자녀없음	680	22.5	878	28.4	1,038	34.6	884	29.5	1,064	35.5
영유아 자녀유무	영유아 부모	1,337	44.3	1,446	46.8	519	17.3	578	19.3	501	16.7
	비영유아부모	1,002	33.2	767	24.8	1,443	48.1	1,538	51.3	1,435	47.8
	자녀 없음	681	22.5	878	28.4	1,038	34.6	884	29.5	1,064	35.5
맞벌이 유무	맞벌이	1863	61.8	1,404	46.0	1,170	39.4	1,350	46.3	1,099	37.4
	외벌이	1075	35.7	1,055	34.6	641	21.6	849	29.1	695	23.6
	부부 다 비경제활동	12	.4	29	1.0	127	4.3	102	3.5	105	3.6

구분		2021		2020		2019		2018		2017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미혼 경제활동	56	1.9	483	15.8	819	27.6	481	16.5	708	24.1
	미혼 비경제활동	8	.3	80	2.6	211	7.1	136	4.7	335	11.4
학력별	고졸 이하	378	12.5	387	12.5	729	24.3	700	23.3	810	27.0
	전문대 졸	546	18.1	573	18.5	461	15.4	413	13.8	409	13.6
	대졸	1757	58.2	1,775	57.4	1,531	51.0	1,578	52.6	1,516	50.5
	대학원 졸 이상	339	11.3	356	11.5	279	9.3	309	10.3	265	8.8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1,964	65.0	1,964	63.5	1,932	64.4	1,832	61.1	1,805	60.2
	불규칙적 출퇴근 등	1,056	35.0	1,127	36.5	1,068	35.6	1,168	38.9	1,195	39.8
	전 체	3,020	100.0	3,091	100.0	3,000	100.0	3,000	100.0	3,000	100.0

1. 결혼 및 부모관에 대한 여론 변화

가. 부모됨 인식의 변화

부모됨의 인식에 관한 7개의 질문에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점, ‘별로 동의하지 않음’은 2점, ‘대체로 동의함’은 3점, ‘전적으로 동의함’은 4점으로 하여 동의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것이다.

부모됨에 대한 인식은 2018년을 제외한 4년간 조사에 포함이 되었는데, ‘부모가 되는 것이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응답자의 전체적인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지난 5년간 근소하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전체적인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지난 5년간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응답자의 전체적인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지난 5년간 다소 낮아진 경향을 볼 수 있다. ‘자녀가 영유아(초등 이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과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시간이 지나며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는 인식은 다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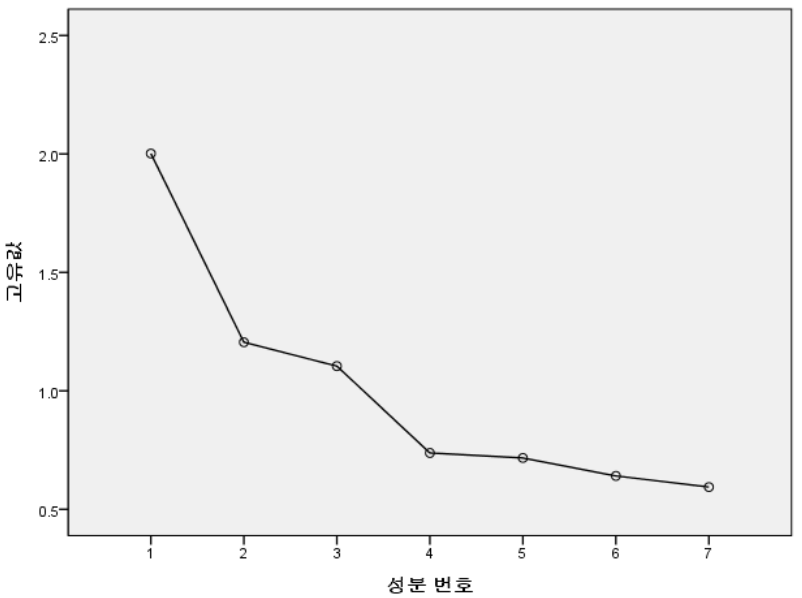
〈표 Ⅲ-1-1〉 부모됨 인식의 변화(4점 만점)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2017	3.27	0.68	(3,000)
	2019	3.22	0.70	(3,000)
	2020	3.23	0.69	(3,091)
	2021	3.23	0.68	(3,020)
	합계	3.24	0.69	(12,111)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2017	3.53	0.55	(3,000)
	2019	3.53	0.55	(3,000)
	2020	3.40	0.61	(3,091)
	2021	3.39	0.62	(3,020)
	합계	3.46	0.59	(12,111)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017	3.45	0.58	(3,000)
	2019	3.47	0.56	(3,000)
	2020	3.39	0.59	(3,091)
	2021	3.39	0.61	(3,020)
	합계	3.43	0.59	(12,111)
자녀가 영유아(초등 이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	3.35	0.59	(3,000)
	2019	3.30	0.60	(3,000)
	2020	3.15	0.66	(3,091)
	2021	3.15	0.68	(3,020)
	합계	3.24	0.64	(12,111)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2017	2.64	0.71	(3,000)
	2019	2.68	0.71	(3,000)
	2020	2.60	0.74	(3,091)
	2021	2.61	0.76	(3,020)
	합계	2.63	0.73	(12,111)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2017	2.92	0.74	(3,000)
	2019	2.89	0.74	(3,000)
	2020	2.96	0.73	(3,091)
	2021	2.96	0.75	(3,020)
	합계	2.93	0.74	(12,111)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2017	3.00	0.77	(3,000)
	2019	3.00	0.80	(3,000)
	2020	3.18	0.77	(3,091)
	2021	3.19	0.74	(3,020)
	합계	3.09	0.78	(12,111)

응답자의 부모됨의 가치관을 묻는 7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산출한 KMO 지수는 .656으로 다소 낮았으나 통상 .6 이상은 수용할만한 정도로 볼 수 있다. 한편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을 검증하였다(근사 χ^2= 7554.966, p<.001). 탐색적 요인분석의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Varimax 방법으로 직교회전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는 스크리도표를 참고하여 요인부하량 1을 기준으로 정한 결과 3개의 요인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림 Ⅲ-1-1] 부모됨 인식의 요인부하량 스크리도표



〈표 Ⅲ-1-2〉 부모됨 인식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756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749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660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809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766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888
자녀가 영유아(초등 이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565
아이겐 값	1.702	1.473	1.136
공통변량(%)	24.312	21.049	16.228
누적변량(%)	24.312	45.362	61.590

* 부적 상관으로 나와 이후 역코딩 하였음

먼저 요인 1은 사명으로 인식한 부모관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되는 일은 행복한 일이지만 어려움이 따르는 도전이기도 하며, 이 부모됨의 길을 가는 것은 논리적인 이유가 아닌 삶의 과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요인 2는 우려하는 부모관이다. 부모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하고, 부모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유연한 부모관이다. 자녀를 부모만 맡아야 하는 것이 아닌 친척이나 이웃, 나아가 사회와 육아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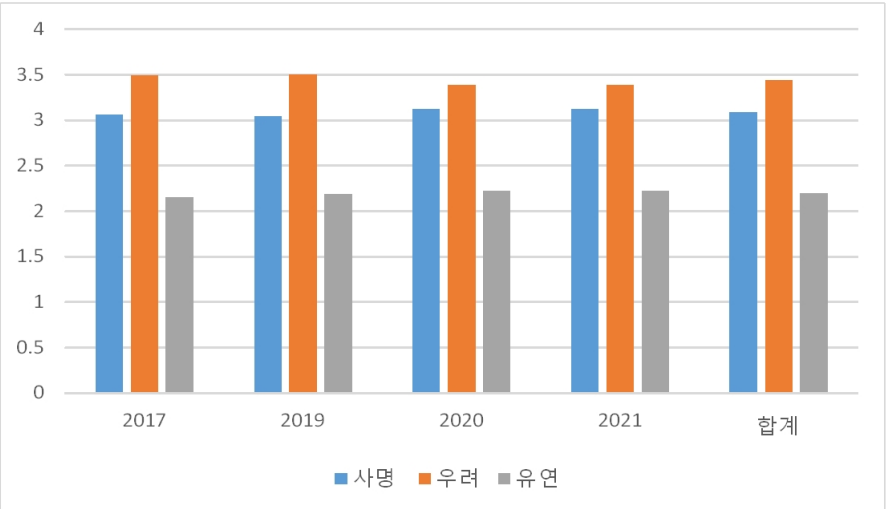
〈표 Ⅲ-1-3〉 부모관의 변화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sig*
사명적 부모관	2017	3.06	0.54	19.755	.000
	2019	3.04	0.56		
	2020	3.12	0.53		
	2021	3.12	0.53		
	합계	3.09	0.54		
우려하는 부모관	2017	3.49	0.46	47.721	.000
	2019	3.50	0.45		
	2020	3.39	0.49		
	2021	3.39	0.51		
	합계	3.44	0.48		
유연한 부모관	2017	2.15	0.49	16.968	.000
	2019	2.19	0.51		
	2020	2.23	0.54		
	2021	2.23	0.54		
	합계	2.20	0.52		

세 가지 부모관을 비교하면 우려하는 부모관이 가장 높다. 즉 대부분 부모됨에 대하여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준비가되지 못하면 부모가 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통적인 부모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명적 부모관이 뒤따랐고, 마지막으로는 유연한 부모관이 가장 낮은 동의를 얻었다. 여전히 육아는 부모가 전담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변량분석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려하는 부모관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사명적 부모관과 유연한 부모관은 다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Ⅲ-1-2] 부모관의 변화



나. 부모 역할 인식

다음은 응답자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두 개의 문장 중 보다 동의하는 한쪽에 응답하도록 한 결과이다. 편의상 부모 역할을 묵묵한 지원자라고 답한 것 1점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응답은 2점을, 또 자녀 역할을 부모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답에 1점을 자녀가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는 답에 2점을 부여하여 평균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부모의 역할에 대해 '부모는 자녀의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부모의 역할: 부모는 자녀의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 (1점) vs.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2점)

단위: 점, (명)

부모역할: 묵묵한 지원자 vs. 이끄는 사람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2017	3,000	1.31	0.46
2019	3,000	1.31	0.46
2020	3,091	1.32	0.47
2021	3,020	1.30	0.46
합계	12,111	1.31	0.46

다음의 표는 자녀 역할을 부모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답에 1점을 자녀가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는 답에 2점을 부여하여 평균으로 비교하였다. 자녀의 역할에 대해 응답자는 대부분 자녀양육은 부모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부담가질 일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표 Ⅲ-1-5〉 자녀의 역할: 부모에게 보답해야(1점) vs.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의무(2점)

단위: 점, (명)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2017	3000	1.64	0.48
2019	3000	1.71	0.45
2020	3091	1.75	0.43
2021	3020	1.77	0.42
합계	12111	1.72	0.45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질문과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한 결과를 평균하여 구하였다. 먼저 경제적인 지원을 '고등학교 졸업까지'라고 답한 결과는 1점, '대학 졸업까지'라고 답한 결과는 2점, '취업할 때까지'라고 답한 결과는 3점, '결혼할 때까지'라고 답한 결과는 4점,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라고 답한 결과는 5점, '평생동안' 이라고 답한 결과는 6점을 부여하여 산술 평균을 구하였다. 한편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한 질문 역시 '영아기'라고 답한 결과는 1점, '유아기'라고 답한 결과는 2점, '초등저학년'이라고 답한 결과는 3점, '초등고학년'은 4점, '중학생'이라고 답한 결과는 5점, '고등학생'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6점을 배정하였다. 이에 대한 2017-2021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1-6〉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과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경제적 지원 기간			양육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2017	3,000	2.37	1.11			
2019	3,000	2.41	1.09	3,000	5.19	1.47
2020	3,091	2.38	1.17	3,091	5.23	1.33
2021	3,020	2.43	1.18	3,020	5.15	1.39
합계	1,2111	2.40	1.14	9,111	5.19	1.40

연구진은 가정 내 부모의 성역할 인식에 대하여도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생각과 일치 정도를 4점 척도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로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라는 문항과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만점으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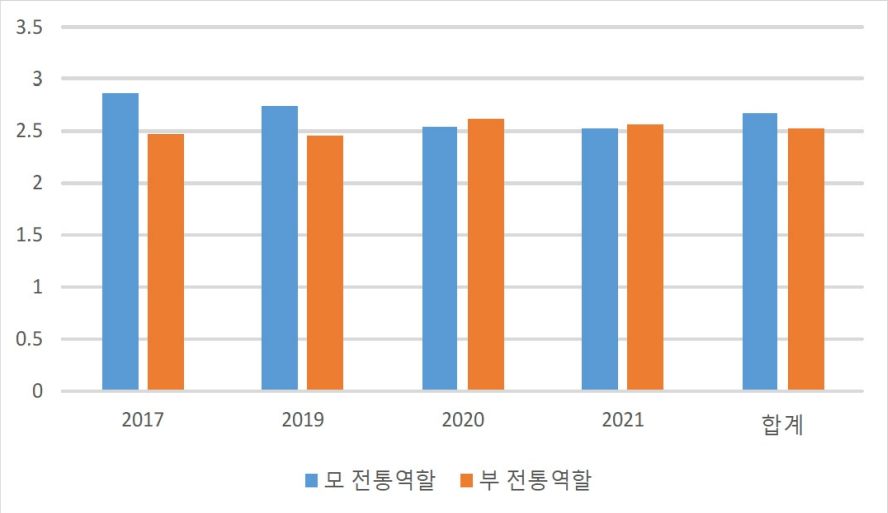
〈표 Ⅲ-1-7〉 부모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명, 점

구분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2017	3,000	2.87	0.74	3,000	2.48	0.79
2019	3,000	2.74	0.78	3,000	2.46	0.79
2020	3,091	2.54	0.76	3,091	2.61	0.78
2021	3,020	2.52	0.77	3,020	2.56	0.81
합계	12,111	2.67	0.78	12,111	2.53	0.79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 중 하나인 어머니의 역할 중 양육을 전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아래의 그림에서 아버지의 돈을 벌어오는 역할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Ⅲ-1-3] 부모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다. 좋은 부모 가능성 인식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부모로서 자신을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이다. 응답은 5점 만점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임' 2점, '보통' 3점, '그런 편임'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도가 높은 것이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스로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보통 이하로 부정적인 편이었다.

〈표 Ⅲ-1-8〉 (자녀가 있는 경우) 좋은 부모 정도: 자기 평가 (5점 만점)

단위: 점, (명)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2017	1936	2.70	0.79
2019	1962	2.75	0.81
2020	2198	2.73	0.74
2021	2324	2.71	0.75
합계	8420	2.72	0.77

한편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게 미래에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이다. 응답은 5점 만점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임' 2점, '보통' 3점, '그런 편임'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도가 높은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스로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보통 이하로 부정적인 편이었으나 실제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응답보다는 조금 높았다.

〈표 Ⅲ-1-9〉 (자녀가 없는 경우) 좋은 부모가 될 정도: 자기 평가 (5점 만점)

단위: 점, 명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2017	1,064	2.79	0.98
2019	1,038	3.00	1.06
2020	893	2.98	0.95
2021	696	2.90	0.95
합계	3,691	2.92	1.00

라. 결혼 가치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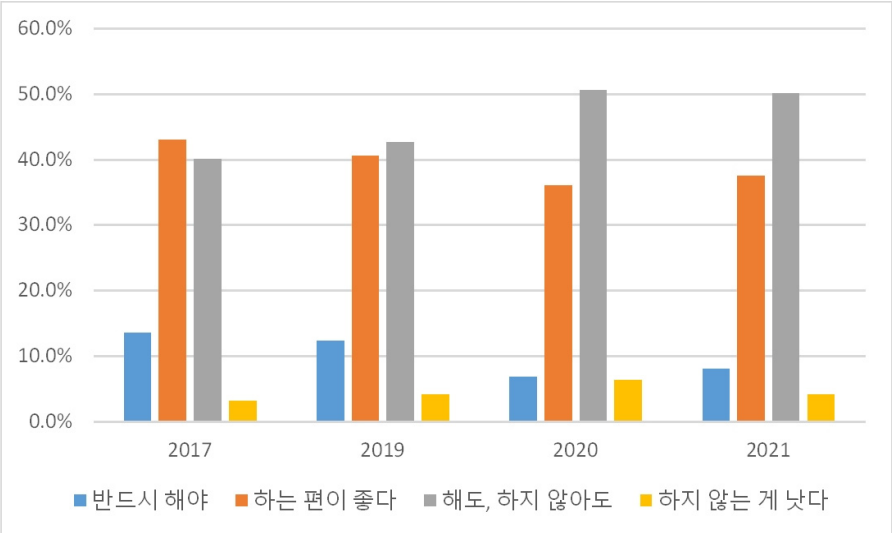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지, 하는 편이 좋은지, 해도, 하지 않아도 좋은지,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이 나은지 묻는 질문에 지난 5년간 국민 응답에는 큰 변화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답변이 빠르게 줄고 있다.

〈표 Ⅲ-1-10〉 결혼에 대한 생각의 변화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하는 편이	해도, 하지 않아도	하지 않는 것이	계
2017	13.6(409)	43.0(1,291)	40.1(1,203)	3.2(97)	100.0(3,000)
2019	12.4(373)	40.6(1,219)	42.7(1,282)	4.2(126)	100.0(3,000)
2020	7.0(215)	36.1(1,116)	50.6(1,564)	6.3(196)	100.0(3,091)
2021	8.1(244)	37.5(1,134)	50.2(1,516)	4.2(126)	100.0(3,020)
합계	10.2(1,241)	39.3(4,760)	45.9(5,565)	4.5(545)	100.0(12,111)

[그림 Ⅲ-1-4] 결혼에 대한 생각의 변화



2. 영유아 부모 인식의 변화

가. 영유아 부모의 양육과 가사의 분담

2018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5년간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양육과 가사를 얼마나 분담하고 있는지 물어왔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 분담은 5년간 평균 약 33% 정도였으며, 가사 분담은 이보다 조금 높은 35.5%이었다. 여전히 양육과 가사는 어머니가 주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점진적이나마 양육과 가사 모두에서 아버지의 분담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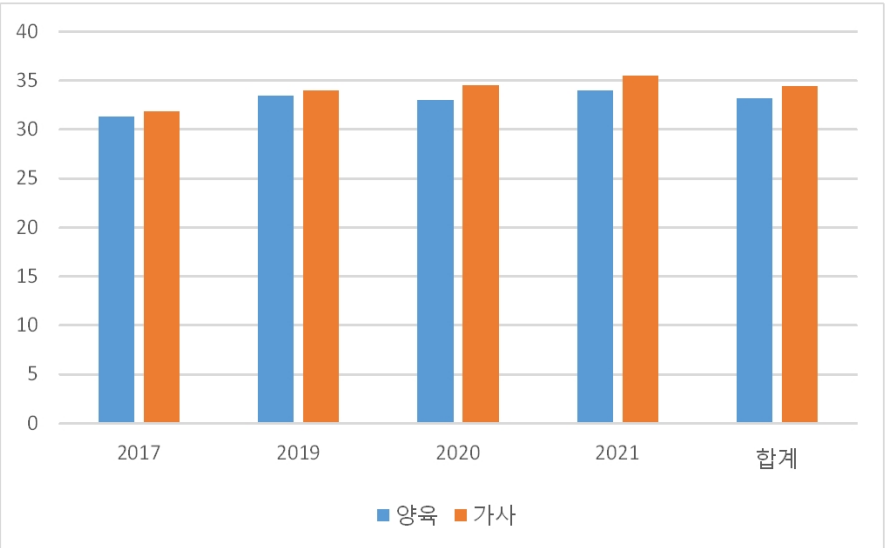
〈표 Ⅲ-2-1〉 영유아 아버지의 양육과 가사 분담 실제의 변화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sig*
양육 분담	2017	(501)	31.36	1.51	4.075	.007
	2019	(510)	33.45	1.53		
	2020	(1319)	33.04	1.40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sig*
	2021	(1330)	33.95	1.41		
	합계	(3660)	33.20	1.44		
가사 분담	2017	(501)	31.90	1.75	5.416	.001
	2019	(510)	33.98	1.75		
	2020	(1319)	34.50	1.75		
	2021	(1330)	35.51	1.70		
	합계	(3660)	34.44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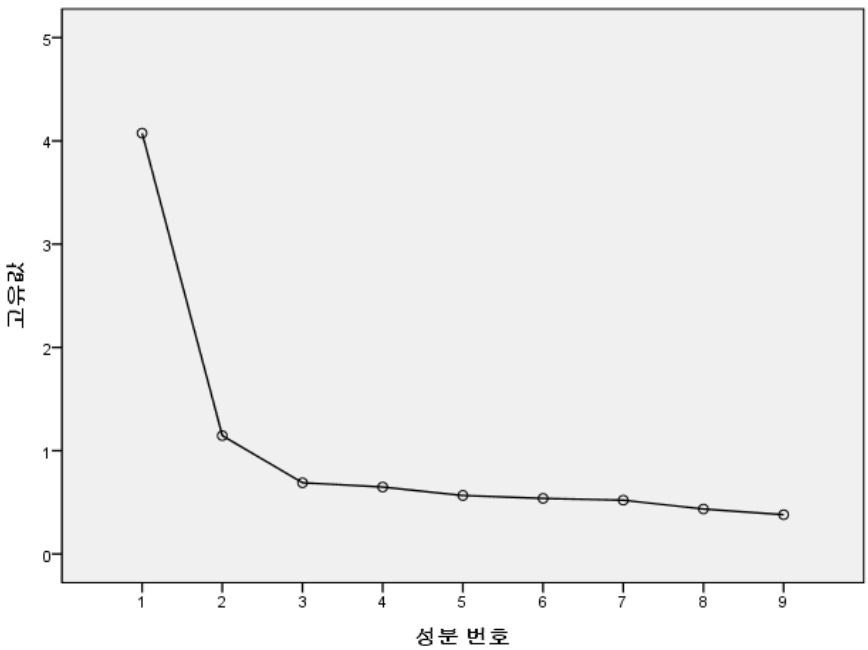
[그림 Ⅲ-2-1] 영유아 아버지의 육아와 가사 분담 실제의 변화



나. 영유아 부모 양육 효능감의 변화

영유아 부모 응답자의 양육 효능감을 모두 9문항으로 물어보았다. 해당 설문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산출한 KMO 지수는 .896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왔다. 한편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검증하였다(근사 χ^2= 5556.915, p<.001). 탐색적 요인분석의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Varimax 방법으로 직교회전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는 스크리도표를 참고하여 요인부하량 1을 기준으로 정한 결과 2개의 요인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림 Ⅲ-2-2] 부모됨 인식의 요인부하량 스크리도표



〈표 Ⅲ-2-2〉 영유아 부모 양육효능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1	요인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821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809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754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693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667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514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한다.		.79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788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520
아이겐 값	3.337	1.884
공통변량(%)	37.079	20.934
누적변량(%)	37.079	58.013

먼저 요인1은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 효능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스스로를 좋은 부모 역할로, 아이를 돌보는 데 유능하다고, 아이와의 문제를 잘 다루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또 아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항이다. 반면 요인2는 “소통 효능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스스로의 행동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며, 아이 자신이 잘못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잘 맺는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양육효능감 설문은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두 해 동안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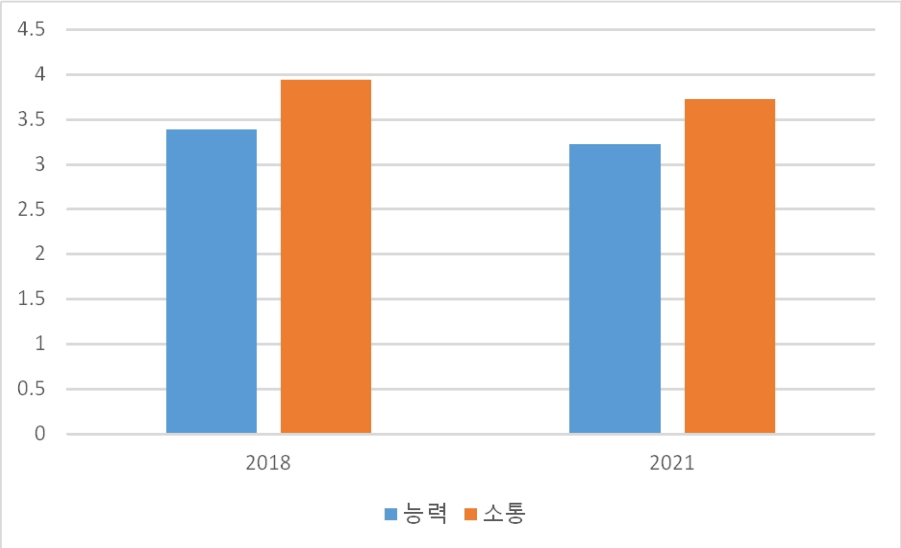
〈표 Ⅲ-2-3〉 영유아 부모 양육효능감의 변화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sig*
능력 효능감	2018	(582)	3.389	0.558	5.571	.000
	2021	(1337)	3.230	0.582		
소통 효능감	2018	(582)	3.939	0.534	7.399	.000
	2021	(1337)	3.723	0.608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능력효능감과 소통효능감 모두 2018년에 비하여 2021년에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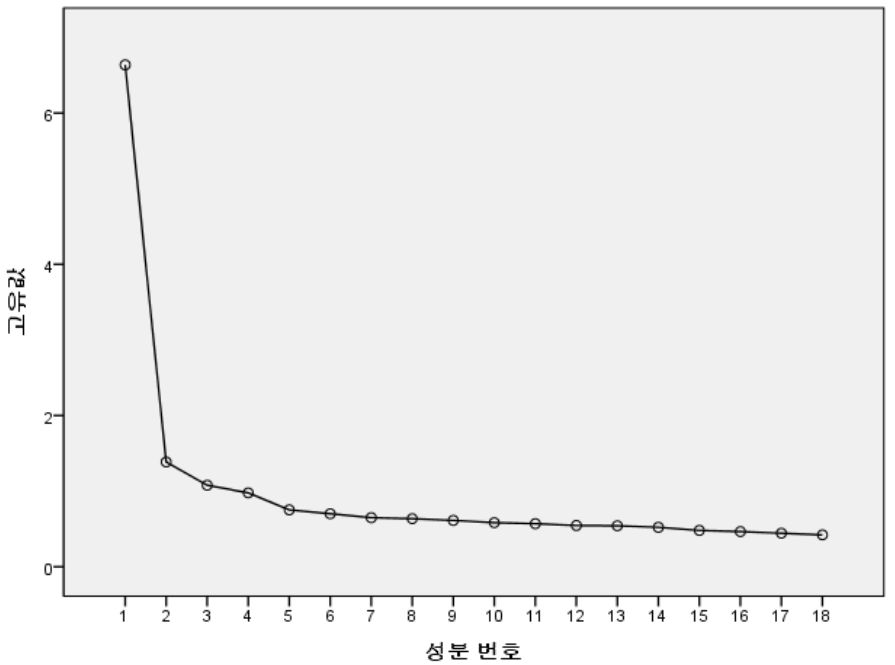
[그림 Ⅲ-2-3] 영유아 부모 양육효능감의 변화



다. 영유아 부모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

영유아 부모 응답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모두 18문항으로 물어보았다. 해당 설문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산출한 KMO 지수는 .946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 한편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검증하였다(근사 χ^2= 11261.044, p<.001). 탐색적 요인분석의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Varimax 방법으로 직교회전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는 스크리 도표를 참고하여 요인부하량 1을 기준으로 정한 결과 3개의 요인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림 Ⅲ-2-4] 영유아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요인부하량 스크리도표



〈표 Ⅲ-3-4〉 영유아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아이가 잔소리 없이는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726		
아이가 나를 귀찮게하거나 칭얼대며 불평 한다.	.678		
아이 밥 먹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거나 불평하는 등)	.634		
아이가 친구들과 지내는 데 문제가 있다.(예를 들어, 싸우거나 사이 좋게 지내지 못 하거나 친구가 없는 등)	.601		
집안일을 하는데 아이가 끊임없이 걸리적거린다.	.551		
공공장소(식품가게, 쇼핑센터, 음식점)에서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536		
아이는 나에게 함께 놀아주거나 재밌게 해 달라고 조른다.		.668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45	
나는 아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나 음식물을 계속 치워야 한다.		.607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자지 않으려고 해서 힘이 들 때가 있다.		.534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야만 한다.		.502	
예상치 못했던 아이의 일로 인해 내 계획을 바꿔야 할 때가 많다.		.497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아이 돌보는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725
아이의 스케줄(유치원/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때문에 나의 일이나 가정 일에 지장이 있다.			.686
밤에 아이를 두고 나가거나, 다른 곳에 맡기고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645
아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510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더럽혀서 갈아 입혀야 한다.			.435
외출할 때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기 위해 아이를 준비시키려면 어렵다.			.420
아이겐 값	3.269	2.999	2.832
공통변량(%)	18.161	16.663	15.732
누적변량(%)	18.161	34.823	50.555

먼저 요인1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의사소통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인2는 아이가 기질적으로 활발하여 일어나는 즉, “개구장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요인3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말썽을 부리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닌 아이를 돌보는데서 오는 순수한 일정관리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일정관리 스트레스”라고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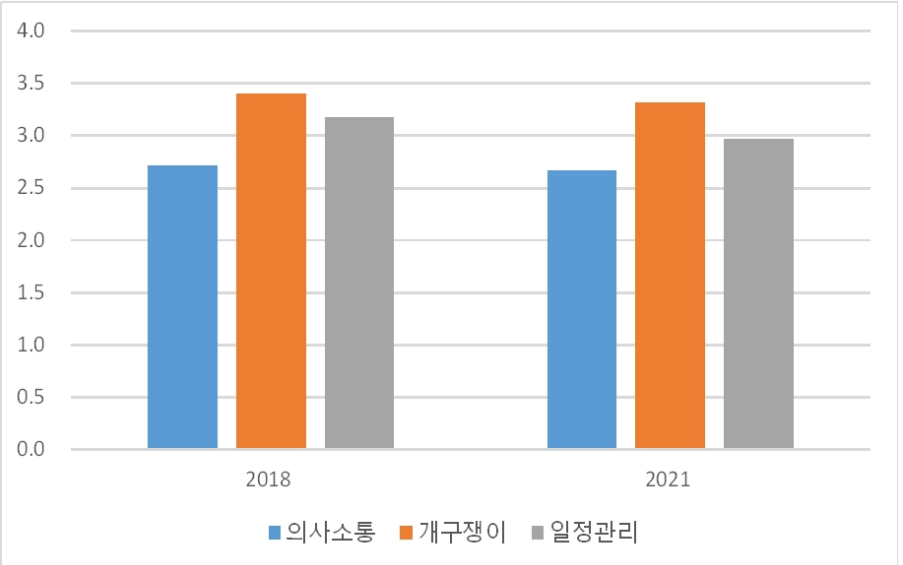
〈표 Ⅲ-2-5〉 영유아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sig*
의사소통 스트레스	2018	(582)	2.719	0.688	1.282	.200
	2021	(1337)	2.675	0.702		
개구쟁이 스트레스	2018	(582)	3.402	0.643	2.407	.016
	2021	(1337)	3.323	0.671		
일정관리 스트레스	2018	(582)	3.177	0.784	5.301	.000
	2021	(1337)	2.975	0.763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응답자들에 비하여 2021년 응답자들은 양육 스트레스가 조금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소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개구쟁이 스트레스와 일정관리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2-5] 영유아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3. 소결

가. 부모됨에 대한 여론의 변화

지난 5년간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부모됨에 대한 여론은 부모가 되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영유아는 가급적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양육을 담당해야 한다 등의 문항에 대하여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인 의견이 줄어들어 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부모관을 요인분석하여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부모됨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유형이 가장 높았고, 자유롭고 유연하게 여기는 유형은 가장 낮았다. 저출생이 오래 지속되는 한 이유를 이처럼 부모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소 희망적인 부분은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유연한 부모관은 조금씩 증가하고, 우려하는 부모관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변화의 흐름이 관찰되는 점이다.

한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대체로 부모는 자녀를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봉양의 의무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내리사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자식보다는 부모의 의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고, 이런 경향도 갈수록 강화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특이한 점은 어머니의 역할은 가정에서 사회로 점차 나아와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으나, 아버지의 역할은 여전히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고정되어 있거나 오히려 더 강화되어 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서,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나.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의 변화

결혼 가치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는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특히 성별 차이가 더욱 커져서 2021년 남자는 긍정적인 의견이 59.8%이었으나 여자는 32.6%로 분석되어, 결혼 필요성에 대한 성차가 두드러졌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한 결과, ‘자녀가 있는 편이 좋다’ 가장 높았으나 이전보다 그 수치는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자녀 미래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니,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선호하는 응답의 비율이 두드러졌다. 또한 부모역할 선호도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권위 있는 부모’ 보다 ‘친구 같은 부모’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다.

다. 영유아 부모 인식의 변화

영유아 부모의 가정 내 양육 및 가사의 분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분담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사인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40%도 채 되지 않는 수치는 여전히 가정 내 양육과 가사가 어머니가 전담하거나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영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요인분석한 결과 두 가지 유형의 양육 효능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역량으로 파악하는 능력 효능감과, 자녀와 관계를 중시하는 소통 효능감인데 상대적으로 능력 효능감보다 소통 효능

감이 훨씬 높아, 향후 부모의 양육 지원에 있어서 지식이나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2018년에 비하여 2021년에 응답한 응답자들은 더 낮은 효능감을 보여, COVID-19 이후로 가정내 양육이 증가하고, 자녀와 보내는 절대시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역략 지원 프로그램은 더욱 절실하다.

영유아 부모는 양육 스트레스 관련 설문도 추가로 응답하였는데, 양육 스트레스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높은 순으로 개구쟁이 스트레스, 일정관리 스트레스, 의사소통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의 특성, 혹은 개인의 기질적 특성에 부모가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상하게 하였고, 자녀의 특성과 무관하게 자녀가 있음으로 인하여 각종 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작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8년에 비하여 이런 스트레스는 소폭 줄어들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Ⅳ

수시 여론조사

01 수시 여론조사의 목적

02 수시 여론조사의 결과

03 소결

Ⅳ. 수시 여론조사

1. 수시 여론조사의 목적

2020년 COVID-19 발발로 인하여 가정 내 양육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그간 기관을 통한 양육이 강화되어가던 추세가 급격히 약화되며 가정 내 양육이 확연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2020년 처음으로 가정 내 학습환경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2021년에도 그 추이 및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수시 여론조사의 결과

수시 여론조사는 2020년 6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가정 내 학습환경 관련 조사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조사 대상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6월에 실시했던 2020-1차 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총 767명의 영유아 부모였으며 이 중 67.5%인 총 518명이 2020년 11월에 실시한 2020-2차 설문에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800명 중 269명은 2020년 수시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이며 531명은 2021년 조사에 처음 참여한 응답자이다. 영아와 유아 자녀가 모두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생년과 관계없이 생월과 생일이 빠른 자녀를 기준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영아부모는 186명, 유아부모는 614명이었다.

〈표 Ⅳ-2-1〉 2021 수시 여론조사 표본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800	100.0
취학 전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186	23.3
	유아(3~6세)	614	76.8

구분		사례수	비율
자녀 성별	남아	441	55.1
	여아	359	44.9
자녀수	1명	441	55.1
	2명	303	37.9
	3명 이상	56	7.0
성별	남자	346	43.3
	여자	454	56.8
연령별	30대 이하	560	70.0
	40대 이상	240	30.0
자녀 소속 기관별	가정 내 양육 기타	137	17.1
	어린이집	406	50.8
	유치원	257	32.1
지역별	서울수도권	476	59.5
	충청권	85	10.6
	호남권	54	6.8
	영남권	185	23.1

800명의 응답자에게 어제 하루 동안 자녀의 가정 내 학습 활동에 대해서 물었더니 총 약 4시간(236.52분)의 활동을 보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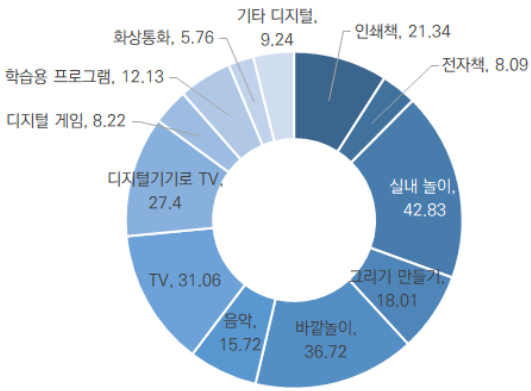
〈표 Ⅳ-2-2〉 2021 영유아 자녀의 하루 동안 가정 내 학습관련 활동 시간(분) 평균

(n = 800)

가정 내 학습 관련 활동	시간(분)
인쇄책자 읽은 시간	21.34
전자책 읽은 시간	8.09
실내 놀이	42.83
그리기 만들기	18.01
바깥놀이	36.72
음악연주나 감상	15.72
TV	31.06
디지털기기로 TV	27.40
디지털 게임	8.22
학습용 프로그램	12.13
화상통화	5.76
사진찍기 등 기타 디지털	9.24
총계	236.52

[그림 Ⅳ-2-1] 2021 영유아 자녀의 하루 동안 가정 내 학습관련 활동 시간(분) 평균

단위: 분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활동은 (디지털 기기를 제외한) 장난감을 사용한 실내 놀이로 하루 평균 42.83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바깥놀이로 36.72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를 직접 시청하거나 컴퓨터, 태블릿 등을 이용해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간이 도합 58.46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유아 자녀의 취침 시각, 기상 시각, 수면 시간을 물어본 질문에 평균 수면 시간은 10시간 5분으로 나타났고, 취침 시각은 평균 오후 9시 43분, 그리고 평균 기상 시각은 오전 7시 31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3〉 2021 영유아 자녀의 취침 시각, 기상 시각, 그리고 수면 시간

(n = 80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취침 시각 (시)	21.708	0.968
기상 시각 (시)	7.515	1.054
수면 시간 (시간)	10.076	1.128

한편 2020년과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2020년과 2021년에 모두 응답한 269명의 응답자의 분석을 비교하였다. 지난 한 주간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 횟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2020년에는 평균 5.952회라고 응답하였으나 2021년에는 5.807회라고 답해 1년 전과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Ⅳ-2-4〉 지난 한 주간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 횟수

(n = 269)

구분	2021년		2020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주일 간 책 읽어준 횟수 (회)	5.807	7.222	5.952	8.340	.266	.791

한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어제 하루 동안 활동시간(분)을 물어보았다. 먼저 인쇄된 책을 읽은 시간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에 대하여 2020년 평균 14.5분에 비하여 2021년에는 20.6분으로 많이 늘어났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여 전자책을 읽은 시간에 대해서 물은 질문에서도 2020년 2.7분이었던데 반해 7.4분으로 의미 있는 향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리기나 만들기와 같은 미술활동에 대해서도 2020년 12분에 비하여 2021년 19.6분으로 늘어났고, 디지털 기기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역시 2020년 17.1분에 비하여 2021년 28.7분으로 늘어났다. 한편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한 게임의 시간도 2020년 4.6분에 비하여 2021년 7.3분으로 늘어났고, 컴퓨터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학습용 프로그램의 사용도 2020년 7.9분에 비하여 2021년 11.1분으로 늘어났다. 화상통화 시간 역시 2020년 2.4분에 비하여 2021년 6.2분으로 상승했고, 사진 찍기와 같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사용한 기타 활동 시간 역시 3.2분에서 9분으로 늘어났다. 반면 2021년 조사에서 실내놀이는 40.4분, 바깥놀이 33.8분, 텔레비전 시청 31.2분으로 사용한 시간이 많았지만 2020년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Ⅳ-2-5〉 자녀 연령별 지난 한 주간 자녀와 한 활동의 횟수

단위: 회
(n = 269)

구분	2021년		2020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쇄책	20.580	19.581	14.483	17.405	4.471	.000
전자책	7.446	15.106	2.714	9.768	4.778	.000
실내 놀이	40.375	40.027	35.691	47.106	1.389	.166
그리기 만들기	19.643	18.781	12.026	19.081	5.358	.000
바깥놀이	33.818	38.871	32.662	43.684	.340	.734
음악연주나 감상	12.543	19.198	11.030	24.950	.906	.366
TV	31.197	31.974	29.632	39.954	.623	.534

구분	2021년		2020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디지털 기기로 TV	28.662	39.975	17.119	27.945	4.752	.000
디지털 게임	7.290	14.715	4.610	13.718	2.696	.007
학습용 프로그램	11.119	16.920	7.937	19.160	2.419	.016
화상통화	6.164	11.343	2.383	6.490	5.166	.000
사진찍기 등 기타 디지털	8.967	14.795	3.234	9.261	5.631	.000

자녀의 취침 시각, 기상 시각, 그리고 수면 시간을 각각 물었는데 2020년의 결과와 2021년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기상 시각에 있어서 2020년 평균은 오전 7시 48분이었던데 비하여 2021년에는 오전 7시 38분으로 다소 일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취침시각과 수면시간 보고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2020년과 2021년 영유아의 수면시간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표 Ⅳ-2-6〉 자녀의 취침 및 기상 시각과 수면시간

(n = 269)

구분	2021년		2020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취침 시각 (시)	21.717	0.834	21.714	1.056	.062	.951
기상 시각 (시)	7.639	0.833	7.792	1.288	-2.155	.032
수면 시간 (시간)	10.078	1.010	10.130	1.316	-.612	.541

3. 소결

가. 가정 내 활동 시간의 변화

COVID-19 감염병 발생 직후인 2020년 조사에서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영유아의 가정 내 활동 시간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박원순 외, 2020).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등원율과 머무는 시간 등이 다른 환경에서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 영유아의 가정 내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COVID-19 가 장기화되며 올해 조사에서는 영유아의 가정 내 활동, 특히 실내의 활동이 고루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서 시간, 놀잇감을 사용한 놀이 시간, 그림 그리기, 음악 등 전반적인 활동이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영유아의

기관 양육이 증가하던 추세에서 COVID-19 장기화로 인하여 가정 내 활동이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 전자기기 사용의 증가

2020년 조사의 특징 중 하나는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ICT 기기 활용률이었다(박원순 외, 2020). 많은 우려와 달리 우리나라 영유아의 ICT 의존율은 매우 낮았으며 2020년 조사에서 1차 2차 조사 간 차이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는 전자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ICT 기기의 활용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2020년에 비하여 유의미한 증가가 보이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전반적인 ICT 기기의 활용 시간이 늘어났다. 가정 내 시간이 증가하면서 성인을 비롯한 영유아의 ICT 기기 활용 시간도 역시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다. TV 프로그램 시청시간 증가

TV 시청 시간이 TV 수상기를 이용한 시청과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TV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조사하였기에 전체적인 활동시간에서 3, 4번째로 많은 시간으로 집계되었지만, 이 둘을 합하면 하루 평균 한 시간 내외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어 하루 동안 가정 내 활동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라. 시사점

COVID-19 감염병 발생이 영유아의 가정 내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2020-2021년 조사를 통하여 가정 내 학습활동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 그리고 그 중에 ICT 기기의 활용과 TV 프로그램의 시청시간도 늘어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ICT 기기의 활용이 대폭 늘어나 영유아의 안전 및 건강을 유의해야 할 수준은 아니었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는 TV 프로그램 시청시간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반적인 가정 내 활동의 향상에 수반한 면도 있으므로 부정적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01 육아문화 전반의 변화

02 COVID-19가 육아문화에 미친 영향

03 인식과 정책요구도의 차이

V. 결론 및 제언

1. 육아문화 전반의 변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친 여론조사를 통하여 눈에 띄게 드러난 여론의 특징을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육아에 대한 공공의 관여 증대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개인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육아가 점차 지역사회 및 국가의 관여를 갈수록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고, 또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즉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양육의 책임을 부모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인식이 이전 세대에도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육아 비용이 적지 않다는 인식이 오래도록 지속되며 오롯이 부모만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경제적, 시간적으로 수월하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양육과 관련한 견해나 문화가 소득에 따라 격차가 관찰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역사회의 양육지원은 이와 같은 경제적 배경에 따른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긴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나. 저출생 문제의 심화

우리 사회의 최근 가장 핵심적인 화두 중 하나인 저출생은 육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국가의 미래와 관계된 매우 첨예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난 5년간 여론은 출산과 결혼을 직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고, 출산을 계획하더라도 계획한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나아가 젊은 세대, 특히 여성의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큰 것은 저출생의 문제가 근시일 내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임을 알게 했다. 한편 결혼 외 출산에 대한 인식은 보다 긍정적

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이런 접근이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의 대안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다. 육아 관련 정책에 대한 긍정적 여론

여론조사를 통하여 육아관련 정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여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근의 육아관련 정책에 대한 여론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적극적인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늘어나던 경제적 부담감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육아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 이에 대한 일·가정 양립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단기간의 변화는 감지되지만 여전한 소득 격차, 성별, 세대별 견해의 차이는 이러한 육아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2. COVID-19가 육아문화에 미친 영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친 여론조사를 통하여 도드라진 여론의 또다른 특징적 변화는 COVID-19가 우리 삶과 인식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이다. 물론 유례없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행한 감염병의 영향이 지대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곳에까지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육아문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 가정 내 양육 시간의 증가

COVID-19로 인하여 초기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 등 가정 내 양육의 시간이 늘어났다. 또한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며 재택근무의 확대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유연근무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이로 인해 가정 내 양육 시간이 이전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물론 이로 인한 부작용

도 일부 감지되어 영유아 부모의 경우 육아 스트레스 증가가 보였는데, 이런 육아 문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밀착형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각종 시간지원 정책은 일부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자에게는 유용할 수 있으나 대다수 직장인들은 여전한 눈치 속에서 차라리 서비스 지원의 확대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아이돌보미와 같이 수요가 많은 육아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나. 사회관계의 변화

COVID-19로 인한 가정 내 양육이 늘며 부모들만이 온전히 육아를 감당하기는 이전보다 훨씬 벅찬 환경이 되었다. 이로 인해 친척 및 친구와 이웃의 양육 도움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아 관련 사회관계의 증가와는 달리 오히려 일반적인 사회관계는 줄어들어 전반적 인간관계는 축소되었다. 또한 양육과 관련된 인간관계가 보다 많아지며 이로 인한 친지, 친구, 이웃 등과의 갈등 역시 함께 늘어난 것이 관찰되었다.

3. 인식과 정책요구도의 차이

소득과 맞벌이 등의 유형에 따른 부모됨 등 양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다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가. 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육체적인 부분보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도가 더 많았다. 그리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회사의 지원이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더욱 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외벌이인 경우 자녀 양육을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물리적인 어려움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현재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보다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이 더 확대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관 및 부모됨의 가치관은 전통적인 가치관과는 차이가 있는 경향을 보여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등의 의견에 대한 동조가 높은 편이었다.

즉, 출생률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혼 및 자녀관 등의 가치관은 경제적인 배경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배경을 지닌 응답자의 경우, 다양한 직장 및 정부의 제도의 변화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 배경별 가치관의 차이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답자의 성별, 영유아 자녀의 유무, 가구소득으로 볼 수 있었다. 자녀 유무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덜 두드러지는데 반하여 영유아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서 가치관의 격차가 확대되어 가는 것은 유의할 점이다.

즉, 우리 사회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성별에 따른 시각차가 존재하며, 소득에 따라서도 양육관, 부모됨의 가치, 자녀관 등의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 자녀의 유무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는 영유아 자녀의 양육이 생애주기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결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김동훈·김문정(2019).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Ⅲ). 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Ⅰ). 육아정책연구소.

박원순·김은영·박은영(202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Ⅳ).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최효미·이혜민(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육아정책연구소.

Doo-Sub, K. (2018). Sociodemographic Determinants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Korea. In C. Goldscheider (Ed.), *Fertility Transitions, Family Structure, And Population Policy*. Routledge.

Hill, M., & Irving, Z. (2020). *Exploring the World of Social Policy - An International Approach*. Policy Press.

Jimenez, J. A., Pasztor, E. M., Chambers, R. M., & Fujii, C. P. (2015). *Social Policy and Social Change: Toward the Creation of Social and Economic Justice (Vol. 9)*. SAGE.

Kraft, M. E., & Furlong, S. R. (2021). *Public Policy: Politics, Analysis, and Alternatives*. SAGE.

Zero to Three (2016). Tuning in national parent survey report.

Abstract

KICCE Poll on Parenting Policy for Establishing Happy Child Care Culture (V)

Wonsoon Park, Yoon Kyung Choi, Heesue Kim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has been conducting "KICCE Poll on parenting policy for establishing happy child care culture" for 5 years from 2017 to 2021. The main survey has targeted 3,000 citizens aged 15 to 75 years nationwide each year, and questions are composed of fixed questions ba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It identifies trends in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the happiness of parenting and child care. In addition, Focus Group Interviews by gereation were held four times this year. Lastly, A questionnaire was also conducted to identify chang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in the home due to COVID-19 for 800 parents of young children, including 269 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ame survey last year, to find out the changes between two years.

The brief results reveal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urden on the cost of child care has been increased.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cause of the avoidance of marriage and childbirth as economic difficulties, which revealed that the problem of low birthrate was more fundamental and structural.

Second, the policy for work-family balance seems to me the most successful among the government's parenting-related policies. There are, however, still significant differences male and female parenting responsibilities.

Third, it is confirmed that positive opinions about the government's parenting-related cash allowance policy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couple of years of COVID-19. It appears to be the result

of positive experiences of the government's child care allowance related to COVID-19.

Fourth,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s overall parenting policy is steadily increasing.

Fifth, while the prolonged period of COVID-19 increases the difficulty of raising in the home, it is understood that the quality of nurturing and education in the home is maintained at a certain level. However, the amount of learning activities at home is too low. Hence, diverse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support home learning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described above, a policy to support parenting, especially gender equal parenting and to strengthen family 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vercome low birthrates with increased welfare programs, expanded child allowance.

Keyword: Parenting survey, Child care policy, Gender equal parenting, COVID-19

부록

부록 1. 정기 여론조사 설문지

2021 KICCE 육아정책 정기 여론조사(V)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국가수준의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V)」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육아정책, 환경 등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관련:**	박원순 연구위원	02-398-7741, (wonsoonpark@kicce.re.kr)
	김희수 연구원	02-398-7793, (heesue@kicce.re.kr)

육 아 정 책 연 구 소

Ⅰ. 기초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2.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 ② 울산광역시 □ ③ 전라북도
□ ④ 부산광역시 □ ⑤ 세종특별자치시 □ ⑥ 전라남도
□ ⑦ 대구광역시 □ ⑧ 경기도 □ ⑨ 경상북도
□ ⑩ 인천광역시 □ ⑪ 강원도 □ ⑫ 경상남도
□ ⑬ 광주광역시 □ ⑭ 충청북도 □ ⑮ 제주특별자치도
□ ⑯ 대전광역시 □ ⑰ 충청남도

3. 귀하의 거주지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도시(특별·광역·특별자치시 이외 시 소재) □ ② 군(읍·면 지역)

4. 귀하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5. 귀하의 혼인여부에 대하여 응답해주십시오.

□ ① 미혼 □ ② 배우자 있음(기혼, 사실혼)
□ ③ 배우자 없음(이혼, 별거, 사망)

6.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음(☞ 6-1로) □ ② 없음(☞ Ⅱ로)

6-1.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어린 자녀부터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자녀수 (　　)명			
구분	**연령**	**성별**	**이용기관 및 소속**
자녀 1	만 (　)세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대학/ 대학원 □ ⑦ 직장 □ ⑧ 출가 및 미취업 □ ⑨ 기타(　　)
자녀 2	만 (　)세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대학/ 대학원 □ ⑦ 직장 □ ⑧ 출가 및 미취업 □ ⑨ 기타( )
자녀 3	만 ( )세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대학/ 대학원 □ ⑦ 직장 □ ⑧ 출가 및 미취업 □ ⑨ 기타( )
자녀 4	만 ( )세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대학/ 대학원 □ ⑦ 직장 □ ⑧ 출가 및 미취업 □ ⑨ 기타( )
자녀 5	만 ( )세	□ ① 남자 □ ② 여자	□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 ② 영유아 기관*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대학/ 대학원 □ ⑦ 직장 □ ⑧ 출가 및 미취업 □ ⑨ 기타( )

*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모든 기관을 말함(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기관(미취학 아동이 평일 매일 아침부터 점심 전후 시간까지 머물면서 교육과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학원.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형태로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이 이러한 학원의 일종임) 등)

6-2. (미취학 연령의 자녀가 영유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귀하의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가장 어린 자녀부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령	이용기관
		〈보 기〉
자녀 1	만 ( )세	□ ① 국공립어린이집 □ ②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③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④ 민간어린이집 □ ⑤ 가정어린이집 (놀이방) □ ⑥ 직장어린이집 □ ⑦ 협동어린이집 □ ⑧ 국공립유치원 □ ⑨ 사립유치원 □ ⑩ 반일제 이상 학원 □ ⑪ 기타( )
자녀 2	만 ( )세	
자녀 3	만 ( )세	

II. 부모됨

1. 부모됨 관련 문항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2)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3)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4) 자녀가 영유아(초등 이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6)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7)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2. 주어진 두 개의 문장 중 귀하의 솔직한 생각에 보다 더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1. 부모는	□ 1) 부모는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다. □ 2)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2-2. 자녀는	□ 1)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 2)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 없다.

3. 부모는 언제까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 ② 대학 졸업할 때까지
□ ③ 취업할 때까지 □ ④ 결혼할 때까지
□ ⑤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 ⑥ 평생동안

3-1. 자녀 1인당 양육비용(교육 포함)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영아(0-2세) □ ② 유아(3-5세) □ ③ 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
□ ④ 초등 고학년(4-6학년) □ ⑤ 중학생 □ ⑥ 고등학생

4.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2)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3)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5.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부모라면 자녀 양육과 가사(집안 일 등)를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자녀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어머니 vs 아버지 (:)

6. (현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실제로 자녀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계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자녀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어머니 vs 아버지 (:)

7. (현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자녀 양육 중 다음의 역할을 주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분	번호
1) 집안 일(식사 준비, 빨래 등)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
2) 자녀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
3)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
4) 자녀의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등·하원 도와주기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
5)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

8. 귀하는 조부모가 정기적으로 영유아 손자녀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손자녀를 위해 필요하다 ☐ ②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
☐ ③ 조부모를 위해 필요하다 ☐ ④ 조부모를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 ⑤ 모르겠다

9. 귀하는 자녀 양육시기별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양육시기별로 아래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영아 자녀(만0~2세)	유아 자녀(만3~5세)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①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②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③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④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10. (자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임 □ ③ 보통
□ ④ 그렇지 않은 편임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0-1. (자녀가 있는 경우) 귀하는 다음의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잇다면 자녀를 갖기까지 시간을 더 둘 것이다.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임 □ ③ 보통
□ ④ 그렇지 않은 편임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1. (자녀가 없는 경우) 귀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임 □ ③ 보통
□ ④ 그렇지 않은 편임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2.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번, 2순위 ( )번

□ ① 양육지식 □ ② 정서적 지원 □ ③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 ④ 학업지도 □ ⑤ 경제적 지원 □ ⑥ 기타( )

13. 귀하는 '부모는 필요시 자녀에게 체벌(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체벌 할 수 있다 □ ② 체벌은 하면 안된다
□ ③ 모르겠다

14. 일을 하면서 자녀양육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려움 □ ② 어려운 편임 □ ③ 보통
□ ④ 쉬운 편임 □ ⑤ 매우 쉬움

15. (영유아 부모 대상)귀하는 평소 자녀와 다음의 활동을 할 때 개인용무(전화, 문자, 동영상 시청, 게임, 검색 등)를 위해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구분	전혀 안한다 ← ←			→ → 매우 많이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 자녀와 함께 놀이할 때					
2) 자녀와 함께 식사할 때					
3) 자녀를 재울 때					

16. (영유아 부모 대상)하루동안 다음의 활동에 대한 귀하의 시간 사용과 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십니까?

구분	사용시간 (단위: 시간)	① 너무 길다	② 적절하다	③ 부족하다	④ 해당없음
1) 근무시간					
2) 집에 머무는 시간(잠자는 시간 제외)					
3)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예: 놀이, 식사, 외출 등)					

17. (영유아 부모 대상) 다음 문항이 자신을 잘 묘사하고 있는지 적당한 응답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그렇다	⑤정말 그렇다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2)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 다도 잘 알고 있다.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6)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 하고 지도한다.					
7)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8)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한 다.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8. (영유아 부모 대상) 다음 문항이 자신을 잘 묘사하고 있는지 적당한 응답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약간 그렇다	⑤정말 그렇다
1) 나는 아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나 음식물을 계속 치워야 한다.					
2) 아이가 나를 귀찮게하거나 칭얼대며 불평 한다.					
3) 아이 밥 먹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거나 불평하는 등)					
4) 아이가 잔소리 없이는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5) 아이 돌보는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6) 아이의 스케줄(유치원/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때문에 나의 일이나 가정 일에 지장이 있다.					
7) 아이는 나에게 함께 놀아주거나 재밌게 해 달라고 조른다.					
8)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자지 않으려고 해서 힘이 들 때가 있다.					
9) 집안일을 하는데 아이가 끊임없이 걸리적 니 거린다.					
10)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 예상치 못했던 아이의 일로 인해 내 계획을 바꿔야 할때가 많다.					
12)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더럽혀서 갈아 입혀야 한다.					
13) 아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14) 공공장소(식품가게, 쇼핑센터, 음식점)에서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15) 외출할 때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기 위해 아이를 준비시키려면 어렵다.					
16) 밤에 아이를 두고 나가거나, 다른 곳에 맡기고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7) 아이가 친구들과 지내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싸우거나 사이좋게 지내지 못 하거나 친구가 없는 등)					
18)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야만 한다.					

19. (영유아 부모 대상) 가장 적당한 답을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①가족 친척	②친구	③이웃
1)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2)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3) 육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4) 육아에 있어서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5) 육아와 관련한 통제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6)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임(오프라인)은 몇 개 입니까?	( )개		
7)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터넷 카페(온라인)는 몇 개입니까?	( )개		
8) 자녀와 함께 하시는 교육,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은 몇 개 입니까?	( )개		

20. 현재 집 또는 거주지 주변에 아래의 기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충분성					이용가능 기관수
	①매우부족	©다소부족	③보통	④약간충분	⑤매우충분	
1) 어린이집						( )개
2) 유치원						( )개
3) 놀이터						( )개
4) 아동도서관						( )개
5) 미술관						( )개
6) 박물관						( )개
7) 문화센터						( )개

Ⅲ. 결혼 및 자녀 양육관

1.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 ② 하는 편이 좋다
   □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2. 다음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2)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3)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3. 귀하가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 ① 총 ____명(성별 상관없음____, 아들 ____명, 딸 ____명)
   □ ② 없는 편이 좋다 ③ 잘 모르겠다

4. 귀하는 본인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4-1로) □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4-1로)
   □ ③ 없어도 무방함(☞ 4-2로) □ ④ 모르겠음

4-1.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배우자(또는 양가 부모)가 원하니까 □ ② 노후생활을 위해서
   □ ③ 가문(대)을 잇기 위해서 □ ④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 ⑤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 ⑥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 ⑦ 기타( )

4-2.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 ②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 ③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 ④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 ⑤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 ⑥ 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해서
   □ ⑦ 유전병 등 질환 때문에 □ ⑧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많이 되어서
   □ ⑨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 ⑩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 ⑪ 기타( )

5.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2)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3)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4) 자녀가 하기에 벅찬 일일지라도 혼자서 해보도록 해야 한다.				
5)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번, 2순위 ( )번

☐ ①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 ②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 ③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 ④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
☐ ⑤ 자녀의 심리적 안정
☐ ⑥ 자녀의 신체적 건강
☐ ⑦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 ⑧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 ⑨ 기타( )

7.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 ②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
☐ ③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 ④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 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 ⑥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 ⑦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다.
☐ ⑧ 기타( )

8. 귀하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예: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자녀로 기르는 것'을 선호하면 ①또는② 중 선호 정도에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하고, '열정에 따라 사는 자녀로 기르는 것'을 선호하면 ④또는⑤ 중 선호 정도에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자녀로 기르는 것	① ② ③ ④ ⑤	**열정에 따라 사는 자녀로 기르는 것**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부모로서 자녀에게 권위를 보여주는 것**

9. 귀하가 바라는 자녀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전문대 졸업
□ ③ 4년제 대학 졸업 □ ④ 석사학위 취득
□ ⑤ 박사학위 취득 □ ⑥ 상관없다

Ⅳ. 저출산

1. (기혼)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두 문항 3-1, 3-2) □ ② 없다 (두 문항 3-4)
□ ③ 생각 중 (두 문항 3-4) □ ④ 해당 없음

1-1.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몇 명의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현재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 총 ( ) 명

1-2.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생각 중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② 교육비 부담 때문에
□③ 직장생활로 바빠서 □④ 건강이 안 좋아서
□⑤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⑥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많아서
□⑦ 개인시간 (자기계발, 여가 등) 이 필요해서
□⑧ 기타 ( )

2. 귀하는 결혼 당시 몇 명의 자녀를 계획하셨습니까?
( ) 명

3.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명

4. 귀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② 다소 심각한 문제이다
□③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④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⑤ 모르겠다.

V. 육아 행복감

1. 다음 중 부모로서/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 ②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 ③ 자녀 돌봄과 지도
   □ ④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 ⑤ 기타( )

2. 귀하는 다음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3.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 중위소득은 220만원이었습니다. 귀하는 영유아 자녀 양육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한다면 월평균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만원

4. 귀하는 영유아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와 국가 중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 □ ②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
   □ ③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 □ ④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 ⑤ 기타( )

5. 귀하는 자녀 양육이 어느 시기에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임신기 □ ② 영아(0-2세) □ ③ 유아(3-5세)
   □ ④ 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 □ ⑤초등 고학년(4-6학년) □ ⑥ 중학생
   □ ⑦ 고등학생 □ ⑧ 모르겠음

6. 귀하는 '노키즈존(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장소/업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 ② 반대
   □ ③ 모르겠음

Ⅵ.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

1. 귀하는 국가차원에서 육아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다음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모의 일·가정 양립 □ ②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 ③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 ④ 아이의 행복
   □ ⑤ 기타( )
   ※ 일·가정 양립: 일과 가정(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귀하는 정부가 육아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설계에 있어, 다음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 ②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
   □ ③ 모르겠음 □ ④ 기타( )

3.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히 적용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방향성을 가지고 2019년 개정되어 2020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잘 노는 것은 미래사회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 ② 놀기만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 ③ 유아들의 전반적인 학습 능력이 저하되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다.
   □ ④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다.
   □ ⑤ 기타 ( )
   □ ⑥ 모르겠다.

4.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2022년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 ② 국공립 기관의 확대는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해칠 것 같다.
   □ ③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일 것 같다.
   □ ④ 국공립 기관을 확대하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40%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 ⑤ 기타 ( )
   □ ⑥ 모르겠다.

5.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은 오후 4시까지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의 전담교사가 담당하는 연장보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지원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담임교사의 업무가 줄어들 것이다.
   □ ② 담임교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서 보육의 질이 제고될 것 이다.
   □ ③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 ④ 영유아들이 일과 중 여러 교사를 만나게 되어 혼란스러울 것이다.
   □ 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방안이다.
   □ ⑥ 기타 ( )
   □ ⑦ 모르겠다.

6.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장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 ②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 ④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 ⑤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 ⑥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 ⑦ 지속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 ⑧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 □ ⑨ 기타( )

7. 귀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왜 사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개 선택)
   (※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유치원·어린이집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제 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
   □ ① 자녀가 원해서 □ ②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 ③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 ④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쳐질까봐 □ 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 ⑥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해서
   □ ⑦ 어린이집·유치원 등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 ⑧ 기타( )

8.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대상 사교육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③ 잘 모르겠다

9. 현재 정부는 0-5세에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국가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는 영유아(0-5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0으로) □ ② 없다(☞ 9-1로) □ ③ 잘 모르겠다 (☞10으로)

   9-1. 세금 추가 부담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 ②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
   □ ③ 세금을 늘리기 전에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 ④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 ⑤ 다른 증세 방안(기업 법인세 증액 등)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
   □ ⑥ 기타( )

10. 귀하는 정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문항 10-1로) □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 문항 10-1)
□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11로) □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11로)
□ ⑤ 모르겠다 (☞11로)

10-1. 정부가 출산·육아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항목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②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 ③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 ④ 비용 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 ⑤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연장
□ ⑥ 자녀 건강 관련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확대
□ ⑦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공기질 개선, 교통안전 등)
□ ⑧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 ⑨ 기타( )

11. 정부는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만5세 누리과정, 2013년 3-4세 누리과정 확대로 0-5세 연령별로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는 양육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① 매우 바람직	② 바람직	③ 보통	④ 바람직하지 않음	⑤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1) 보육료·유아학비 전 계층 지원				(☞11-1로)	(☞11-1로)
2)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11-2로)	(☞11-2로)

11-1. 전 계층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 ② 세금 부담 가중 우려 □ ③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
□ ④ 재정 지원 불안정 □ ⑤ 기타( )

11-2.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 ② 세금 부담 가중 우려 □ ③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
□ ④ 재정 지원 불안정 □ ⑤ 기타( )

12. 귀하는 그동안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이 추가 출산이나 출산 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 ③ 보통 □ ④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13. 귀하는 우리 사회가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14로) □ ② 그렇다(☞14로)
□ ③ 보통(☞14로) □ ④ 그렇지 않다(☞13-1로) □ ⑤ 매우 그렇지 않다(☞13-1로)

13-1.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개)
□ ① 국가 안보(전쟁, 북핵 문제 등) □ ②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 ③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등) □ ④ 인재(화재, 교통사고, 건물붕괴 등)
□ ⑤ 경제적 위험(기업 파산, 실업 등) □ ⑥ 자원(에너지 고갈)
□ ⑦ 도덕성 부족(부정부패 등) □ ⑧ 신종 질병(신종 바이러스 등)
□ ⑨ 범죄 발생(유괴, 아동학대, 살인,성폭력 등) □ ⑩ 빈부 격차로 인한 계층 간 갈등
□ ⑪ 기타( )

14.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개학과 어린이집 등원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 ① 영유아들이 기관에 등원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② 원격교육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 ③ 부모가 직접 영유아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④ 가정에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이자료나 재료를 지원해야 한다.
□ ⑤ 가정과 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앱 등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⑥ 기타 ( )
□ ⑦ 모르겠다.

※ COVID-19로 인하여 작년(2020년) 상반기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40만원을 돌봄쿠폰 돌봄포인트의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작년 (2020년) 하반기에는 영유아를 포함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 1명당 20만원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중학생 15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문항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돌봄 지원의 적절성〉 코로나로 인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임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지급 대상 범위〉 만약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자녀 양육비를 모두에게 지원한다면 지원 우선 순위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영아(0~2세)
   - □ ② 유아(3~5세)
   - □ ③ 초등학생
   - □ ④ 중학생
   - □ ⑤ 고등학생
   - □ ⑥ 고졸 이상 성인

17. 만약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자녀 양육비를 위 지원대상 1순위 자녀에게 지급한다면 연간 적정 지원 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 만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돌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결과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각 시도별 초중등학교의 출석 비율지침에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의 질문에 귀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8.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초중등과 비교하여
   - □ ① 보다 엄격한 기준(비율 축소 또는 폐쇄)이 적용되어야 한다
   - □ ②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 ③ 보다 느슨한 기준(비율 확대 적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 □ ④ 방역 노력은 기울이되 인원 제한 없이 원하는 모두에게 양육지원을 해야한다

※ 코로나로 인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폐쇄 및 제한적 운영으로 인하여 가정내 양육의 부담이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공시설(공원, 도서관, 실내체육관 등)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폐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실내 및 옥외 시설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 〈실내 시설: 실내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
   - □ ① 방역을 강화하되 모든 시설을 평시와 다름없이 운영해야 한다
   - □ ② 입장 인원을 제한하되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 ③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시간(요일 및 하루 중 운영 시간 등)만 허용한다
   - □ ④ 가급적 폐쇄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 〈옥외 시설: 공원, 광장 등〉
   - □ ① 방역을 강화하되 모든 시설을 평시와 다름없이 운영해야 한다
   - □ ② 입장 인원을 제한하되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 ③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시간(요일 및 하루 중 운영 시간 등)만 허용한다
   - □ ④ 가급적 폐쇄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1. 현재 0-5세 영유아에 대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음 □ ② 약간 잘하고 있음
□ ③ 보통 □ ④ 약간 잘못하고 있음 □ ⑤ 매우 잘못하고 있음

22. 다음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보육·교육에 있어서 가장 강조해야 할 점은 다음 중 어떤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유치원	어린이집
1순위 ( ) 번	1순위 ( ) 번
2순위 ( ) 번	2순위 ( ) 번

① 균형있는 발달 ② 인성지도(정서 및 사회성 발달)
③ 안전한 보호 ④ 자유놀이 중심 활동 ⑤ 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⑥ 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⑦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⑧ 특별활동 ⑨ 충분한 휴식
⑩ 기타( ) ⑪ 없음

23.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낸 경험이 있거나 향후에 보내신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1순위 ( ) 번	11순위 ( ) 번
2순위 ( ) 번	2순위 ( ) 번

① 운영 시간 ② 학부모 비용 부담 ③ 집과의 거리
④ 국공립 등 여부 ⑤ 주변의 평판 ⑥ 차량운행 여부
⑦ 형제 재원 여부 ⑧ 원장 및 교사 ⑨ 프로그램(특별/특성화/방과후 활동 포함)
⑩ 기타( ) ⑪ 모르겠음

24. 귀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기 관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유치원	어린이집
( )번	( )번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신뢰하지 못한다
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25.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이 갖추었으면 하는 사항을 각 기관별로 2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유치원	어린이집
(　　,　　)	(　　,　　)

① 학력이 높은 교사　② 경력이 많은 교사
③ 교육·보육 내용에 대해 지식이 많은 교사　④ 인성이 좋은 교사
⑤ 부모와 의사소통을 잘하는 교사　⑥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
⑦ 기타(　　)

26. 귀하께서 현재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3가지를 고르시오)
□ ①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 ②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단가 인상
□ ③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 ④ 보육·교육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 ⑤ 시간연 장형(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보육,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 ⑥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 ⑦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 ⑧ 육아정보·상담 제공
□ ⑨ 유연근무제 확대 (시차출근제, 단시간근로 등)
□ ⑩ 기타 (　　)
□ ⑪ 잘 모르겠음

※ 보육료 (만 0~2세)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0~2세반) 중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간병 등으로 시설 보 육 필요 정도 큰 아동은 종일반* 보육료, 그 외의 아동은 맞춤반 보육료 지원
※ 보육료 (만 3~5세)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를 대상으로 월 220천원의 비용 지원
※ 유아학비: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를 대상으로 월 220천원의 비용 지원
※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100~200천원의 비용 지원
※ 시간연 장형 보육: 어린이집 기준 보육시간 (07:30~19:30) 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제공 하는 보육
※ 시간제 보육: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아이돌보미: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제공

27. 귀하는 직장(회사, 기업 등)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⑤ 모르겠다

Ⅵ. 개인 배경

1. 본인(및 배우자)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 중퇴, 수료는 졸업이 아님)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졸업 ☐ ③ 중학교 졸업
☐ ④ 고등학교 졸업 ☐ ⑤ 전문대 졸업 ☐ ⑥ 대학교 졸업
☐ ⑦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 ⑧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본인	배우자

2. 본인(및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
☐ ③ 출퇴근하지 않음(재택,농어민) ☐ ④ 휴직 중
☐ ⑤ 무직(주부 포함) ☐ ⑥ 모름

본인	배우자

3. 본인(및 배우자)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고용주 ☐ ② 자영업자
☐ ③ 상용근로자 ☐ ④ 임시근로자
☐ ⑤ 일용근로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 ⑦ 무직(무직, 군인, 학생, 주부 등) ☐ ⑧ 모름

본인	배우자

4. 본인(및 배우자)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 노무 종사자
☐ ⑩ 군인 ☐ ⑪ 기타( )

본인	배우자

5. 귀하 가구의 월평균 총가구소득(세전 근로소득, 이자, 임대수입 등의 합)은 얼마나 됩니까?

가구
만원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부록 2. 수시 여론조사 설문지

2021 KICCE COVID-19 관련 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주) 데이터스프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가정 내외에서의 취학전 아동 학습 경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유아교육·보육·육아관련 연구·평가·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육아 정책 방향을 수립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취학전 아동의 학습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보호되오니, 소중한 정책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서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주관 및 조사기관

- 연구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수행기관 : 데이터스프링

※ 조사관련 문의 : 담당연구원 윤병조 실장(dooka108@gmail.com)

□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 기관으로부터 통계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육 아 정 책 연 구 소

Ⅰ. 기초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2.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서울특별시 □ 울산광역시 □ 전라북도
   □ 부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전라남도
   □ 대구광역시 □ 경기도 □ 경상북도
   □ 인천광역시 □ 강원도 □ 경상남도
   □ 광주광역시 □ 충청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3. 귀하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4. 현재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0명 □ ② 1명
   □ ③ 2명 □ ④ 3명
   □ ⑤ 4명 □ ⑥ 5명 이상

5. 다음 중 귀하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 ① 취학전(유치원, 어린이집 등 초등학교 입학전)
   □ ② 초등학생 □ ③ 중학생
   □ ④ 고등학생 □ ⑤ 대학생 이상

지금부터는 귀하께서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하고 있는 취학 전 자녀의 학습 경험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양육하고 있는 취학전 자녀 중 출생월과 출생일이 가장 빠른 자녀의 출생연도와 출생월을 선택해 주십시오.

6. 출생월과 출생일이 가장 빠른 취학 전 자녀의 출생연도
   _____ 년

7. 출생월과 출생일이 가장 빠른 취학 전 자녀의 출생월
   _____ 월

지금부터는 0000(6번문항 답)년 00(7번)월 생인 취학전 자녀의 지난 한 주간을 기준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8. 귀하께서는 위에서 언급하신 취학 전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 혹은 양육자입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탈락

9. 지난 한 주간, 귀하나 다른 가족이 귀하의 자녀에게 책을 몇 번 읽어주셨습니까?

최근 일주일간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 횟수
( )

10. 귀하의 자녀는 지난 한 주간 귀하나 다른 가족 등과 함께, 혹은 혼자 다음 각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구분	① 전혀 없었다	② 1~2회	③ 3회 이상
이야기 들려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글자나 숫자 가르치기			
미술 및 공작활동			

11. 귀하의 자녀는 지난 한 주간 귀하나 다른 가족 등과 함께, 혹은 혼자 다음 각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구분	① 매일 여러차례	② 매일 한 번	③ 주중 3~4회	④ 주중 1~2회	⑤ 전혀 하지 않는다
그림책 읽기보기, 혹은 다른 사람이 읽어 주는 것 듣기					
TV 시청					
TV로 DVD나 비디오 시청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					
컴퓨터게임기, 태블릿 PC, 스마트폰이나 기타 기기로 비디오 게임					
음악 연주 혹은 감상					
미술 및 공작활동					
실내에서 장난감, 보드게임 등 디지털 매체를 제외한 도구를 사용한 놀이					
바깥놀이					

12. 귀하의 자녀는 다음의 각 활동을 어제 하루 동안 귀하나 다른 가족, 혹은 형제자매 등과 함께, 혹은 혼자 한 적이 있습니까? 어제 활동한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어제 자녀는 인쇄된 책자를 읽거나 다른 사람이 읽어 주는 것을 들었다
□ 어제 자녀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전자책을 읽거나 읽어 주는 것을 들었다
□ 어제 자녀는 장난감, 보드 게임 등 디지털 매체를 제외한 도구를 사용해 실내에서 놀았다
□ 어제 자녀는 그리기나 만들기를 하였다
□ 어제 자녀는 바깥 놀이를 하였다
□ 어제 자녀는 음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하였다
□ 어제 자녀는 TV 수상기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 어제 자녀는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 어제 자녀는 컴퓨터, 게임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을 하였다
□ 어제 자녀는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으로 교육용, 학습용 프로그램이나 앱을 사용하였다
□ 어제 자녀는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으로 화상 통화를 했다
□ 어제 자녀는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활동 (예: 사진이나 직접 찍은 동영상 보기, 검색하기 등) 을 하였다
□ 어제 하루 동안 자녀는 위 활동 중 어떤 활동도 한 적 없다

13. 어제 하루를 기준으로 귀하의 자녀는 다음의 각 활동을 귀하나 다른 가족, 혹은 형제 자매 등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자녀 혼자	응답자와	가정내 다른 어린이와 함께	가정내 다른 성인과 함께	기타 다른 사람과
* 12번 문항에서 선택한 응답					

14. 어제 하루를 기준으로 귀하의 자녀는 다음의 각 활동을 몇 분 동안 했습니까?

(단위: 분)

□ 어제 자녀는 인쇄된 책자를 읽거나 다른 사람이 읽어 주는 것을 들었다 ( )
□ 어제 자녀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전자책을 읽거나 읽어 주는 것을 들었다 ( )
□ 어제 자녀는 장난감, 보드 게임 등 디지털 매체를 제외한 도구를 사용해 실내에서 놀았다 ( )
□ 어제 자녀는 그리기나 만들기를 하였다 ( )
□ 어제 자녀는 바깥 놀이를 하였다 ( )
□ 어제 자녀는 음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하였다 ( )
□ 어제 자녀는 TV 수상기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 )
□ 어제 자녀는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 )
□ 어제 자녀는 컴퓨터, 게임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을 하였다 ( )
□ 어제 자녀는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으로 교육용, 학습용 프로그램이나 앱을 사용하였다 ( )
□ 어제 자녀는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으로 화상 통화를 했다 ( )
□ 어제 자녀는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활동 (예: 사진이나 직접 찍은 동영상 보기, 검색하기 등) 을 하였다 ( )
□ 어제 하루 동안 자녀는 위 활동 중 어떤 활동도 한 적 없다 ( )

15. 지난 한 주간 자녀의 평균 수면시간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침 시각(0~24시) ( )
☐ 기상 시각(0~24시) ( )
☐ 하루 평균 수면 시간(시간) ( )

16. 귀하의 0000년 00월생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 혹은 소속은 어디입니까?

☐ 가정내 양육 ☞ 응답 종료
☐ 어린이집
☐ 유치원
☐ 기타 ( )

17. 귀하의 자녀는 코로나 발발 이후 재원중인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등에서 다음의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 이 있습니까?

구분	① 예	② 아니오
질문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할 때 담임 교사에게 연락할 방법을 안내받았다.		
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된 지원이나 활동 안내를 받았다.		
활동지(활동 및 일정 등을 기록한 워크 시트) 혹은 온라인 활동지를 제공받았다.		
컴퓨터나 휴대용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프로그램이나 앱, 학습 활동 등을 제공받았다. (예: 전자책,학습용 게임 등)		
교사가 자녀와 직접 소통하였다. (전화채팅 앱 등 음성 혹은 화상 통화)		
사전에 녹화된 동영상 강좌를 제공받았다.		
음식물(식사)을 제공받았다.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8. 자녀가 재원 중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원격 강의나 활동을 제공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제공받고 있다.
☐ ② 아니오, 기관에서는 원격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③ 해당 없음, 매일 출석하고 있다.

19. 귀하의 자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출석을 대체하기 위한 숙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제공받고 있다. ☞ 20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기관에서는 출석을 대체할 숙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응답 종료
☐ ③ 해당 없음, 매일 출석하고 있다. ☞ 응답 종료

20. 귀하의 자녀는 얼마나 자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숙제를 받습니까?
    □ ① 매일
    □ ② 주중 3~4회
    □ ③ 주중 1~2회
    □ ④ 주중 1회 미만

21. 귀하의 자녀는 숙제를 하는 데에 1회당 평균적으로 몇 분이 소요됩니까?

    숙제 소요시간 ( ) 분

22. 귀하의 자녀가 마친 숙제는 사진이나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1. 결혼 여부 및 자녀의 수와 연령과 같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녀를 가지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녀가 있을 때의 단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미혼이시면 향후 결혼관과 자녀 출산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5. (아동수당에 대한 간략한 설명) 아동수당과 어린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가정에서 이상적인 양육분담과 자신의 경험을 비춘 현실을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7. 조부모님의 돌봄 참여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8. 체벌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9. 자녀, 혹은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10. 일반적으로 그리고 본인은 자녀의 학업에 대하여 부모의 지원 및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1. 노키즈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노키즈존을 표방하는 매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2.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유연근무가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자녀 양육과 관련해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부탁합니다.
13. 코로나 이후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제약이 많아졌는데 이에 대한 불편함 혹은 개선 의견이 있으신지요?
14.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추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V)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590
9 791168 650039
ISBN 979-11-6865-003-9